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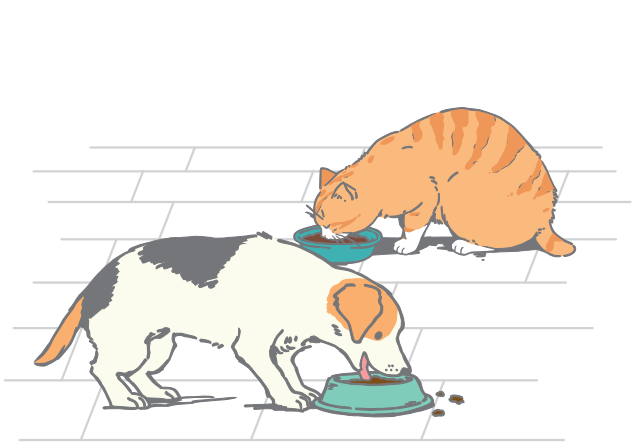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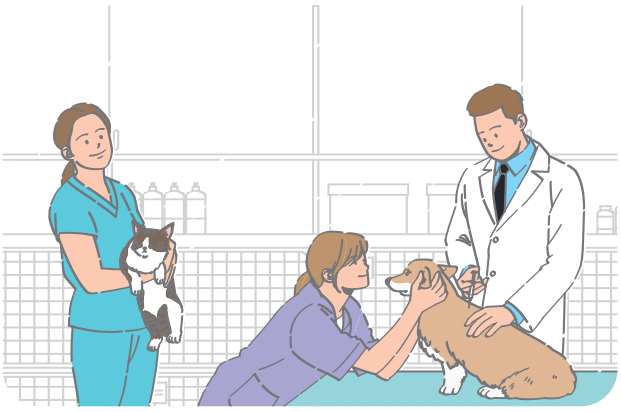
반려동물 건강 웰니스와 비만 관리

2025. 6

황원경 | 김남경 | 강윤정

KB금융지주 | 경영연구소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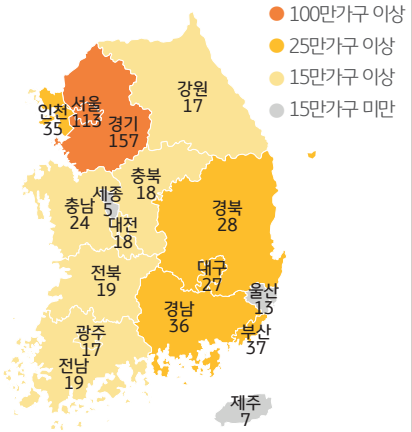
국내 591만 가구, 1,546만 명이 반려동물 양육

반려가구
591만 가구

반려인
1,546만 명

반려견
546만 마리

반려묘
217만 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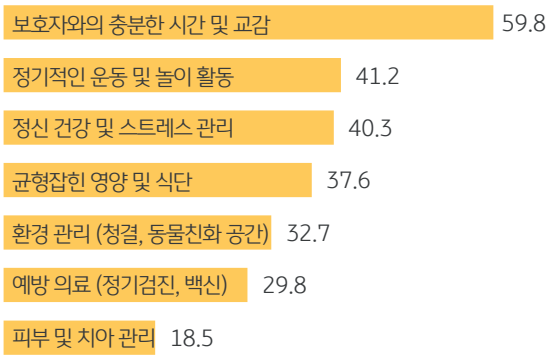


반려견 1위는 '몰티즈', 반려묘는 '코리안 숏헤어'

반려견		반려묘	
몰티즈	20.4	코리안숏헤어	44.7
푸들	18.9	러시안블루	12.8
믹스견	15.1	페르시안	9.6
포메라니안	12.8	잘 모르겠다	9.1
비숑 프리제	7.0	스코티쉬폴드	7.9
치와와	5.3	샴	5.9
시추	5.1	터키쉬앙고라	5.7

(단위: %)

반려동물의 건강 ·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자와의 충분한 시간 및 교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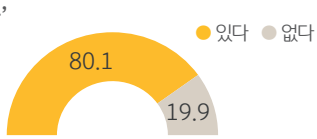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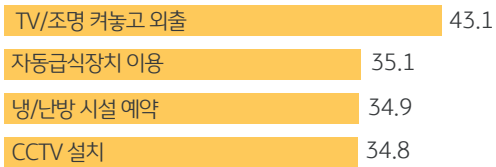
반려동물 80.1%는 '나홀로 집에' 경험, 남겨진 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 54분

• 반려동물의 '나홀로 시간'

혼자 있는 시간:
하루 평균 5시간 54분



• 대응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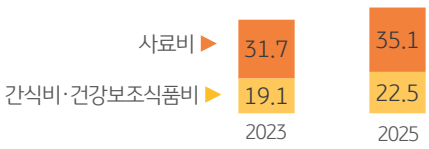
(단위: %)

반려동물 월 양육비는 평균 19만 4천 원, 2023년 대비 식비가 6.8%p 증가

• 반려동물 월 양육비

	전체		반려견(1마리)		반려묘(1마리)	
	2023	2025	2023	2025	2023	2025
	15.4	19.4	13.5	16.1	12.6	14.2

• 반려동물 월 양육비 지출 중 식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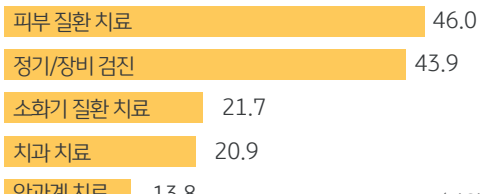
(단위: 만원, %)

최근 2년간 반려동물 치료비로 2023년의 두배인 146만 3천 원 지출

• 지난 2년간 반려동물 치료비(지출이 있는 경우)

	전체		반려견(1마리)		반려묘(1마리)	
	2023	2025	2023	2025	2023	2025
	78.7	146.3	74.5	143.3	59.8	103.2

• 반려동물 치료비 지출처 Top5



(단위: 만원, %)

반려가구 26.6%만이 반려동물 전용자금 운용, 저축 목적 1위는 '병원비'

• 저축·자금운용 유무

• 저축·운용 목적 TOP 5
(자금 운용자만, 1+2+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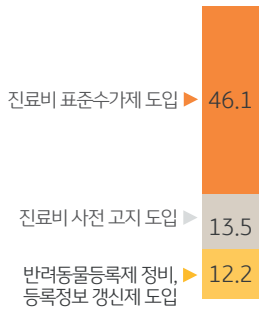
1	병원비	73.3
2	건강관리(검진 등)	56.4
3	양육 자금	42.1
4	장례비	24.8
5	여행	16.2

(단위: %)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12.8% 수준, 활성화 위해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희망

• 반려동물보험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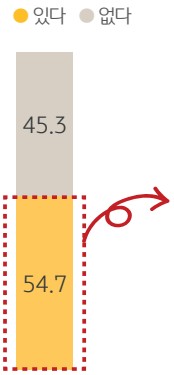
•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최우선 과제 TO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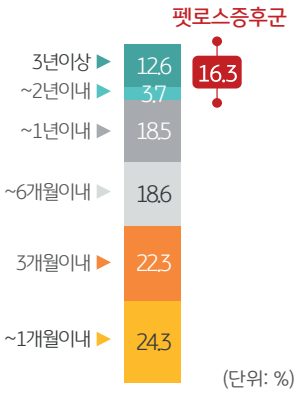


(단위: %)

반려가구 54.7%는 반려동물과 이별 경험, 16.3%는 이별 극복에 1년 이상 소요

• 펫로스 경험 유무





(단위: %)

'돌봄 부족에 대한 자책 · 후회' 경험 후, '충분한 애도 기간'을 통해 자연스러운 이별

• 펫로스 후 경험 증상

1	돌봄부족 자책/후회	71.5
2	무기력/우울감	48.6
3	지속적인 슬픔	45.2
4	수면문제	12.2
5	불안감	11.9

• 펫로스 우울감 극복방법

1	충분한 애도 기간	53.6
2	지인 공감·위로	42.4
3	반려동물 입양	33.3
4	경험자 소통	21.6
5	사례공유	16.3

(복수응답, 단위: %)

반려동물 14.7%는 수의사의 '비만' 진단, 비만율 1위는 '요크셔테리어(견)'와 '페르시안(묘)'

• 수의사의 비만 판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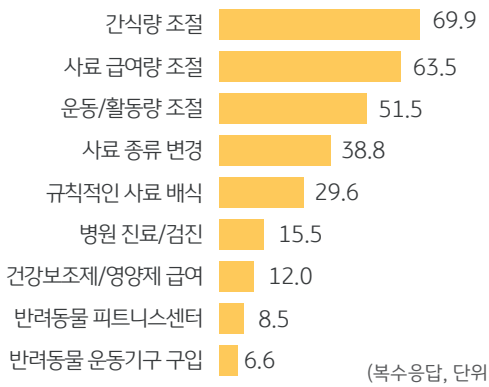
• 품종별 비만율 TOP3

반려견	반려묘
요크셔테리어 (29.2)	페르시안 (70.0)
치와와 (27.0)	샴 (60.0)
포메라니안 (22.0)	러시안블루 (50.0)

(단위: %)

반려가구가 시도한 비만관리법은 '간식량', '사료 급여량', '운동량' 조절

• 반려동물 비만 관리 방법



(복수응답, 단위: %)

Key Issues 1

"한국 반려가구에게 반려동물은 가족"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반려가구는 물론 비반려가구도 반려동물을 가족이라 생각해요.

한국 반려가구는 2024년 말 기준 591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6.7%, 반려인은 1,54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9.9%를 차지했습니다. 반려가구의 87.2%가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이라 생각했고, 비반려가구 중 68.2%도 이 같은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특히 비반려가구의 동의율 변화가 눈에 띄었는데, 2018년 50.6%에 불과하던 동의율이 2021년 54.4%, 2023년 66.4%로 상승하며 반려가구와의 격차가 점차 줄고 있어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이다'는 의견에 반려가구의 87.2%, 비반려가구의 68.2%가 동의

반려동물을 '홀로 집에' 두고 여행 갈 수 없어요.

최근 2년간 45.2%의 반려가구가 반려동물 때문에 '여행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려동물만 홀로 집에 두기 싫어서' 또는 '동반 여행이 쉽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여행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반면 44.5%의 반려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당일 또는 숙박 여행(비행기 이동 포함)을 다녀왔고, 그 횟수는 당일 나들이 여행은 3.44회, 숙박 여행은 1.29회를 기록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홀로 집에' 둘 수 없어 데리고 가거나 또는 여행을 포기하는 가족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최근 2년 간 45.2%의 반려가구가 반려동물을 '홀로 집에' 둘 수 없어 여행을 포기

무지개 다리를 건넌 반려동물도 오래 기억하고 싶어요.

무지개 다리를 건넌 반려동물을 '야산에 직접 매장'한 반려가구는 2023년 58.7%에서 2024년 31.6%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화장 후 수목장'(20.0%)을 하거나 '동물병원에 장례를 의뢰'(15.1%)하거나, 화장 후 '지택에 유골함'(12.4%)이나 '메모리얼스톤'(12.4%)으로 보관하는 등의 장례 방법을 활용하는 반려가구는 꾸준히 늘고 있었습니다. 수목장이나 별도의 추모 공간 마련과 같은 인간의 장례 절차를 따르는 반려가구가 늘어난 이유는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여 계속 기억하려는 문화가 확산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지개 다리를 건넌 반려동물은 수목장이나 별도의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례

반려동물과의 이별은 가족과 이별하는 것만큼 슬퍼요.

한국 반려가구 중 절반 정도(54.7%)가 반려동물과의 이별(펫로스)을 경험했습니다. 펫로스(Pet Loss, 반려동물과의 이별)의 사유로는 자연사가 가장 많았고, 안락사, 사고, 실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후 반려인 대부분은 가족과 이별한 것처럼 상실감이나 우울감 등의 심리적 고통을 느꼈고, 이를 이겨내는 데 1년 이상 소요되는 '펫로스증후군'을 경험한 반려인도 16.3%를 차지했습니다. 반려동물과 이별한 반려가구는 충분한 애도 시간을 갖고 주변의 공감과 위로를 통해 슬픔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과의 이별에 가족을 잃은 듯한 슬픔을 경험, 16.3%는 '펫로스증후군'도 경험

"최근 부쩍 관심이 높아진 반려동물 건강 웰니스" 반려가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반려가구의 최대 관심사는 '반려동물 건강', '웰니스'를 꿈꿔요.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관련 최대 관심사는 '건강관리'(55.2%)로 2023년에 이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건강관리'와 관련한 반려가구의 세부 관심사로는 '건강검진과 같은 건강관리 방법'(59.1%)과 '질병 진단 후 케어 방법'(56.2%)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졌고, 그 외에 '이상 행동 케어 방법'(31.9%)과 '비만 케어 방법'(24.3%) 등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반려동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과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행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반려동물 건강 웰니스'로 첫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관련 관심사는 반려동물의 '건강관리'로 절반이 넘는 55.2%가 꼽음

반려동물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운동과 놀이로 교감해요.

운동·놀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신체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반려인의 노력도 활발했습니다. 반려견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반려견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반려견가구의 59.3%는 주 4일 이상 함께 산책·달리기·훈련 등의 실외 활동을 하고(하루 평균 주중 59분, 주말 1시간 24분), 실내에서는 이보다 긴 시간을 놀아주고 있었습니다(하루 평균 주중 1시간 35분, 주말 2시간 15분). 실내 생활을 하는 반려묘의 건강관리를 위해 반려묘가구 역시 하루 평균 주중 1시간 18분, 주말 1시간 57분을 함께 놀아주며 교감하고 있었습니다.

반려견가구는 실외·실내 활동으로, 반려묘가구는 실내 활동으로 반려동물과 놀이와 교감 중

반려동물 건강 웰니스를 위해 예방 의료에도 관심이 많아요.

반려동물의 건강 웰니스를 위해 예방 의료에도 관심이 많아 반려가구의 54.8%는 '건강 이상 증세를 보이거나 아플 때', 34.4%는 '일정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13.5%는 '영유아기-청년기-노령기 등 생애주기가 바뀔 때마다' 반려동물 건강검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려가구의 3분의 1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고, 검진 주기는 '1년에 1번'(39.8%)이 가장 많아 사람과 같은 검진 주기를 따르며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었습니다.

반려가구 중 34.4%는 반려동물의 예방 의료 차원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

반려동물과 건강하게 함께 살려고 비만 관리에도 신경 쓰고 있어요.

한국 반려동물 중 '수의사의 비만 판정'을 받은 비만 동물은 전체의 14.7%를 차지했고, '단독주택'(9.4%)보다 '집합주택'(15.5%)에 사는 반려동물이 비만인 사례가 더 많았습니다. 비만율이 높은 반려견은 '요크셔테리어'(29.2%), 반려묘는 '페르시안'(70.0%)이었습니다. 비만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월 양육비로 28만 3천 원을 지출하며 그렇지 않은 반려가구(17만 8천 원) 대비 1.6배 많은 금액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비만 관리를 위한 추가 지출과 함께 정기검진 외 비만으로 인한 질환 치료비 지출이 늘었습니다.

한국 반려동물 중 '수의사의 비만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14.7%를 차지

Key Issues 3

"증가하는 반려동물 생애 지출"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요?

반려동물 월 양육비 중 식비가 가장 많이 늘었어요.

반려가구는 반려동물 치료비를 제외하고 매월 고정적인 양육비로 '19만 4천 원'을 지출해 2023년 15만 4천 원에 비해 4만 원을 더 쓰고 있었습니다. 반려견 1마리당 월 양육비는 16만 1천 원으로 이전 조사보다 2만 6천 원, 반려묘 1마리당 월 양육비는 14만 2천 원으로 2023년 대비 1만 6천 원이 늘었습니다. 반려동물 월 양육비 중 '사료비'(35.1%)와 '간식비·건강보조식품비'(22.5%)의 식비 지출이 절반 이상(57.6%)을 차지하고 2023년(50.8%)보다 6.8%p 증가했습니다.

반려가구는 반려동물 양육비로 월 19만 4천 원 지출하며 2023년 대비 4만 원이 증가

반려동물 치료비가 2년 사이 두 배나 늘었어요.

반려동물 생애 지출 중 간헐적으로 발생하나 규모가 큰 비용은 '치료비'로, 최근 2년간 반려가구는 평균 102만 7천 원을 지출하며 2023년(57만 7천 원)에 비해 두 배가량 급증했습니다. '평균 100만 원 이상'의 고액을 지출한 반려가구도 26.2%로 이전 조사(18.8%)보다 7.4%p 늘어났습니다. 치료비의 가장 주된 지출 항목은 '피부 질환 치료비'(46.0%), '정기·장비 검진비'(43.9%)였고, 생애주기별로는 중장년기(3~4세)와 노년기(6~7세) 이후 지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최근 2년간 반려가구의 치료비는 평균 102만 7천 원으로 2023년 57만 7천 원의 약 두 배

반려동물 관련 지출은 늘었는데... 전용 자금 운용이 필요해요.

반려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입양비, 양육비, 치료비, 장례비 등 다양한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물가 상승으로 지출 규모도 급증해 반려동물을 위한 전용 자금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전용 자금을 저축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반려가구는 전체의 26.6%에 그쳤습니다. 이들의 반려동물 전용 자금과 월 저축액 규모 역시 2023년에 비해 감소해 지출 증가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운용 자금은 평균 239만 8천 원으로 2023년 대비 2만 9천 원이 줄었고, 월 저축액은 19만 2천 원으로 2023년 대비 6만 7천 원이 적었습니다.

반려가구 중 26.6%만이 반려동물을 위한 전용 자금을 저축하거나 운용 중

부담이 큰 반려동물 치료비를 마련하는 데 '보험'이 큰 힘이 돼요.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반려동물보험'에 대해 91.7%의 반려가구는 이미 '들어본 적이 있거나 종류·특징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2018년 59.5%에 비해 인지율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반려동물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12.8%로 매우 저조했고,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해 건강·복지를 신경 쓰며 웰니스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반려가구의 보험 가입 저해 요인이 '보험료 부담'(50.6%)라는 점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려가구의 91.7%가 반려동물보험을 알고 있었으나 가입률은 12.8%에 그침

"올바른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한 과제"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 어떤 오해가 있나요?

'반려동물 복지 강화'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한마음이에요.

반려가구와 비반려가구 모두 한목소리로 '동물 유기 및 학대 관련 처벌 강화'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려가구(82.6%)와 비반려가구(78.5%) 모두 높은 동의율을 보였고 '동물 유기 시 처벌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반려가구(82.6%)와 비반려가구(80.3%) 사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반려동물 양육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인 모두가 한마음으로 현행법보다 높은 처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구분 없이 한국인 10명 중 8명은 '동물 유기 및 학대 시 처벌 강화'에 공감

'펫티켓'에 대해 반려인과 반려인 사이 인식 차이가 있어요.

'펫티켓'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반려가구와 비반려가구의 동상이몽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려가구는 71.4%가 스스로 '펫티켓을 잘 지킨다'고 응답한 반면, 비반려가구는 19.0%만이 '주변에서 펫티켓을 잘 지킨다'고 답해 펫티켓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 차이(52.4%p)가 컸습니다. 특히 비반려가구의 경우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변 펫티켓 준수 여부에 대한 동의율이 낮아 20대는 22.4%가 동의하는 데 비해 60대는 14.4%에 불과했습니다.

'펫티켓'에 대한 인식 차이 극복은 반려가구와 비반려가구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사회적 과제

반려인도 비반려인의 펫티켓 위반으로 불쾌할 때가 있어요.

펫티켓 준수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의 첫걸음입니다. 이제까지 펫티켓은 반려가구가 공공 장소에서 지켜야 할 반려동물 관련 에티켓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반려견가구 역시 89.4%가 산책 시 공공 장소에서 비반려인의 펫티켓 위반으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려인이 경험한 비반려인의 펫티켓 위반 행위는 반려견을 '놀라게 하거나 겁주기 등의 행동'(48.7%)이 가장 많았고, '허락 없이 만지기'(39.2%), '반려견을 향한 비난이나 욕설 퍼붓기'(29.3%)도 있었습니다.

반려견가구의 90% 가까이는 '비반려인의 펫티켓 위반으로 불편함'을 경험

이별도 가족처럼... '펫로스'를 이해해 주세요.

반려동물과의 이별은 때로는 가족을 잃은 것에 비견할 만한 깊은 상실감을 가져다줍니다.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겪은 반려인은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한편으로 펫로스에 대한 공감대나 지원이 미흡하고, 특히 비반려인의 펫로스에 대한 인식 차이가 커 반려동물의 죽음을 드러내서 슬퍼하는 것도 어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해 안 되는 감정이다' 또는 '너무 유난 떠는 것 같다' 등 주변으로부터 공감을 받지 못한 경험을 토로하는 반려인이 많았습니다.

반려인은 절반 이상이 겪은 펫로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을 아쉬워함

Contents

I
한국 반려동물 현황

01 | 한국 반려동물 양육 현황 2
02 | 향후 양육 희망 반려동물 6
03 | 선호 품종과 입양처 8
04 | 관련 법·제도 강화 의견 12
05 | 펫티켓 성숙도 16
Key Findings 22

II
반려동물의 생활 웰니스

01 | 반려동물 웰니스 인식 24
02 | 반려동물의 영양 관리 26
03 | 반려동물의 운동과 놀이 30
04 | '나홀로 집에' 반려동물 케어 32
05 | 반려동물과의 여가활동 34
06 | 반려동물을 위한 건강검진 38
Key Findings 40

III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양육 경험

01 | 반려가구의 양육 관심사 42
02 | 반려가구의 양육 만족도 44
03 | 반려가구의 양육 지속 의향 46
Key Findings 48

IV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생애 지출

01 | 반려동물 입양비 50
02 | 반려동물 양육비 52
03 | 반려동물 치료비 54
04 | 반려동물 장례비 58
Key Findings 60

V
반려동물 생애자금 관리

01 | 반려동물 생활비 마련 62
02 | 반려동물 보험 66
Key Findings 72

VI
[이슈1] 반려가구의 펫로스 관리

01 | 펫로스 경험 74
02 | 펫로스증후군 경험 76
03 | 펫로스증후군 극복 방법 78
Key Findings 82

VII
[이슈2] 반려동물 비만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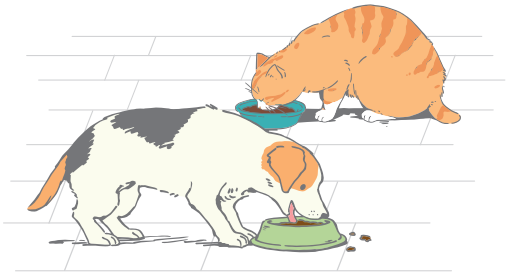
01 | 반려동물 비만 진단 84
02 | 반려동물 비만 관리의 중요성 86
03 | 반려동물 비만 대응 90
Key Findings 96

[참고] 용어정의 | 연구 방법 | 참고자료 98

I

한국 반려동물 현황

01 | 한국 반려동물 양육 현황
02 | 향후 양육 희망 반려동물
03 | 선호 품종과 입양처
04 | 관련 법·제도 강화 의견
05 | 펫티켓 성숙도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라는 용어는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 <인간과 반려동물의 유대(The Human-Companion Animal Bond)>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즈음부터 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인식이 향상하면서, 동물을 감정적으로 즐기거나 소유하는 대상으로 보는 '애완동물(Pet)' 대신 삶을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의미의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경향이 확대되면서 이를 두고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변화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반려동물이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KB경영연구소는 2017년 이후 삶을 함께하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올해 다섯 번째 보고서인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를 발간하게 됐다.

1장에서는 한국 반려동물 현황을 파악하고자 자체 개발한 추정모델을 통해 반려동물 및 반려가구 수, 지역별 분포, 선호하는 품종 및 향후 양육 희망 반려동물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문화를 위한 초석인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반려가구와 비반려가구의 인식 비교, 반려문화 구축을 위한 제도 강화 의견 등에 대해서도 다룬다. 이 같은 내용은 '반려가구 추정모델'과 전국 20세 이상 69세 이하 남녀 2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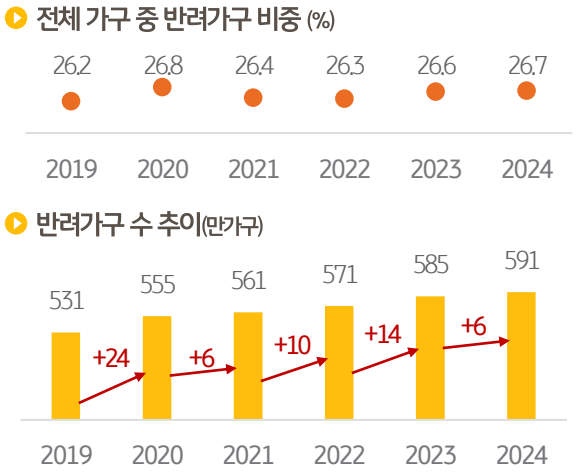
01 한국 반려동물 양육 현황

2024년말 기준 한국 반려가구는 591만 가구로 전체 가구 중 26.7%가 반려동물을 양육했다

2024년 말 기준 한국에서 개, 고양이, 금붕어, 거북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591만 가구로 지난 2023년 말의 585만 가구 대비 1.1%(6만 가구)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이는 한국 전체 가구 증가율(2024년 1.84%, 통계청) 대비 낮은 수준이었다. 반려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반려동물 양육률'은 26.7%로 지난 조사의 26.6% 대비 0.1%p 증가하는 데 그치며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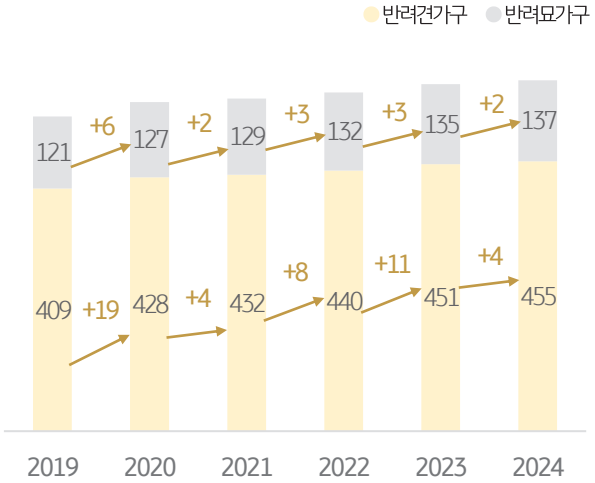
591만 반려가구 중 반려견을 기르는 '반려견가구'는 455만 가구로 지난해(451만 가구) 대비 4만 가구, 반려묘는 2024년말 기준 137만 가구로 지난해(135만 가구) 대비 2만 가구 증가했다. 반려견가구와 반려묘가구는 지난해 대비 각각 1.1%와 1.2% 증가하며 비슷한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려가구 수 증가율 정체는 2020년 이후 한국 가구 증가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와 맞닿아 있다.

그림 I-1 반려가구 수 및 양육가구 비중 추이 (단위:%, 만가구)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수산축산부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및 동물등록현황, KB경영연구소 자체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추정

그림 I-2 반려동물유형별 반려가구 수 추이 (단위:만가구)



주) 반려견과 반려묘 둘다 기르는 가구는 중복 계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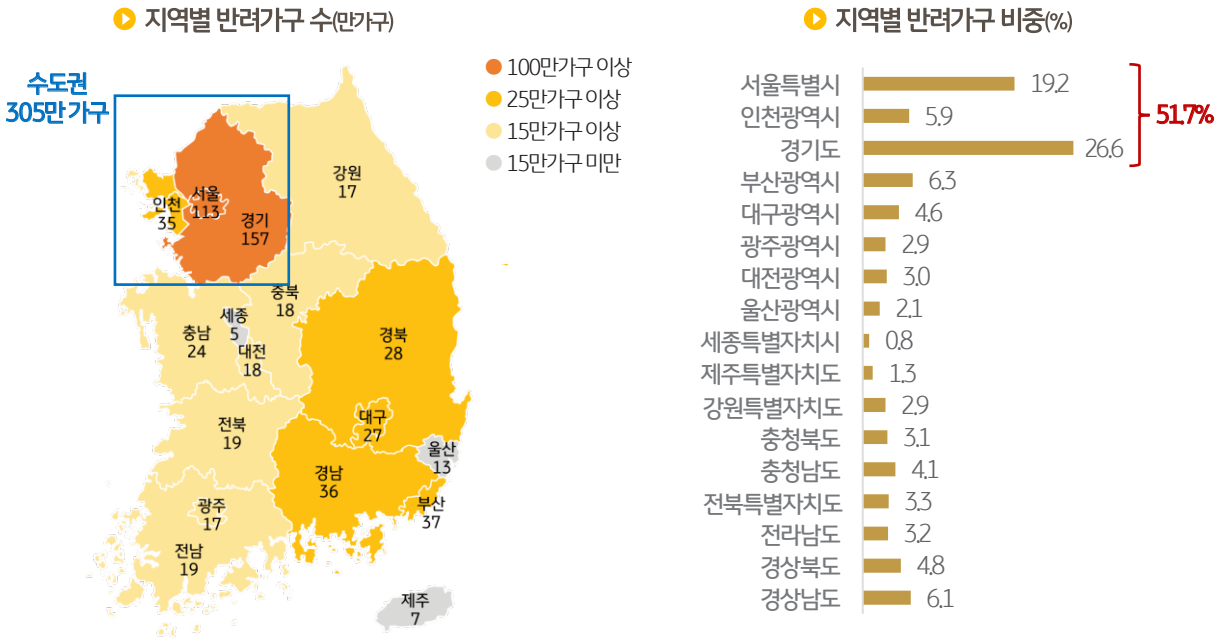
한국 반려가구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305만 가구가 거주, 전체 반려가구의 51.7%를 차지했다

지역별 반려가구 수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57만 가구로 전체 반려가구의 26.6%가 살며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가 113만 가구로 19.2%를 기록하며 100만 가구가 넘었다. 2순위와 격차가 벌어지며 '부산광역시'가 37만 가구(6.3%), '경상남도'가 36만 가구(6.1%), '인천광역시'가 35만 가구(5.9%)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포함하는 '수도권'에 305만 가구로 전체 반려가구의 절반이 넘는 51.7%가 살고 있다. 이는 지난 2023년 말 기준 수도권에 살고 있는 반려가구는 301만 가구로 51.5%로 0.2%p 증가하며 큰 폭의 증가는 아니었다.

개별 시·도별로 보면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는 반려가구 수가 각각 13만 가구, 7만 가구, 5만 가구로 15만 가구를 넘지 못했다. 이들 3개 지역은 면적이 좁아 거주민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세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는 평균 15만 가구가 넘었고, '부산광역시'(37만 가구), '경상남도'(36만 가구)와 '인천광역시'(35만 가구), '경상북도'(28만 가구), '대구광역시'(27만 가구)는 25만 가구가 넘었다.

그림 I-3 지역별 반려가구 현황(2025년) (단위:만가구,%)



한국 반려인은 2024년 말 기준 1,546만 명으로 총 인구의 29.9%, 2023년 말 대비 5만 명 증가했다

앞서 한국의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 수는 591만 가구였고, 2023년 말 기준의 585만 가구에 비해 6만 가구 증가에 그쳤다. 반려동물유형별 반려인 수와 가구 수, 지역별 가구 현황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한국의 반려인 현황을 파악해 보겠다. 먼저 2024년 말 기준 한국의 반려인은 총 1,546만 명으로 총인구(5,175만 명) 중 29.9%에 이른다. 반려인 수는 전년(1,541만 명) 대비 5만 명 증가해 2022년 대비 21만 명 늘어난 2023년 말에 비해 4분의 1 정도 증가율이 감소했다. 이는 2023년 말보다 6만 가구 증가한 반려가구에 비해서도 낮은 증가율이다. 반려인 수 증가율이 낮은 것은 총인구 증가율 하락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4년 말 기준 반려견을 기르는 반려인은 1,196만 명, 반려묘를 기르는 반려인은 346만 명이었다. 전년 대비 반려견을 기르는 반려인이 4만 명, 반려묘를 기르는 반려인이 1만 명 늘어났으며 증가율은 각각 0.3%로 같았다.

그림 I-4 반려인 수 추이 (단위: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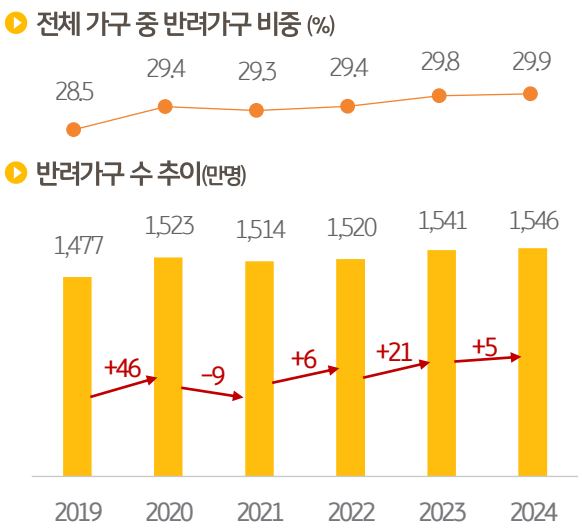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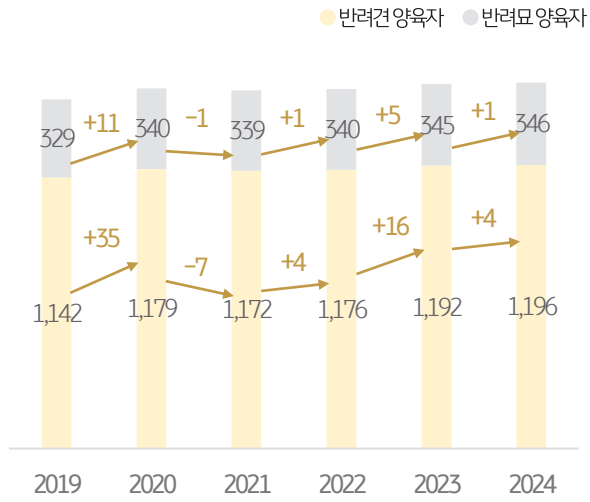


그림 I-5 반려동물유형별 반려인 수 (단위:만명)



주) 반려견과 반려묘 둘다 기르는 반려인은 중복 계산됨

반려견은 546만 마리로 지난해보다 10만 마리 감소했고, 반려묘는 217만 마리였다

올해 2024년 말 기준으로 추정한 한국의 반려동물 수는 이전과는 달리 반려견 수는 감소하고 반려묘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려견 수는 546만 마리로 2023년 말 556만 마리에서 10만 마리(1.7%) 줄었다. 최근 5년간 증가율을 보면 전년 대비 2020년 0%, 2021년 1.0%, 2022년 4.8%, 2023년 2.4%로 5% 이하 비율로 증가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감소한 셈이다.

한편 반려묘는 217만 마리로 2023년 말 199만 마리에서 18만 마리나 늘었다. 최근 5년간 반려묘 수를 보면 전년 대비 2023년 5만 마리, 2022년 15만 마리로 2020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늘어나며 반려동물 수의 증가에 기여했다. 이러한 흐름은 반려묘 수의 증가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5년간 증가율을 보면 전년 대비 2020년 1.3% 감소한 이후 2021년 1.4%, 2022년 8.1%, 2023년 2.6%, 2024년 9.2% 증가하며 최근 5년 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반려묘 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봉쇄 조치로 실외 활동이 어려워 실내에서 기르는 반려묘를 선호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I-6 반려견 수 추이 (단위:%, 만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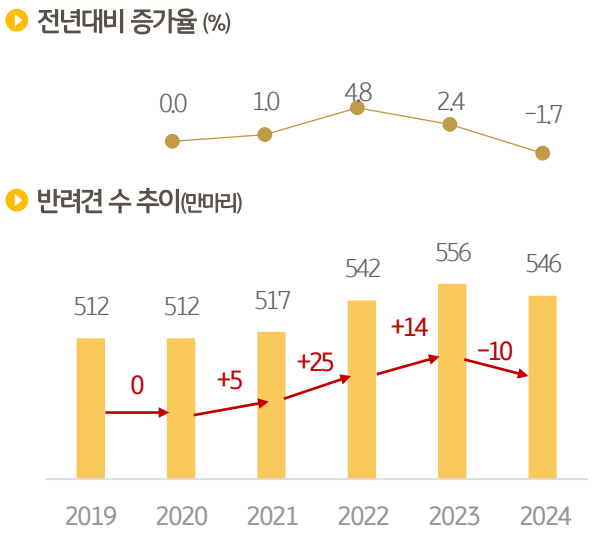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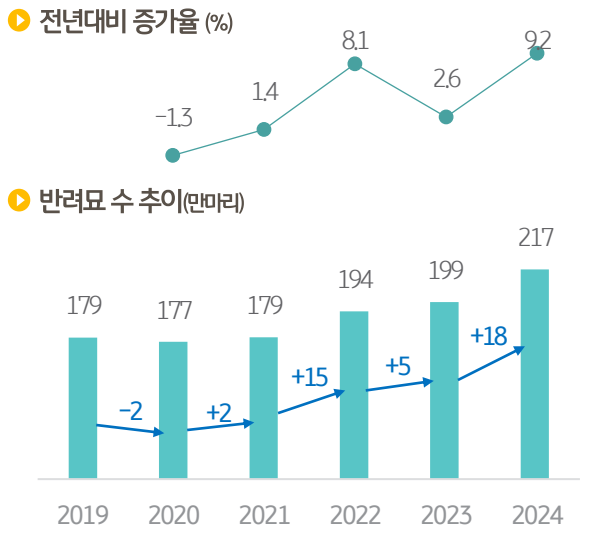


그림 I-7 반려묘 수 추이 (단위:%, 만마리)



02 향후 양육 희망 반려동물

응답자 37.6%가 향후 반려동물 양육 계획이 있었고, ‘반려묘’ 양육 희망자가 과거에 비해 증가했다

향후 반려동물 양육 계획이 있는 가구는 얼마나 될까? ‘향후 반려동물 양육 계획이 있다’는 응답률은 37.6%로 ‘반려동물 양육계획이 없다’(35.6%)는 응답률과 비슷했다. 응답자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향후 반려동물 양육 계획이 있다’는 응답률은 20대에서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40대(36.5%), 50대(36.1%) 순이었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향후 반려동물 양육 계획이 있다’는 응답률은 부모자녀가구(39.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인가구(38.8%), 부부가구(28.4%)가 그 뒤를 이었다.

현재 비반려가구 중 향후 반려동물 양육 의향이 있는 가구는 26.7%에 불과했다. 비반려가구의 42.3%는 ‘향후 반려동물 양육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31.0%에 달했다. 양육을 희망하는 비반려가구의 절반 정도는 ‘반려견’(52.6%)을 키우고 싶다고 응답해 지난 조사 대비 소폭(2.2%p) 감소했다. 반면 ‘반려묘’를 키우고 싶다고 응답한 비반려가구는 34.1%로 지난 조사 대비 11.1%p 증가했다.

그림 I-8 향후 반려동물 양육 계획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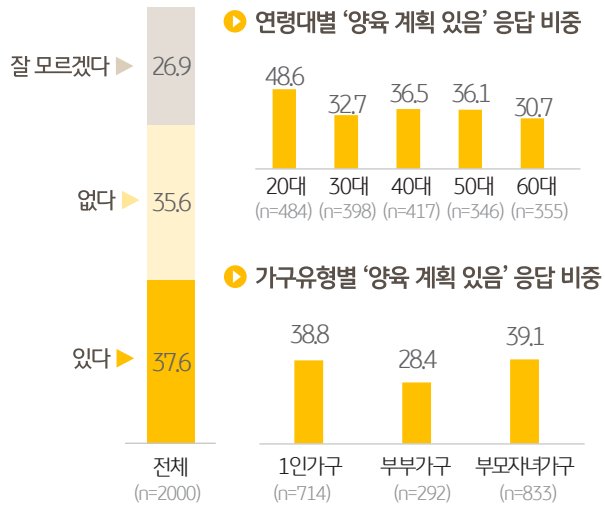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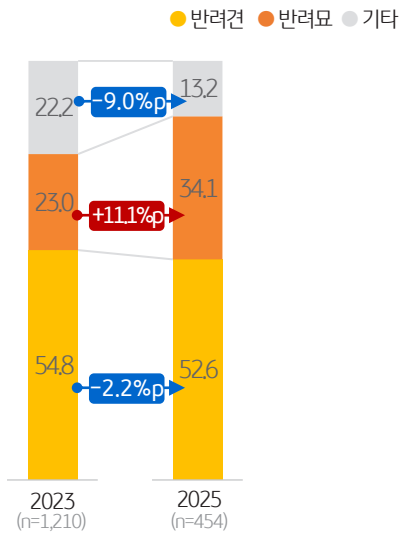


그림 I-9 비반려가구의 향후 양육 희망반려동물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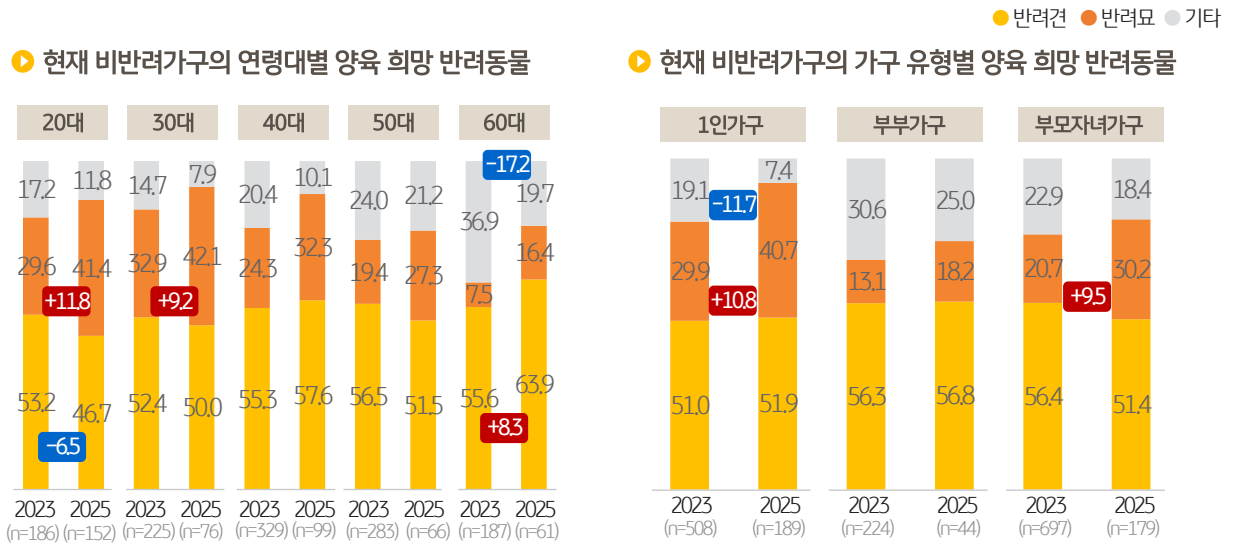


비반려가구의 양육 희망 반려동물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반려견'은 60대에서 6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57.6%), 50대(51.5%), 30대(50.0%), 20대(46.7%) 순이었다. 지난 조사 대비 60대는 8.3%p 증가한 반면 20대는 6.5%p 감소했다. '반려묘' 양육 희망은 30대(42.1%)와 20대(41.4%)에서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40대(32.3%), 50대(27.3%), 60대(16.4%) 순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응답률이 감소했다. 지난 조사 대비 20대(11.8%p)와 30대(9.2%p)에서 크게 증가해 청년층의 반려묘 선호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반려가구의 양육 희망 반려동물을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반려견'은 부부가구(56.8%)가 가장 높았고 1인가구(51.9%), 부모자녀가구(51.4%) 순이었다. '반려묘' 양육 의향은 1인가구가 40.7%로 부모자녀가구(30.2%)와 부부가구(18.2%)보다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지난 조사 대비 반려묘 양육 비율이 1인가구(10.8%p)와 부모자녀가구(9.5%p)에서 반려묘 양육 의사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려묘 양육 의향에서 가구 유형을 다시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여성1인가구'(43.6%)가 '남성1인가구'(37.9%)보다 5.7%p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 남성보다 여성이 반려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I-10 비반려가구의 연령대별 가구 유형별 양육 희망 반려동물 (단위:%,%p)



03 선호 품종과 입양처

> **가장 선호하는 견종은 '몰티즈', '푸들', '믹스견'이고,**
> **묘종은 '코리안숏헤어', '러시안블루', '페르시안'이었다**

펫시터 앱 로버(Rover)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반려견 품종은 믹스견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래브라도 리트리버, 골든두들, 골든리트리버, 저먼 셰퍼드 순으로 대형견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주거공간이 아파트와 공동주택에 집중되어 있는 한국에서는 대부분 소형견이 인기가 많은데, 2018년 이후 시행한 총 4번의 조사에서는 '몰티즈'(20.4%)와 '푸들'(18.9%)이 부동의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반려견가구의 품종 선호도 변화를 살펴보면 믹스견의 인기는 꾸준히 증가해 2018년 6위에서 2021년 4위, 2023년 이후에는 3위를 기록했다. 믹스견에는 어떤 품종들이 교배되었는지 모르는 경우와 의도적으로 서로 다른 품종을 교배한 '몰티푸'(몰티즈+푸들), '코카푸'(코커스패니얼+푸들), '폼피츠'(포메라니안+스피츠) 등이 있었다.

그림 I-11 양육 중인 반려견 품종 변화 (복수응답, 단위:%)

순위	2018년	2021년	2023년	2025년
1	몰티즈 (23.9)	몰티즈 (23.7)	몰티즈 (24.5)	몰티즈 (20.4)
2	푸들 (16.9)	푸들 (19.0)	푸들 (19.8)	푸들 (18.9)
3	시추 (10.3)	포메라니안 (11.0)	믹스견 (15.9)	믹스견 (15.1)
4	포메라니안 (9.3)	믹스견 (10.7)	포메라니안 (9.4)	포메라니안 (12.8)
5	치와와 (8.4)	치와와 (10.1)	진돗개 (5.0)	비숑 프리제 (7.0)
6	믹스견 (8.4)	시추 (8.2)	시추 (4.9)	치와와 (5.3)
7	골든리트리버 (8.1)	골든리트리버 (7.5)	비숑 프리제 (4.5)	시추(5.1)

주) 2018년 반려견가구 n=581, 2021년 반려견가구 n=830, 2023년 반려견 가구 n=754, 2025년 반려견가구 n=702

'비숑프리제'는 2018년 14위(1.9%)에서 2021년 11위(2.9%), 2023년 7위(4.5%), 2025년 5위(7.0%)로 꾸준한 선호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2018년 3위를 차지한 '시추'의 양육 선호 순위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18년 3위, 2021년 6위, 2023년 6위, 2025년 7위)

반려묘의 경우 '코리안숏헤어'가 44.7%로 부동의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러시안블루'(12.8%), '페르시안'(9.6%) 순이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9.1%로 4위를 차지했다. 반려묘가구의 품종 선호도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 조사에서 2위를 차지했던 '페르시안'(12.8%)이 3위(9.6%)로 하락하고 3위였던 '러시안블루'(10.7%)는 2위(12.8)로 상승했다. 2018년 조사부터 줄곧 7위를 지켜온 '스코티시폴드'는 이번 조사에서 7.9%를 기록하며 5위로 올라섰다.

그림 I-12 양육 중인 반려묘 품종 변화 (복수응답, 단위: %)

순위	2018년	2021년	2023년	2025년
1	코리안숏헤어 (45.2)	코리안숏헤어 (45.2)	코리안숏헤어 (45.6)	코리안숏헤어 (44.7)
2	러시안블루 (18.4)	러시안블루 (19.0)	페르시안 (12.8)	러시안블루 (12.8)
3	페르시안 (18.4)	페르시안 (18.7)	러시안블루 (10.7)	페르시안 (9.6)
4	샴 (16.6)	잘 모르겠다 (16.8)	샴 (9.5)	잘 모르겠다 (9.1)
5	잘 모르겠다 (15.7)	샴 (11.0)	터키시앙고라 (7.6)	스코티시폴드 (7.9)
6	터키시앙고라 (8.3)	터키시앙고라 (5.8)	잘 모르겠다 (7.3)	샴 (5.9)
7	스코티시폴드 (6.0)	스코티시폴드 (4.5)	스코티시폴드 (6.1)	터키시앙고라 (5.7)

주) 2018년 반려묘가구 n=217, 2021년 반려묘가구 n=310, 2023년 반려묘 가구 n=327, 2025년 반려묘가구 n=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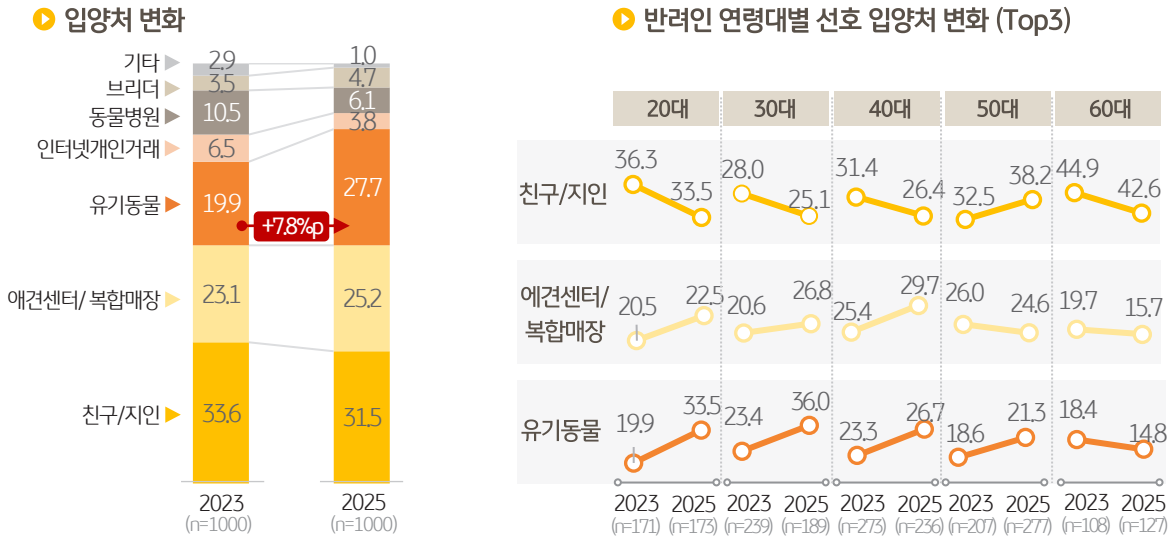
친구나 지인을 통한 입양이 가장 많았고, 한편 유기동물 입양이 크게 늘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실동물을 포함한 유기동물 수는 총 10만 6,824마리였고 이 중 반려견이 7만 7천 마리, 반려묘가 2만 8천 마리에 달했다.

반려동물 입양 채널은 '친구/지인'(31.5%)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 입양카페, 유기동물 직접 구조 등의 '유기동물'(27.7%), '애견센터/ 반려동물복합매장'(25.2%)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유기동물 입양 비율이 7.8%p 증가했는데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4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동물 보호 시설을 통한 입양 비율이 12.2%로 2023년(8.9%) 대비 3.3%p 증가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이번 조사에서는 20대와 30대의 경우 '유기동물'이 1위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 대비 20대는 13.6%p 증가한 33.5%, 30대는 12.6%p 증가한 36.0%가 유기동물을 기른다고 응답했다. 40대(26.7%)와 50대(21.3%)에서도 유기동물을 기른다는 응답률이 각각 3.4%p, 2.7%p 증가한 반면 60대(14.8%)에서는 3.6%p 감소하여,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유기동물 입양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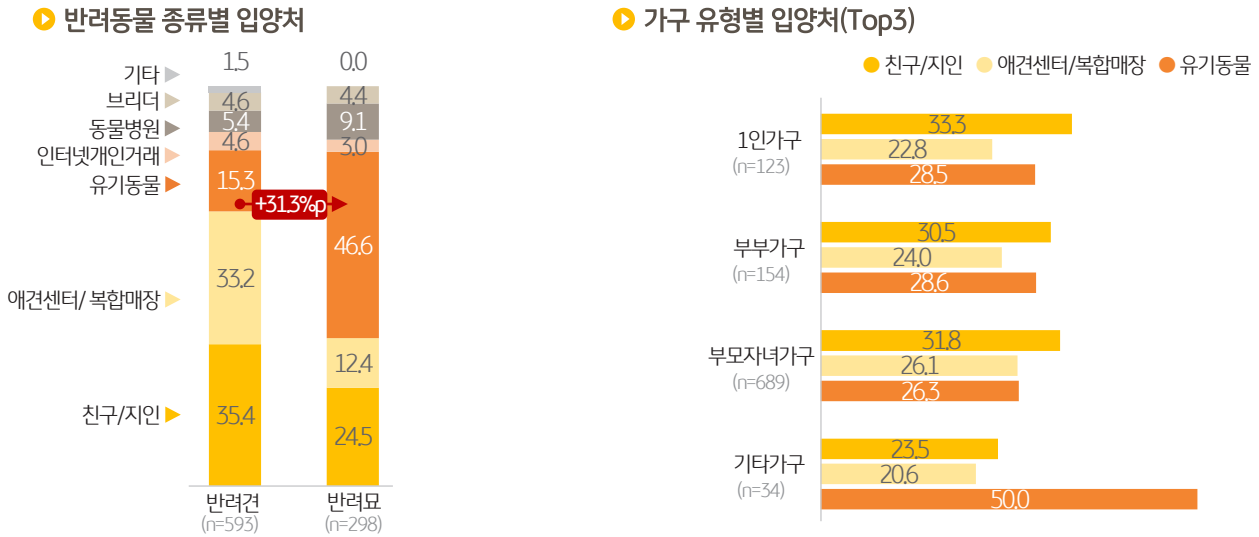
그림 I-13 반려동물 입양처와 반려인 연령대별 선호 입양처 (단위:%)



반려견가구와 반려묘가구 간에도 입양처 차이를 보였다. 반려견 가구의 경우 '친구/지인'을 통한 입양이 35.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애견센터/반려동물 복합매장'(33.2%), '유기동물'(15.3%) 순이었다. 반면 반려묘가구의 경우 '유기동물'(46.6%)을 기르는 반려인이 가장 많았으며, 입양 방법은 '길에서 직접 구조'(29.5%)하는 사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친구/지인'(24.5%)을 통하거나 '애견센터/반려동물 복합매장'(12.4%)에서 반려묘를 입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려묘가 반려견보다 유기 상황에서 적응력이 높아 상대적으로 유기견보다 길고양이(유기묘+야생고양이)의 수가 많은 데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가구유형별 입양처를 살펴보면 기타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 유형에서 '친구/지인'을 통한 입양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기동물', '애견센터/복합매장' 순을 기록했다. 비친족가구, 조부모와 손자녀가구 등을 포함한 기타가구에서는 '유기동물' 입양이 50.0%로 가장 많았고 '친구/지인'(23.5%), '애견센터/반려동물복합매장'(20.6%)이 그 뒤를 이었다. 1인가구의 경우 지난 조사(28.2%) 1위를 차지했던 '유기동물' 입양은 이번 조사(28.5%)에서 0.3%p 증가하는 데 그치며 2위로 내려앉은 반면, '친구·지인'을 통한 입양은 7.5%p 증가하며 1위(33.3%)로 올라섰다.

그림 I-14 반려동물 종류와 가구 유형별 입양처 (단위:%)



04 관련 법·제도 강화 의견

응답자 10명 중 8명은 동물을 유기하거나 동물 학대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독일 등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체계적인 동물복지 시스템과 법률을 마련하여 반려동물을 관리하고 반려동물 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동물보호법에서 '동물 유기, 학대, 목줄 착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에서 동물 복지를 일찍이 시작한 선진국과 비교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해외에서 시행중인 '반려동물 목적 수술 금지'나 '반려견 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이번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국내외 법 제도를 살펴보고,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반려동물 복지 제도에 대한 강화 의향과 해외에서 시행 중이나 국내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반려동물 복지 제도의 필요성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제도(현행)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신규)를 '동물 학대', '건강관리', '양육 관련' 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각 제도에 대해 처벌 강화나 도입 필요성 정도를 질문했다. 그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이 동물 유기 또는 학대 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해 현행 법령보다 높은 처벌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림 I-15 반려동물 관련 법령 및 제도 강화 필요성 인식 (단위:%)

국내 반려동물 관련 법령 및 제도(현행)

- 동물 유기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보호법」 제97조제5항
- 동물을 학대해 숨지게 할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보호법」 제97조제1항
- 목줄 미착용/배설물 미수거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
- 반려견 외출 시 목줄 길이 2미터 이하로 제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국외 반려동물 관련 법령 및 제도(신규)

- [영국, 스위스] 반려동물 미용목적 수술 금지
- [노르웨이, 독일, 호주] 반려견 미산책 시 벌금
- [호주] 과도한 반려견 짖음 방치 시 경고, 또는 벌금
- [스페인, 독일, 스위스] 반려견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미국, 일본, 유럽 대부분 국가] 반려동물 내장형 칩 등록 의무화

제도 강화 필요 사항 ('동의한다' 응답률)

(전체 n=2,000)

주)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반반이다', '동의한다'로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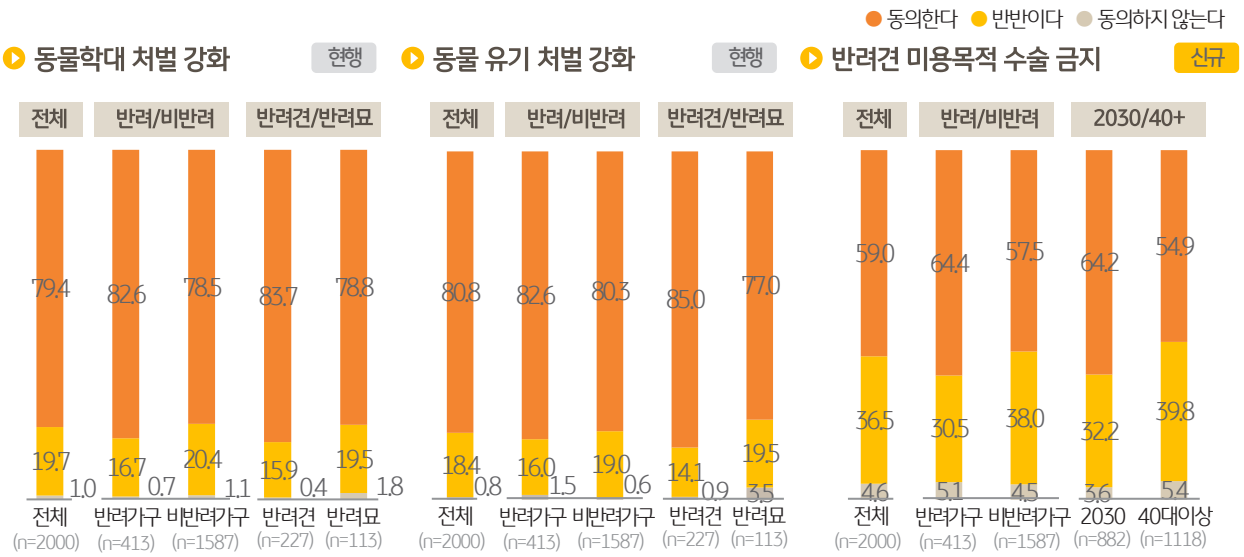
먼저 동물학대 관련 정책 및 제도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동물 학대 및 유기에 대한 처벌 강화', 아직 도입되지 않았으나 영국과 스위스에서 시행 중인 '반려견 미용 목적 수술(단이, 단미 수술) 금지' 필요성에 대해 질문했다.

현행 동물학대 처벌(동물 학대해 숨지게 한 사람에게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율은 79.4%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반려가구(82.6%)와 비반려가구(78.5%) 모두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반려가구 중에는 반려견가구(83.7%)가 반려묘가구(78.8%)보다 소폭 높았다.

동물 유기 처벌 강화 필요성(동물 유기한 소유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8%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려가구(82.6%)와 비반려가구(80.3%)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나, 양육하는 반려동물 종류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여 반려견가구(85.0%)가 반려묘가구(77.0%)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이는 반려견이 반려묘보다 유기 시 생존 가능성이 낮고 취약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동물 학대 관련 신규 정책/제도로 '반려견 미용목적 수술(단이, 단미)금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9.0%가 동의한다고 답변해 과반 이상의 동의율을 보였다. 반려동물 양육여부별로는 반려가구의 동의율(64.4%)이 비반려가구(57.5%)보다 6.9%p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20~30대(64.2%)가 40대~60대(54.9%)보다 9.3%p 높게 나타나 청년층이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I-16 동물 학대 관련 정책/제도 필요성 (단위:%)



반려동물 배설물 방치 및 반려견 목줄 미착용에 대해 과태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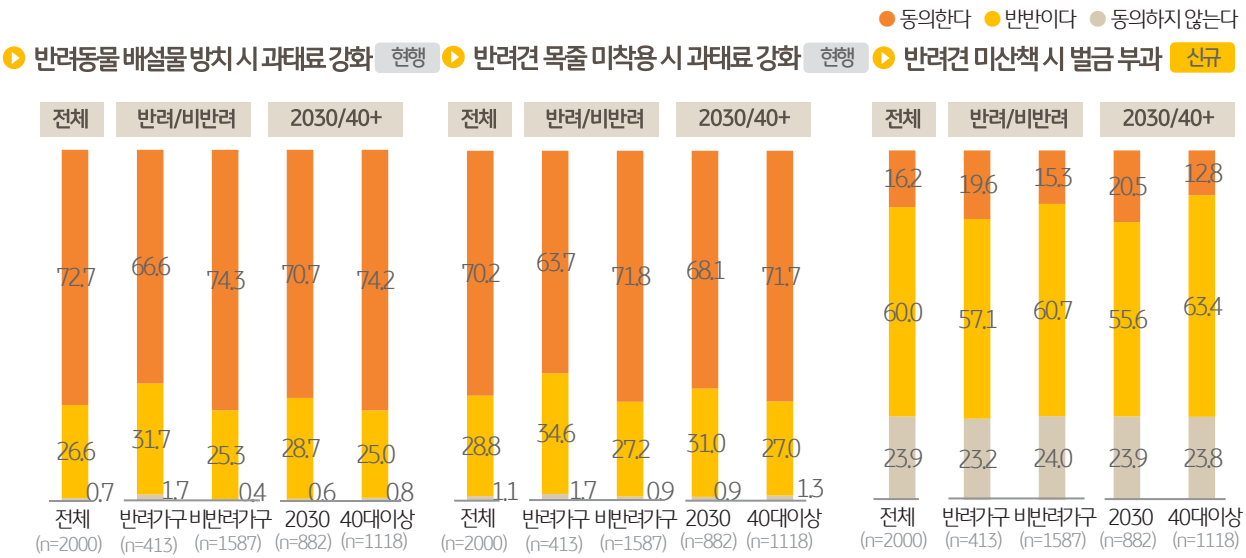
다음으로 반려동물의 건강관리에 대한 정책·제도 필요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반려가구가 증가하고 반려견 산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됨에 따라 반려견 산책 시 배설물 처리와 목줄 미착용으로 인한 갈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배설물을 무단 방치하거나 목줄 미착용 시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먼저 '배설물 방치 시 과태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율은 반려동물 양육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비반려가구(74.3%)가 반려가구(66.6%)보다 반려동물 배설물 방치 시 과태료 강화의 필요성을 크게 느꼈다. 연령대별로는 40~60대(74.2%)의 동의율이 20~30대(70.7%)보다 소폭 높았다.

'반려견 목줄 미착용 시 과태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70.2%가 동의한다고 답했고 비반려가구(71.8%)의 동의율이 반려가구(63.7%)보다 8.1%p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40~60대(71.7%)의 동의율이 20~30대(68.1%)보다 3.6%p 높았다.

반려견 산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위해 독일과 호주 등에서 시행중인 '반려견 미산책 시 벌금 부과'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의 16.2%만이 '동의한다'고 답했고 반려가구(19.6%)의 동의율이 비반려가구(15.3%)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도 인식의 차이를 엿볼 수 있었는데, 20~30대의 경우 20.5%가 동의한다고 응답한 반면 40~60대는 이 비율이 12.8%에 불과해 청년층에서 반려견 산책의 중요성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17 반려동물 건강관리 관련 정책/제도 필요성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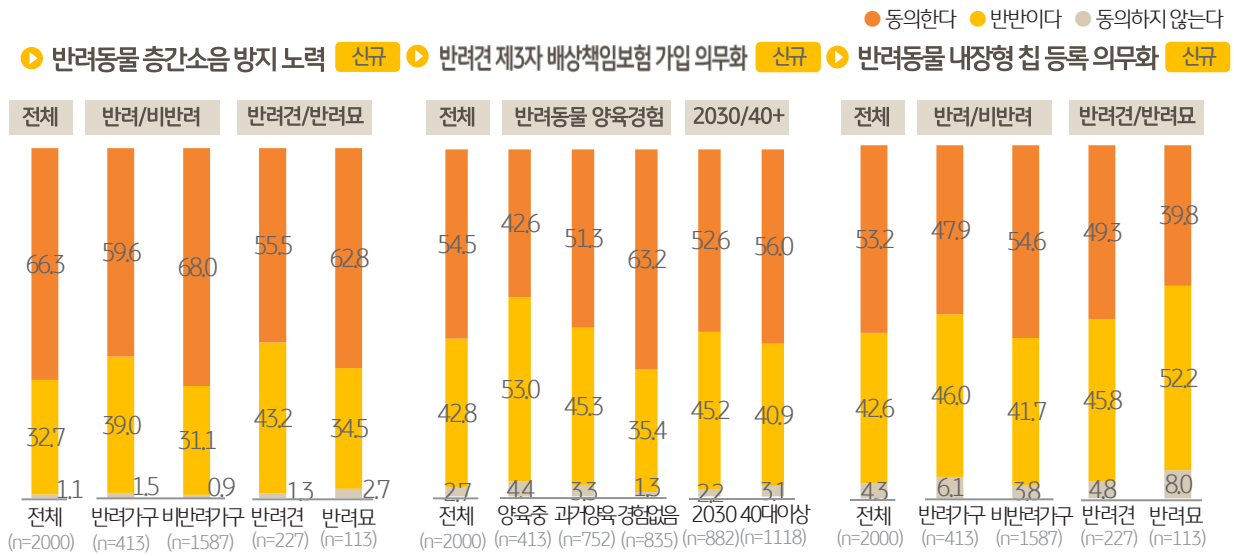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양육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질문했다. 한국에서는 아파트와 공동주택 거주율이 높아 반려동물 층간소음 및 물림사고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반려동물 층간소음을 규제할 방법이 없고 반려견 제3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제도의 경우에도 일부 견종에만 한정되어 있다. 반면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반려동물 소음을 법으로 규제하고 개선 조치를 명령하거나, 견종에 관계없이 반려견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반려동물 층간소음 방지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응답자 66.3%가 '동의한다'고 답했고 비반려가구(68.0%)가 반려가구(59.6%)보다 필요성을 더 크게 느꼈다. 반려가구 중에서는 반려묘가구(62.8%)의 동의율이 반려견가구(55.5%)보다 높았다. '반려견 제3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동의했으며, 과거 양육 경험에 따라 응답률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반려가구 42.6% vs. 과거 양육 51.3% vs. 양육경험 없음 63.2%). 연령대별로는 40~60대(56.0%)가 20~30대(52.6%)보다 더 높은 비율로 반려견 제3자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국은 2014년부터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제를 시행 중이며, 내장형 칩과 외장형 인식표를 병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외장형이 내장형보다 등록 비율이 높다. 외장형 인식표의 경우 분실 위험이 있고 고의적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주요국에서는 내장형 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반려묘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반려동물 내장형 칩 등록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등록 의무화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응답자의 절반가량(53.2%)만이 동의한다고 답했고, 비반려가구(54.6%)의 동의율이 반려가구(47.9%)보다 6.7%p 높았다. 반려가구 중에서는 반려견가구(49.3%)의 동의율이 반려묘가구(39.8%)보다 10%p가량 높았다.

그림 I-18 반려동물 양육 관련 정책/제도 필요성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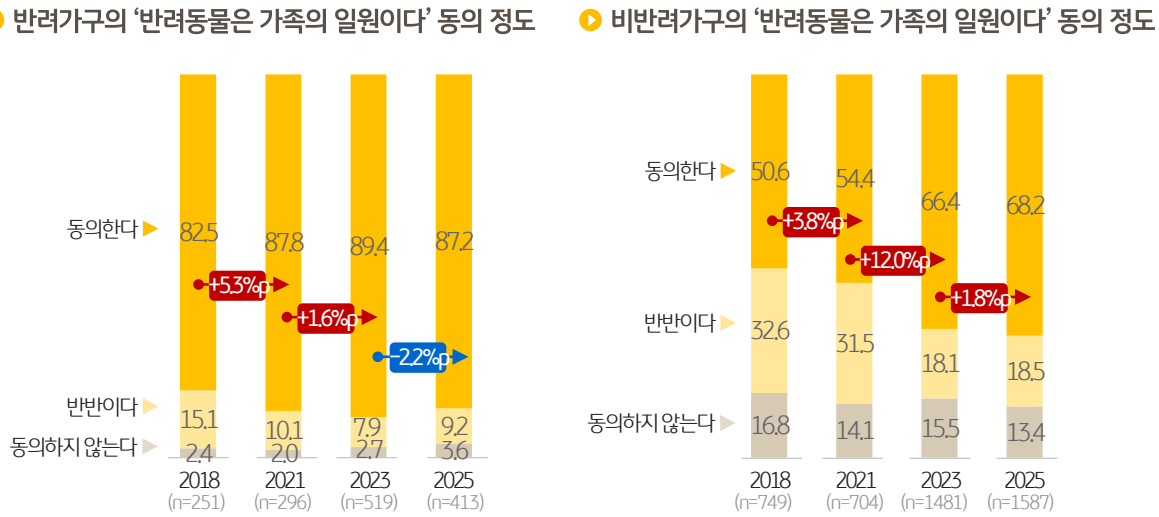
05 펫티켓 성숙도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비반려가구가 늘었다

반려가구와 비반려가구의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자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반려가구의 동의율은 87.2%로 지난 조사 대비 -2.2%p 감소했고, 비반려가구의 동의율은 68.2%로 지난 조사 대비 1.8%p 증가했다.

2018년 조사부터 살펴보면 반려가구의 동의율은 2018년 82.5%에서 2021년 87.8%, 2023년 89.4%로 지속적으로 80% 이상을 기록하다 최근 상승세가 꺾였으나 여전히 87.2%의 높은 동의율 수준이었다. 반면 비반려가구의 동의율은 2018년 50.6%에서 2021년 54.4%, 2023년 66.4%로 반려가구보다 더 가파른 속도로 상승했고 올해 조사에서도 68.2%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려가구와 비반려가구의 동의율 격차도 2021년 33.4%에서 2023년 23.0%, 2025년 19.0%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한국의 더불어 사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기초에서 한걸음 더 다가간 부분으로 해석된다.

그림 I-19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이다' 동의 정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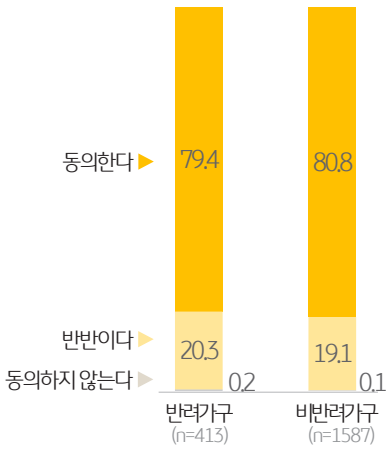
펫티켓 준수 여부에 대해 반려가구와 비반려가구의 인식 차이가 컸다

반려가구와 비반려가구의 펫티켓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먼저 '펫티켓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물었다. 반려가구(79.4%)와 비반려가구(80.8%) 모두 펫티켓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두 집단 간 큰 차이는 없었다. 반려가구의 경우 양육 반려동물 종류에 따라 반려견가구(82.2%)의 동의율이 반려묘가구(79.5%)보다 소폭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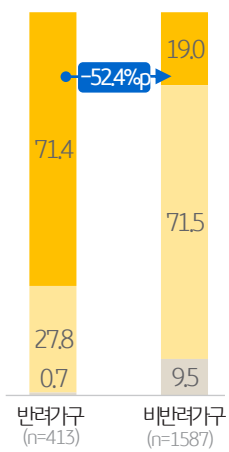
반면 펫티켓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반려가구와 비반려가구의 동상이몽이 확인됐다. 반려가구는 71.4%가 '펫티켓을 잘 지킨다'고 응답한 반면, 비반려가구의 19.0%만이 '주변에서 펫티켓을 잘지킨다'고 응답해 펫티켓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 차이(52.4%p)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반려가구의 경우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변 펫티켓 준수 여부에 대한 동의율이 낮았다. 20대의 경우 22.4%가 '주변에서 펫티켓을 잘지킨다'고 생각하였으나 30대(20.7%), 40대(19.7%), 50대(16.3%), 60대(14.4%)로 비반려가구의 연령대가 높아질 수록 동의율이 낮아졌다.

그림 I-20 펫티켓 준수에 대한 생각 (단위:%)

'펫티켓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의 정도



'펫티켓을 잘 지킨다' 동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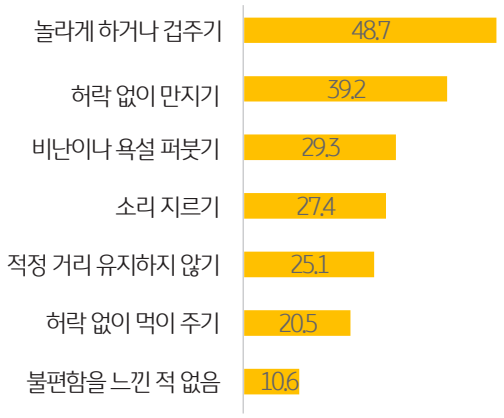
반려견가구의 90% 가까이가 비반려인의 펫티켓 위반으로 불편함을 느꼈다

이제까지 펫티켓은 반려가구가 공공장소에서 지켜야할 반려동물 관련 에티켓을 의미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허락 없이 반려동물을 만지는 등 비반려가구의 펫티켓 위반을 둘러싼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올해 조사에서는 반려가구를 대상으로 비반려인의 공공장소 펫티켓 위반 경험 여부와 비반려가구를 대상으로 한 펫티켓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먼저 반려견가구의 경우 89.4%가 공공 장소에서 비반려인의 펫티켓 위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다'는 응답률은 10.6%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반려견가구의 절반 가까이(48.7%)는 비반려인이 놀라게 하거나, 겁을 주는 바람에 반려견이 두려움을 느낀 적 있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허락 없이 만지기'(39.2%), '비난이나 욕설 퍼붓기'(29.3%), '소리 지르기'(27.4%)를 경험한 반려견가구가 많았다. '적정 거리 유지하지 않기'(25.1%)와 '허락 없이 먹이 주기'(20.5%)도 20% 이상의 응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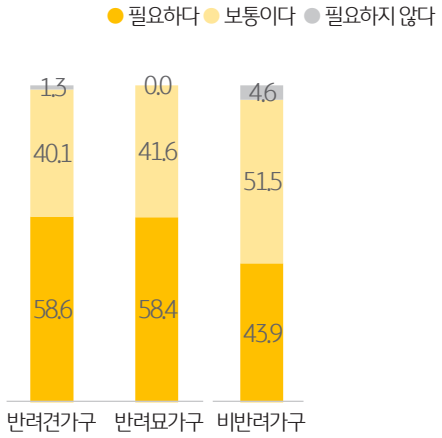
'비반려인 대상 펫티켓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려가구와 비반려가구 간 인식 차이가 뚜렷했다. 반려가구는 반려견가구(58.6)와 반려묘가구(58.4%) 모두 60% 가까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비반려가구는 43.9%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비반려가구도 펫티켓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나, 비반려인 대상 펫티켓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양육 여부에 따라 의견 차이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I-21 공공장소 펫티켓 위반 경험 (반려견가구) (복수응답,단위%)



주) 반려견 양육자 n=263

그림 I-22 비반려인 대상 펫티켓 교육 필요성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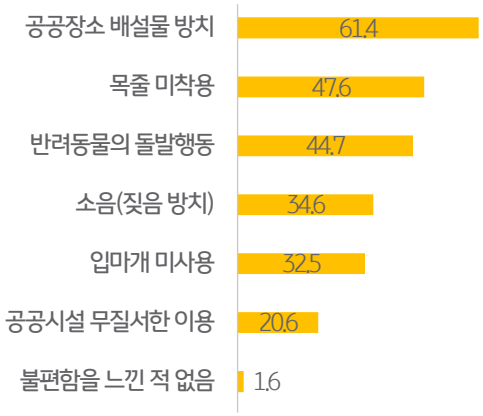
주) 반려견가구 n=227, 반려묘가구 n=113, 비반려가구 n=1587

비반려가구의 74.2%가 반려인 대상 펫티켓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번에는 반대로 비반려가구를 대상으로 반려인의 펫티켓 위반 행위를 물었다. 비반려가구가 공공 장소에서 경험한 반려인의 펫티켓 위반 행위는 '배설물 방치'(61.4%)가 가장 많았고, '목줄 미착용'(47.6%)도 절반 가까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동물보호법에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으로, 반려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위반 현장을 놓치면 처벌이 쉽지 않아 위반 사례가 계속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반려동물의 돌발 행동 방치'(44.7%)와 '소음(짖음 방치)'(34.6%), '입마개 미사용'(32.5%), '공공 시설 무질서한 이용'(20.6%)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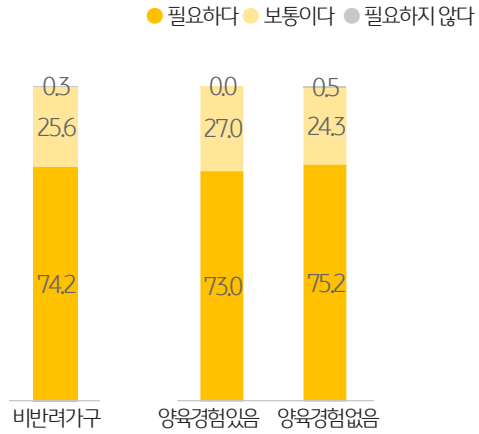
반려인 대상 펫티켓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비반려가구의 74.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률은 0.3%에 불과했다. 반려가구의 경우 71.4%가 이 의견에 동의해 비반려가구보다 반려인 대상 펫티켓 교육의 필요성을 2.8%p 적게 느꼈다. 비반려가구는 과거 양육 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반려동물 양육 경험이 없는 가구(75.2%)가 과거 양육 경험이 있는 가구(73.0%)보다 2.2%p 더 높은 동의율을 기록했다.

그림 I-23 공공장소 펫티켓 위반 경험 (비반려가구) (복수응답, 단위:%)



주) 비반려가구 n=1587, 응답값 1%미만 제외

그림 I-24 반려인 대상 펫티켓 교육 필요성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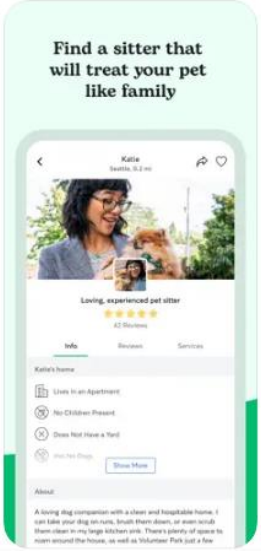


주) 비반려가구 n=1587, 양육경험 있음 n=752, 양육경험 없음 n=835

해외 반려동물 돌봄·훈련 서비스 앱 사례

미국 로버(Rover: Dog Sitters & Walk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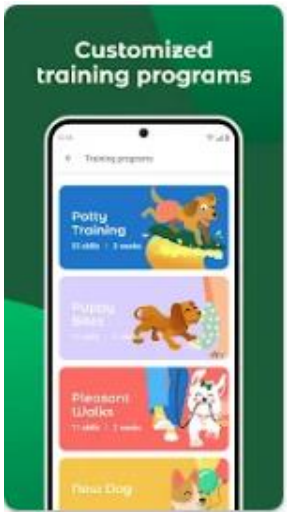
- 2011 년 출시된 반려동물 돌봄 및 반려견 산책 앱으로 미국과 캐나다 시장 선두 업체이며 반려가구와 펫시터를 매칭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
- **[서비스]** 반려견 산책을 비롯해 반려동물 가정 방문 돌봄, 야간 숙박, 훈련, 장기 숙박 등 다양한 범주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차별점]** 반려견 산책 시 GPS 추적이 가능하고, 펫시터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펫시터로부터 반려동물 사진을 전달받을 수 있음. 그 밖에 배변·배수·배식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으며, 안전한 예약 및 결제도 가능
- **[비용]** 반려가구에게는 예약 비용 외에 별도의 서비스 수수료로 11%가, 펫시터에게는 15~ 25%의 수수료만 부과됨
- **[평가]** 앱 출시 이후 2023년 9월 말까지 4백만 가구가 넘는 반려가구가 9천3백만 건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큰 인기를 얻음



자료: Rover

리투아니아 도고(Dogo: Puppy and Dog Training)

- 2018년 출시됐으며 전문가가 훈련 목표에 따라 반려견을 지도해 주는 앱
- **[서비스]** 맞춤형 피드백으로 훈련 영상을 제출하면 반려견의 상태에 맞춰 전문가 지도를 받을 수 있고, 매일 전날의 훈련 진행 상황을 기반으로 훈련 목표를 설정해 줌
- **[차별점]** 100가지 이상의 훈련 세션을 제공하고 반려견 훈련에 도움을 주는 반려견 클리커와 강아지 휘슬 등을 앱에 탑재
- **[비용]** 주간 4.99 달러, 월 14.99달러, 3개월 24.99달러
- **[평가]**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 4.9점(500만 이상 리뷰)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음. 그 밖에도 주(洲)별로 공인된 개 훈련사를 접촉할 수 있도록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무료로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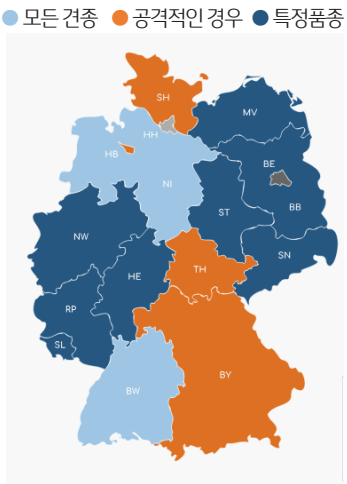
자료: Dogo

해외 반려인의 반려견 입양 자격 시험

독일 반려견 전문성 증명서(Sachkundenachweis für Hunde)

- 독일에서는 반려견 면허시험(필기+실기시험)과 반려견 전문성 증명서(필기시험) 제도를 운영 중. 일부 주에서는 특정 견종을 키우려면 전문성 증명서가 필요하며, 니더작센주에서는 모든 반려견주를 대상으로 전문성 증명서를 의무화함
- 각주의 수의사 협회에서 반려견 전문성 증명서 인증을 담당
-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반려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반려견과의 상호작용 능력을 입증해야 함
- **[시험내용]** 객관식 문제로 구성되며 문제마다 네 가지 보기를 제공. 성견의 치아 개수와 같은 반려견의 생태적 특성과 기분을 알아차리는 방법부터 반려동물 관련 법령까지 폭넓게 다루며 , 합격 기준은 주마다 상이
- **[응시방법]**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온라인에서 시험을 볼 수 있음
- **[비용]** 비용은 시험관에 따라 다르나 최소 50~130유로로 주마다 상이

독일 반려견 전문성 증명서 필요지역



자료: VS(Vergleichen und sparen)

스위스 국가공인 반려견 소유자 자격증(NHB)

- 2008년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반려견 훈련과정을 도입했으나 2017년 폐지됨. 이후 개물림 사고가 계속되자 몸집이 큰 대형견을 소유한 사람만 교육 과정에 참석하는 것으로 변경
- 현재 일부 주에서만 모든 견종에 대해 의무적인 훈련과정을 도입 중이며, 견주는 국가공인 반려견 소유자 자격증(Nationales Hundehalter Brevet: NHB)를 취득해야 함
- **[이론과정]** 최소 4시간의 수업 참석 및 객관식 문제로 된 필기시험
- **[실습과정]** 1시간 단위 10회 실습 수업 및 외부 전문가와 함께하는 실기시험
- 취리히주에서는 2025년 6월 1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법(Hundegesetz, 개 법률)에 따라 모든 견주는 의무적으로 훈련 과정(기말고사가 포함된 이론 과정, 6가지 실습 수업)에 참석해야 함

스위스 반려견 의무훈련 필요지역

자료: Kantone

Key Findings

2024년 말 기준 한국 반려가구는 591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6.7%,
반려인은 1,546만 명으로 총 인구의 29.9% 를 차지했다

2024년 말 기준 한국 반려가구는 591만 가구, 반려인은 1,546만 명이었다.

◎ 반려가구는 전체 가구의 26.7%를 차지하고, 반려인은 총 인구의 29.9%를 차지

◎ 반려견가구는 455만 가구로 2023년(451만 가구) 대비 4만 가구 증가했고, 반려묘가구는 137만 가구로 2023년(135만 가구) 대비 2만 가구 증가

◎ 반려견은 546만 마리로 2023년 대비 10만 마리가 감소하고, 반려묘는 217만 마리로 전년대비 18만 마리 증가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반려견은 몰티즈, 반려묘는 코리안숏헤어였다.

◎ 반려견가구가 가장 선호하는 견종은 몰티즈(20.4%), 푸들(18.9%), 믹스견(15.1%), 포메라니안(12.8%), 비숑프리제(7.0%), 치와와(5.3%), 시추(5.1%) 순을 기록

◎ 반려묘의 경우 코리안숏헤어(44.7%)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러시안블루(12.8%), 페르시안(9.6%)등의 순을 기록

지인을 통한 입양이 가장 많은 가운데 유기동물 입양이 크게 증가했다.

◎ 반려견과 반려묘의 입양 채널은 '친구/지인'(31.5%)이 많았고, 다음으로 '유기동물'(27.7%), '애견센터/반려동물 복합매장'(25.2%)순으로 나타남

◎ 지난 조사와 비교해 유기동물 입양이 크게 증가했고(7.8%p),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문화가 확산

10명 중 8명은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현재 동물보호법에서 동물 유기나 학대 시 벌금을 부과하나 응답자 약 80%는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

◎ 배설물 방치 및 반려견 목줄 미착용에 대해서도 응답자 약 70%가 과태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함

◎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이다'라고 생각하는 비반려가구는 68.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한국 반려가구 수는 2024년 말 기준 591만 가구로 반려가구 수와 반려가구 비중(26.7%)의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반려묘 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려동물 입양 채널은 유기동물 입양이 지난 조사 대비 증가했고(7.8%p),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었다. 반려동물에 관한 인식 개선도 눈에 띄었는데, 특히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이다'라고 생각하는 비반려가구가 꾸준히 증가해 2018년 50.6%에서 2025년에는 68.2%를 기록했다. '동물 학대나 동물 유기 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에는 반려가구와 비반려가구 모두 약 80%의 동의율을 보여 전반적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었다.

II

반려동물의 생활 웰니스

01 | 반려동물 웰니스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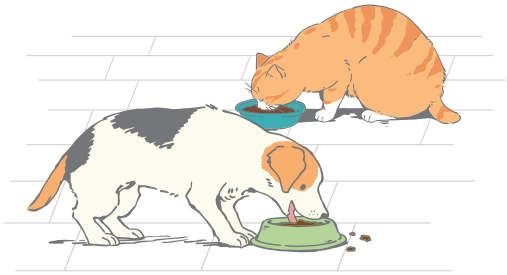
02 | 반려동물의 영양 관리

03 | 반려동물의 운동과 놀이

04 | ‘나홀로 집에’ 반려동물 케어

05 | 반려동물과의 여가활동

06 | 반려동물을 위한 건강검진



1장에서 반려가구의 87.2%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문화가 확산하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확산된 사람의 ‘웰니스(Wellness)’ 트렌드가 반려동물에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에, 반려동물 사료부터 영양제, 피트니스 도구, ‘나홀로 집에’ 펫케어·펫테크 제품, 예방 의료 서비스까지, 반려동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종합적으로 돌보는 반려동물의 웰니스가 보호자들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최대 펫 데이케어기업 도그토피아(Dogtopia)는 ‘2025년 펫케어 산업 트렌드’ 보고서에서 반려인 83%가 ‘반려동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라면 사실상 지출액에 제한이 없다’고 응답한 결과를 소개하며, 최근 수년간 이어져오고 있는 ‘펫 휴머나이제이션(Pet Humanization, 반려동물의 인간화)’ 트렌드 확산 속 반려동물과의 여행, 피트니스, 비만 관리, 펫푸드, 펫토이 등 반려동물의 웰니스를 위한 반려인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본 장에서는 반려동물 웰니스에 대한 한국 반려가구의 인식은 물론 영양과 운동·놀이, 예방 의료를 통한 건강관리, 집에 홀로 남겨진 시간 관리, 동반 여가활동을 통한 정서관리 등 반려동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반려가구의 종합적인 대응노력을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한다.

01 반려동물 웰니스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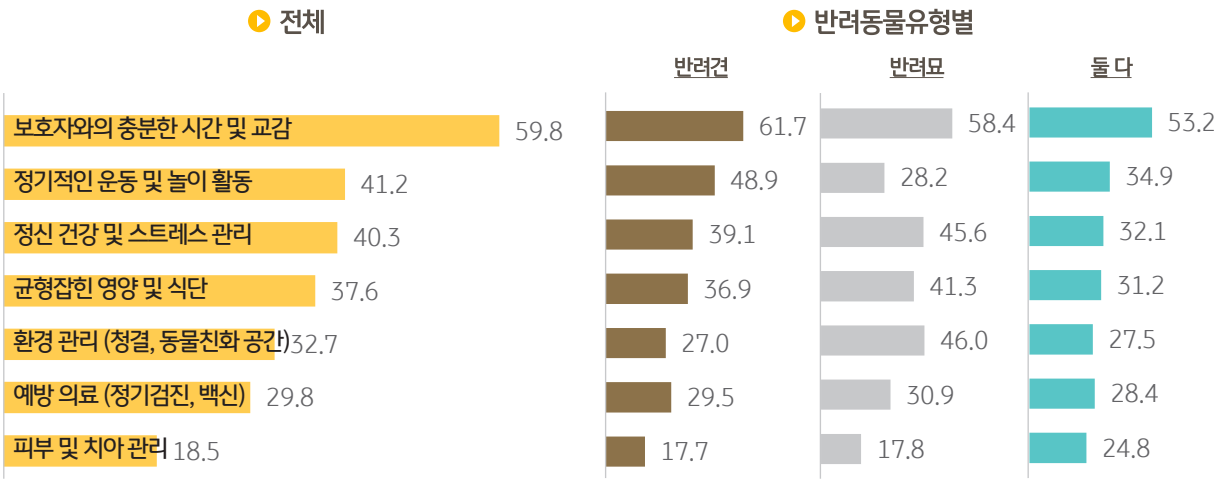
반려동물 건강과 행복을 위한 핵심 요소로 반려인은 '보호자와의 충분한 시간 및 교감'을 꼽았다

반려동물의 신체적, 정신적 웰빙을 종합적으로 돌보는 '웰니스'가 반려인 사이에서 라이프스타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반려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질문했다.

반려인들은 '보호자와의 충분한 시간 및 교감'(59.8%)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 다음으로 '정기적인 운동 및 놀이 활동'(41.2%), '정신 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40.3%), '균형잡힌 영양 및 식단'(37.6%), '청결한 생활 공간 및 반려동물 친화적 환경 관리'(32.7%), '정기 검진 및 백신 접종 등의 예방 의료'(29.8%), '피부 및 치아 관리'(18.5%) 순이었다.

반려동물유형별로는 반려묘가구가 환경 관리, 정신 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영양 관리를 각각 2·3·4위로 꼽아 반려견가구,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와 인식 차이를 보였다.

그림II-1 반려동물의 건강·행복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Top7 (1+2+3순위, 단위:%)



주) 전체 n=1000, 반려견 n=593, 반려묘 n=298, 둘 다 n=109

반려동물 건강과 행복에 관한 정보는 주로 온라인에서 습득하며, '정보의 신뢰성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반려동물과의 교감 외에도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운동 및 놀이를 통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영양 관리, 예방 의료까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반려인들은 이 같은 정보를 '인터넷·모바일 포털 검색'(48.9%), '유튜브'(48.2%), '카페·블로그·커뮤니티'(39.5%) 등의 온라인 채널에서 주로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병원'(28.6%), '가족·친구·지인'(26.6%) 등 오프라인 채널에서 관련 정보를 얻는 경우는 그 다음으로 많았다. 반려동물유형별로 보면, 가장 선호하는 정보 채널로 반려묘가구는 '유튜브'(50.0%)를, 반려견가구는 '동물병원'(반려견가구 30.4% vs. 반려묘가구 25.5%) 같은 오프라인 채널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에 관한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경험한 애로사항으로는 '정보의 신뢰성 부족'(44.2%), '반려동물 특성에 맞는 맞춤 정보 부족'(39.7%), '정보 과다로 인한 선택의 어려움'(38.5%)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려동물 특성에 맞는 맞춤 정보 부족'은 반려묘가구가 꼽은 애로사항 2위인 동시에 반려견·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가 '정보 과다로 인한 선택의 어려움'과 함께 지적한 어려움 공동 1위로 나타나,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정작 필요한 맞춤형 정보 탐색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임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림II-2 반려동물 건강·행복 정보 습득 채널 (복수응답,단위:%)

		반려견	반려묘	둘 다
온라인	인터넷·모바일 포털 검색 (48.9)	49.6	48.7	45.9
	유튜브 (48.2)	46.9	50.0	50.5
	카페·블로그·커뮤니티 자료 (39.5)	36.9	46.6	33.9
	SNS(X, 페이스북 등) (23.7)	23.4	22.5	28.4
	펫 전용 웹사이트 (13.4)	13.3	9.1	25.7
	TV·라디오 (11.0)	10.1	10.7	16.5
	특정 모바일 앱 (6.3)	5.6	5.4	12.8
오프라인	동물병원 (28.6)	30.4	25.5	27.5
	가족·친구·지인 (26.6)	27.7	22.1	33.0
	펫 전문점 (9.8)	10.6	4.7	19.3
	찾아본 적 없음 (4.5)	5.4	3.4	2.8

주) 전체 n=1000, 반려견 n=593, 반려묘 n=298, 둘 다 n=109

그림II-3 반려동물 관련 정보 습득 시 애로사항 (복수응답,단위:%)

	반려견	반려묘	둘 다
정보의 신뢰성 부족 (44.2)	44.9	47.0	33.0
정보 과다로 인한 선택의 어려움 (38.5)	39.3	35.9	41.3
특정 제품·서비스 관련 상세 정보 부족 (15.3)	16.0	12.4	19.3
가격 정보 부족 (24.3)	23.1	28.9	18.3
최신 트렌드·기술에 대한 정보 부족 (11.5)	11.0	8.7	22.0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 부족 (36.7)	36.3	38.6	33.9
반려동물 특성에 맞는 맞춤 정보 부족 (39.7)	38.8	40.9	41.3
언어·전문용어 이해의 어려움 (8.4)	7.1	7.4	18.3
한정적인 정보 제공 채널 (16.8)	15.0	19.1	20.2

주) 전체 n=1000, 반려견 n=593, 반려묘 n=298, 둘 다 n=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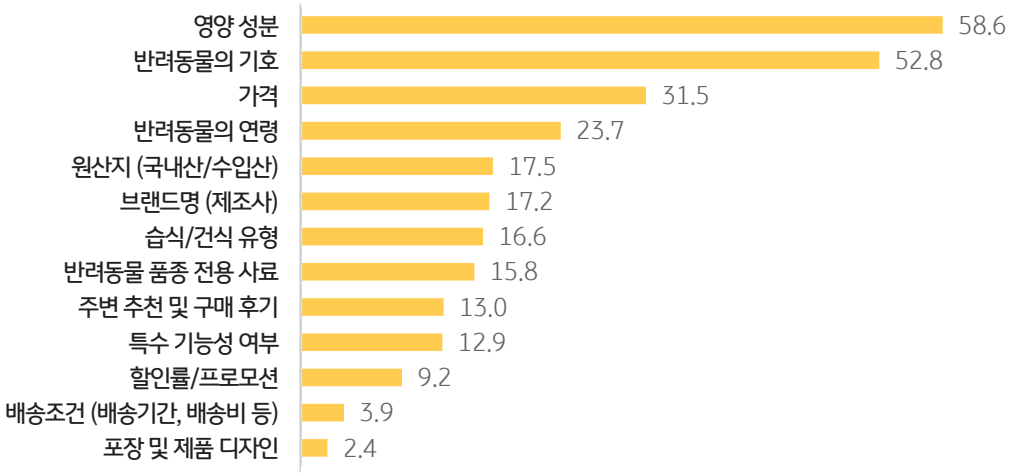
02 반려동물의 영양 관리

생식이나 사료 구매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은 '영양 성분'과 '반려동물의 기호'였다

반려동물의 웰니스를 위해 영양 관리는 필수인 만큼 반려인들은 사료, 생식, 화식 등 다양한 식사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위한 생식 및 사료를 구매할 때 반려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일까?

반려인 10명 중 6명(58.6%)은 '영양 성분'을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꼽았으며, '반려동물의 기호'(52.8%), '가격'(31.5%), '반려동물의 연령'(23.7%), '원산지(국내산/수입산)'(17.5%), '브랜드명(제조사)'(17.2%)이 뒤를 이었다. 그 외에 '습식/건식 유형'(16.6%), '(특정) 반려동물 품종 전용 사료'(15.8%), '주변 추천 및 구매 후기'(13.0%), '특수 기능성 여부'(12.9%) 등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나타났다. 이를 통해 반려인들이 생식이나 사료 구매 시 반려동물의 기호·연령과 같은 고유 특성은 물론 영양 관리에 도움이 되는 성분, 유형 및 가격과 구매후기와 같은 외부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II-4 반려동물 생식·사료 구매 시 중요 고려요인 (1+2+3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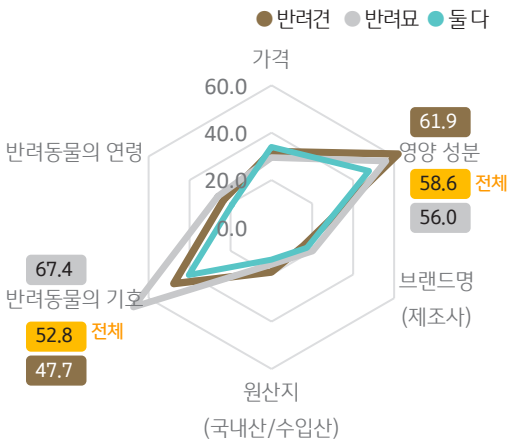
주) 전체 n=1000, 반려견 n=593, 반려묘 n=298, 둘 다 n=109

반려인들이 생식 및 사료 구매 시 고려하는 상위 6개 항목에 대해 반려동물 유형과 반려가구의 성별 및 연령대별 차이도 살펴보았다. 먼저 반려동물유형별로 살펴보면, 반려견가구의 고려요인 1순위는 '영양 성분'(61.9%)으로 반려가구 전체의 응답률(58.6%) 보다 소폭 높게 나타나, 반려견의 영양 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반면 반려묘가구가 꼽은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은 '반려동물의 기호'(67.4%)로 반려가구 전체(52.8%) 및 반려견가구(47.7%) 응답률 대비 월등히 높게 나타나, 반려묘의 기호에 맞는 사료를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반려가구의 성별 및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사료 구매 시 고려 요인의 전반적인 순위는 반려동물유형별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여성은 '영양 성분'과 '반려동물의 기호'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반면 남성은 '가격'에 대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상위 2개 항목인 '영양 성분'과 '반려동물의 기호'에 대한 연령대별 응답률을 살펴보면, '60대'(63.9%)와 '30대'(61.1%)는 '영양 성분', '40대'(56.0%)와 '30대'(55.6%)는 '반려동물의 기호'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고려요인 3위인 '가격'의 경우 20-3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30대 33.9%, 20대 33.5% vs. 60대 28.7%, 50대 28.5%).

그림II-5 반려동물 생식·사료 구매 시 고려요인 Top6 (복수응답,단위:%)

반려동물유형별



반려가구 성별·연령대별

	성별		연령대별				
	남성 (n=485)	여성 (515)	20대 (173)	30대 (239)	40대 (273)	50대 (207)	60대 (108)
가격	37.1	26.2	33.5	33.9	31.5	28.5	28.7
영양 성분	55.5	61.6	60.7	61.1	53.5	58.0	63.9
브랜드명 (제조사)	17.7	16.7	20.2	21.3	17.2	13.0	11.1
원산지 (국내산/수입산)	13.4	21.4	15.6	18.8	19.0	19.8	9.3
반려동물의 기호	48.9	56.5	49.1	55.6	56.0	51.2	47.2
반려동물의 연령	22.9	24.5	24.3	19.7	22.3	28.5	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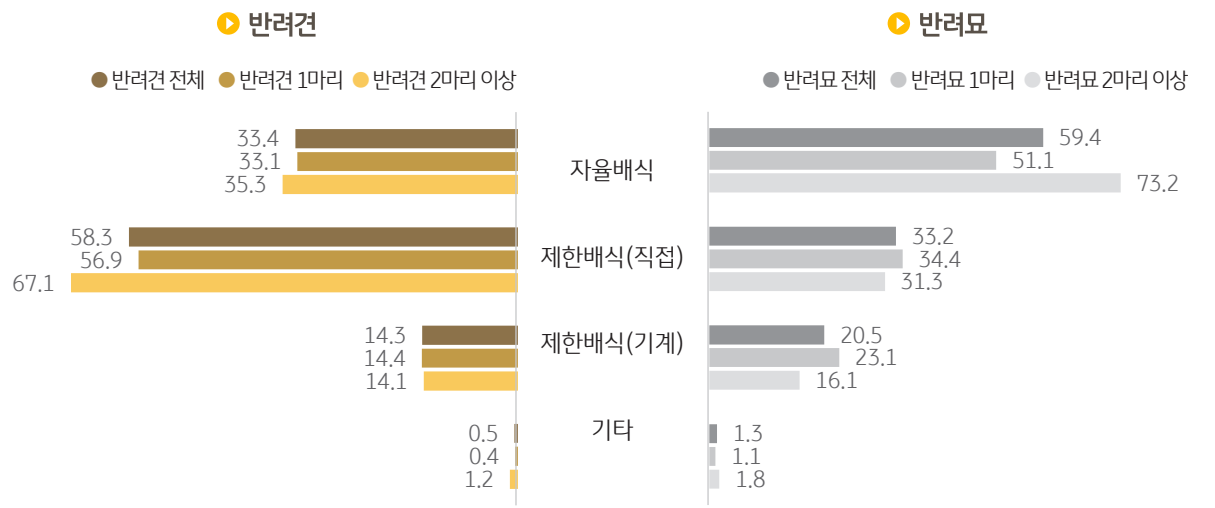
주) 전체 n=1000, 반려견 n=593, 반려묘 n=298, 둘 다 n=109

반려견가구는 직접 제한배식을, 반려묘가구는 자율배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율배식(자율급식)은 반려동물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그릇에 항상 사료를 채워 놓는 방식을, 제한배식(제한급식)은 보호자가 특정 시간에 정해진 양의 사료를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자율배식은 반려동물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섭취하는 사료량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이, 제한배식은 음식을 섭취하는 양을 통제하고 식습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각각 장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반려동물에게 배식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반려견가구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배식 방법은 '제한배식(직접)'(58.3%)으로 반려견의 식사 시간을 정하고 사료량을 제한하여 반려견이 과식하지 않도록 직접 배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율배식'(33.4%)과 '제한배식(기계)'(14.3%)이 뒤를 이었다. 특히 반려견 2마리 이상 기르는 다견가구의 경우 '제한배식(직접)' 응답률이 반려견가구 전체(58.3%) 및 반려견 1마리를 기르는 가구(56.9%) 대비 월등히 높게 조사돼(67.1%) 반려견 개체별 특성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영양을 관리하고자 하는 반려인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반면 반려묘가구는 '자율배식'(59.4%)을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려묘 2마리 이상 기르는 다묘가구의 응답률(73.2%)이 지난 조사 대비 대폭 증가한것으로 확인됐다.

그림II-6 반려동물 배식 방법 (복수응답, 단위:%)



주1) 반려견 전체 n=593, 반려견 1마리 n=508, 반려견 2마리 이상 n=85

주2) 반려묘 전체 n=298, 반려묘 1마리 n=186, 반려묘 2마리 이상 n=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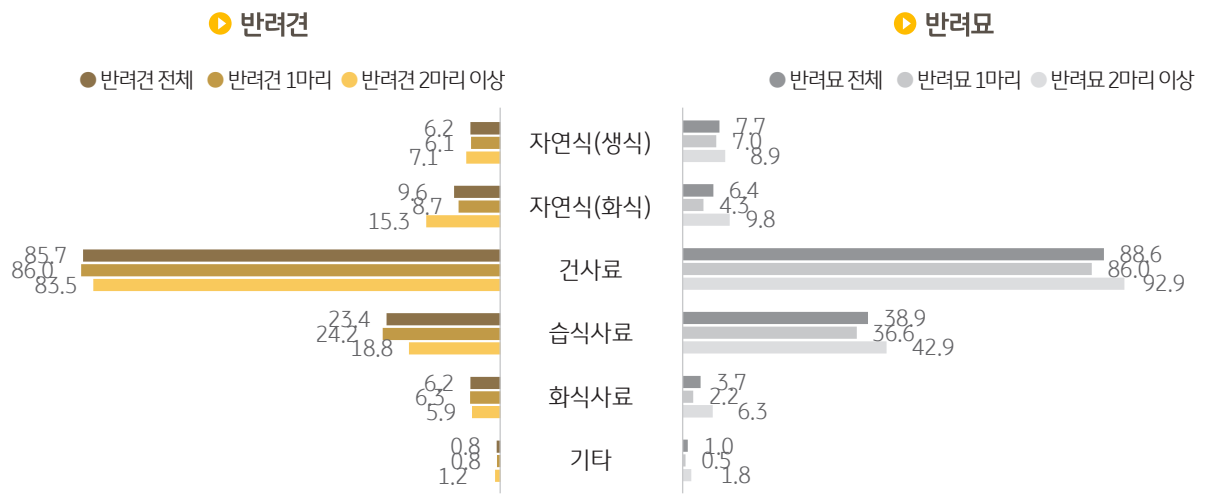
주식은 반려견·반려묘 모두 '건식사료'가 가장 많았으며, '습식사료'의 경우 반려묘가구의 이용률이 더 높았다

반려가구가 반려견과 반려묘에게 먹이를 주는 배식 방법에 이어 주로 제공하는 식단(간식 제외)의 종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반려동물에게 주식으로 '건식사료'를 제공한다는 응답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반려견가구 85.7%, 반려묘가구 88.6%), '습식사료'를 준다는 응답률 역시 두 가구 공통 2위로 조사됐다(반려견가구 23.4%, 반려묘가구 38.9%).

반려묘의 경우 비뇨기 질환에 취약해 충분한 수분섭취가 필수적이나 물을 잘 먹지 않아 음식을 통한 수분 공급이 중요하다. 이런 특성 때문에 수분 섭취를 돕는 '습식사료' 이용률은 반려묘가구가 반려견가구 대비 더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식품 원재료를 최대한 살려서 급여하는 자연식의 경우 익히지 않은 '생식'과 불로 조리한 '화식' 모두 10% 이내의 저조한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식품 원재료를 최대한 살려서 급여하는 자연식의 경우 익히지 않은 '생식'과 불로 조리한 '화식'사료 모두 10% 이내의 저조한 응답률을 보였다.

다만, 최근 몇 년간 반려인 사이에서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자신이 기르는 동물을 인격화하는 펫 휴머나이제이션(Pet Humanization)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건식사료를 대체할 자연식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림 II-7 반려동물 주식 식단 종류 (복수응답, 단위:%)



주1) 반려견 전체 n=593, 반려견 1마리 n=508, 반려견 2마리 이상 n=85 주2) 반려묘 전체 n=298, 반려묘 1마리 n=186, 반려묘 2마리 이상 n=112

03 반려동물의 운동과 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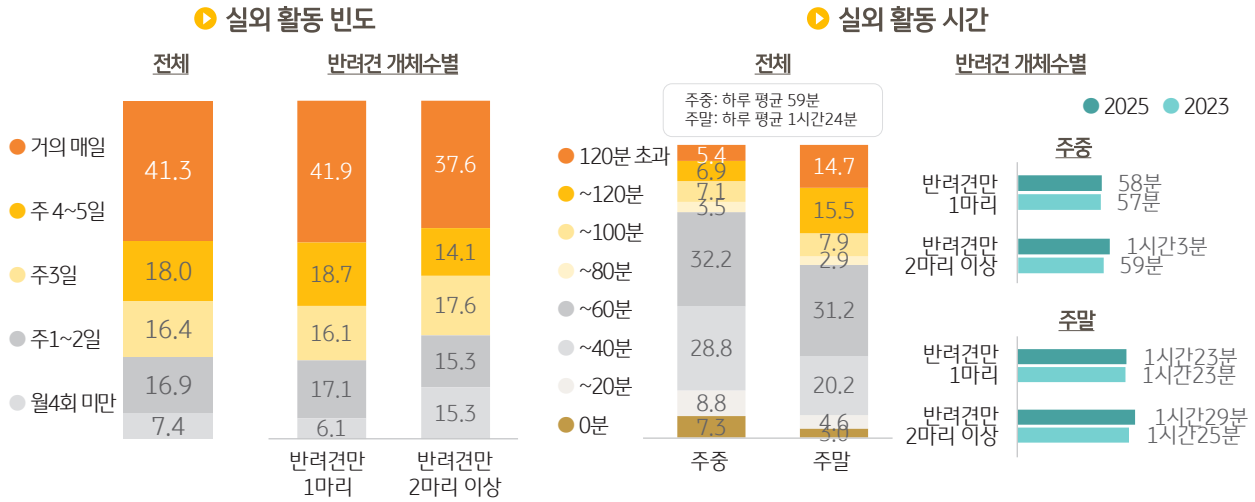
반려동물 건강 증진을 위한 실외 운동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반려견가구는 2023년 대비 실외 활동 시간이 늘었다

반려동물의 영양 관리 만큼이나 운동과 놀이를 통해 신체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반려가구의 노력 역시 활발하다.

먼저 실외 활동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반려견가구의 노력을 살펴보았다. 반려견가구의 59.3%('거의 매일' 41.3%, '주4~5일' 18.0%)는 매주 4일 이상 반려견과 함께 산책, 달리기, 훈련 등 다양한 실외 활동을 있었다. 개체수별로 살펴보면, 동반 활동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려견 '1마리' 가구가 '2마리 이상' 가구 대비 실외 활동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들이 실외 활동으로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주중 59분, 주말 1시간 24분으로 집계됐다. 개체수별로 살펴보면, 주중과 주말 실외 활동 시간 모두 2023년과 비교해 소폭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마리' 가구 주중 +1분, 주말 변동없음, '2마리 이상' 가구 주중 +4분, 주말 +4분).

그림 II-8 반려견의 실외 활동 현황 (단위:%, 분)



주) 반려견 전체 2025 n=593, 2023 n=673, 반려견 1마리 2025 n=508, 2023 n=567, 반려견 2마리 이상 2025 n=85, 2023 n=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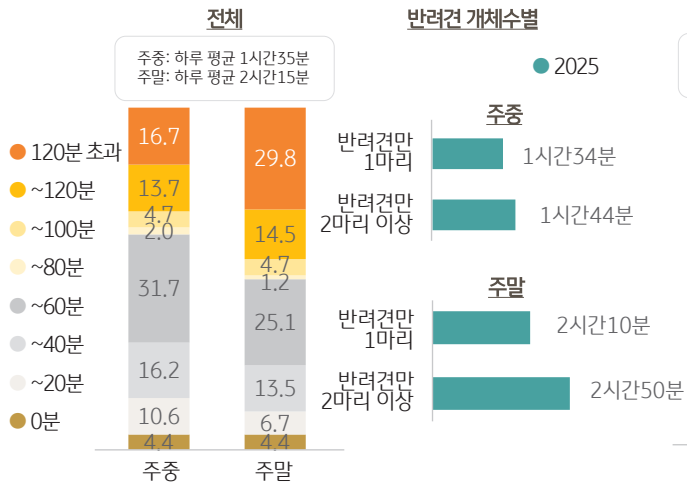
반려동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실내 놀이 활동 역시 활발하며, 반려묘가구는 2023년 대비 더 많이 놀아주고 있었다

다음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집 안에서 놀아주는 실내 활동 시간에 대해서도 질문해보았다.

반려견가구는 반려견과 하루 평균 주중 1시간 35분, 주말 2시간 15분 놀아준다고 응답해 앞서 살펴본 실외 활동 시간보다 길었다. 반려견과 실내에서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놀아주는 반려인은 주중 37.1%, 주말 50.2%로 주말이 월등히 높았다. 실내 놀이 시간은 반려견 개체수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반려견 수가 많을수록 반려인이 실내에서 놀아주는 시간이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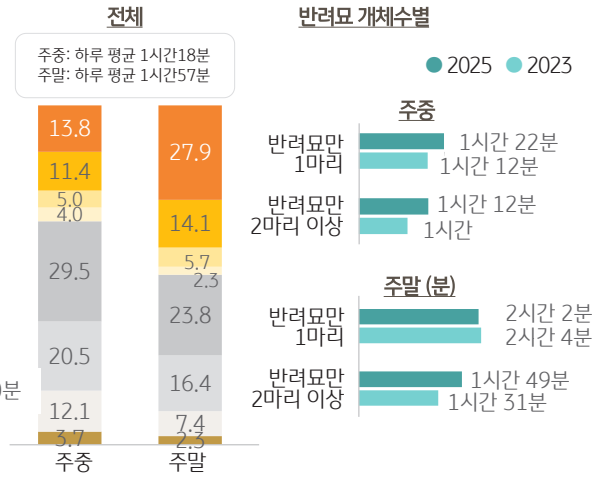
반려묘의 경우 실내 놀이 활동은 사냥 본능을 충족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런 활동이 부족하면 운동 부족, 비만,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반려묘가구의 실내 놀이 활동 역시 활발한 편이었으며 하루 평균 주중 1시간 18분, 주말 1시간 57분 반려묘와 함께 실내에서 놀아준다고 응답했다. 반려묘 개체수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2023년 대비 소폭 증가해('1마리' 가구 주중 +10분, 주말 -2분, '2마리 이상' 가구 주중 +12분, 주말 +18분)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내며 교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다묘가정의 경우 반려묘들끼리 같이 어울려 놀 수 있다고 생각해 반려인이 함께 놀아주는 시간이 주중, 주말 모두 '1마리' 가구 대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9 반려견 실내 놀이 시간 (단위:%, 분)



주) 반려견 전체 n=593, 반려견 1마리 n=508, 반려견 2마리 이상 n=85

그림 II-10 반려묘 실내 놀이 시간 (단위:%, 분)



주) 반려묘 전체 2025 n=298, 2023 n=246, 반려묘 1마리 2025 n=186, 2023 n=157, 반려묘 2마리 이상 2025 n=112, 2023 n=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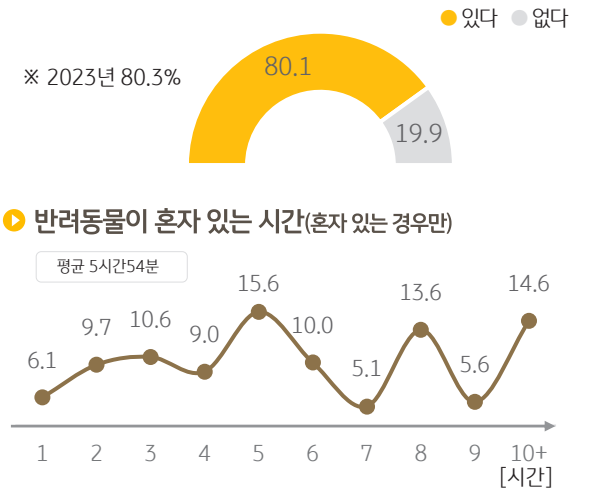
04 '나홀로 집에' 반려동물 케어

반려동물 80.1%는 '나홀로 집에', 남겨진 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 54분이었다

반려동물의 영양 관리와 실외 운동·실내 놀이를 통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 노력이 활발한 가운데, 집 안에 홀로 남겨져 시간을 보내는 반려동물의 외로움, 불안감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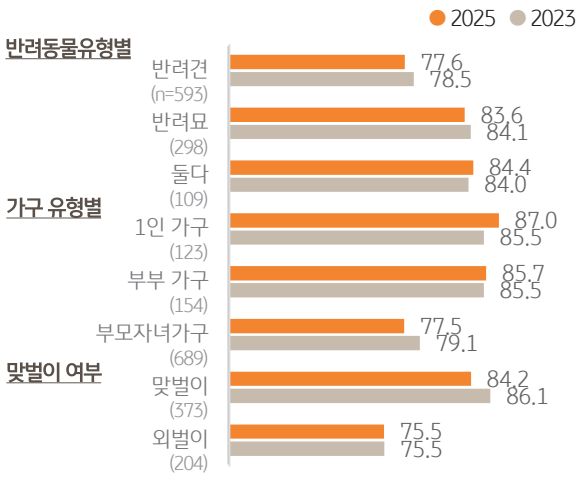
반려동물 가구의 80.1%는 하루 중 잠시라도 반려동물을 집 안에 혼자 두고 외출한다고 답했으며, 홀로 남겨진 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 54분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 유형, 가구 유형, 맞벌이 여부 따라 반려동물이 나 홀로 집에 있는 비중은 2023년 대비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반려견가구와 반려묘가구의 경우 모두 2023년 대비 나 홀로 집에 있는 비중을소폭이나마 줄였다(2023년 대비 '반려견' -0.9%p, '반려묘' -0.5%p). 가구 유형별로는 1인가구에서(87%, 2023년 대비 +1.5%p) ,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 가구에서(84.2%, 2023년 대비 -1.9%p) 반려동물이 집 안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II-11 반려동물이 혼자 있는지 여부 (단위:%)



주) 전체 n=1000, 혼자 있는 경우만 n=801

그림 II-12 반려동물이 혼자 있는 비중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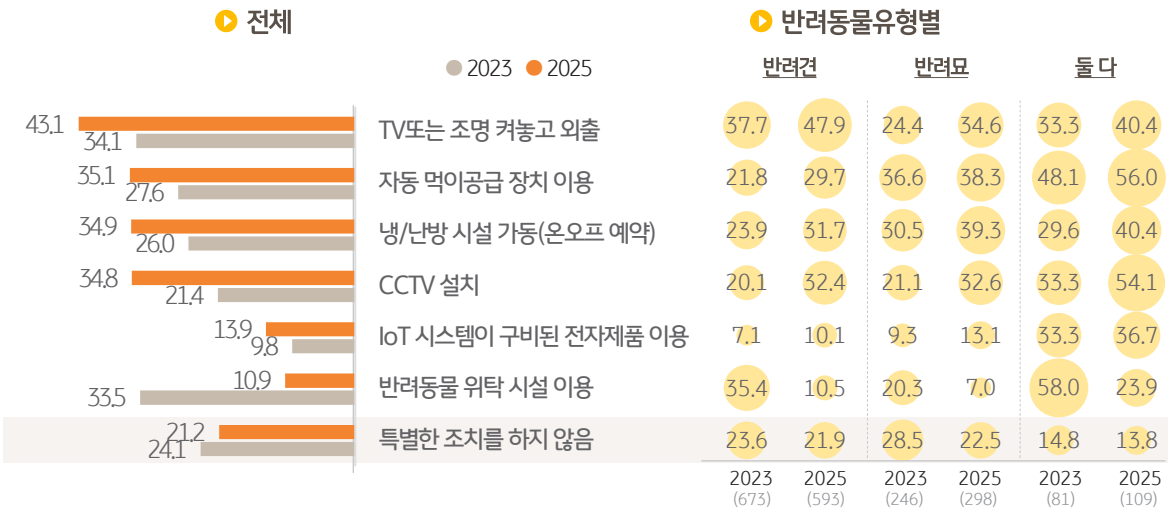
주) 2023 n=1000, 2025 n=1000

반려동물 '나홀로 집에' 안심 외출 필수템은 'TV•조명', '자동급식기', '냉난방시설', 'CCTV'였다

반려인 10명 중 8명(78.8%)은 반려동물이 집에 혼자 있을 때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이는 2023년 미조치 반려인(75.9%)과 비교해 2.9%p 증가한 수치로 반려동물이 불안함과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반려인의 보다 적극적인 정서 관리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집에 홀로 남겨진 반려동물을 관리하기 위해 반려인이 가장 활발하게 취한 조치는 'TV 또는 조명 켜놓고 외출'(43.1%)이었고, '자동 먹이공급장치 이용'(35.1%)과 '냉/난방 시설 가동(온오프 예약)'(34.9%), 'CCTV 설치' (34.8%)가 유사한 응답률을 보이며 그 뒤를 이었다. TV·조명, 자동급식기, 냉/난방시설, CCTV, 사물인터넷(IoT) 제품 등 디지털 기기 및 전자 제품을 활용해 반려동물의 안전과 편안함을 돕기 위한 스마트 펫케어 노력이 2023년 대비 활발해진 반면 '반려동물 위탁시설 이용'(10.9%)은 2023년 대비 대폭 감소했다(-22.6%p). 이는 펫 카메라, 펫 로봇 등 펫테크(Pet Tech, 반려동물 관련 기술) 기기 및 IoT 기기,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홈 시스템을 통한 셀프케어 기술의 발달과 맥을 같이한다. 유료로 이용하는 위탁시설 대비 비용효율적인 측면도 장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트렌드는 반려견가구, 반려묘가구,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 모두에서 유사한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II-13 집에 혼자 있는 반려동물을 위한 조치 (복수응답, 단위:%)



주) 2023 n=1000, 2025 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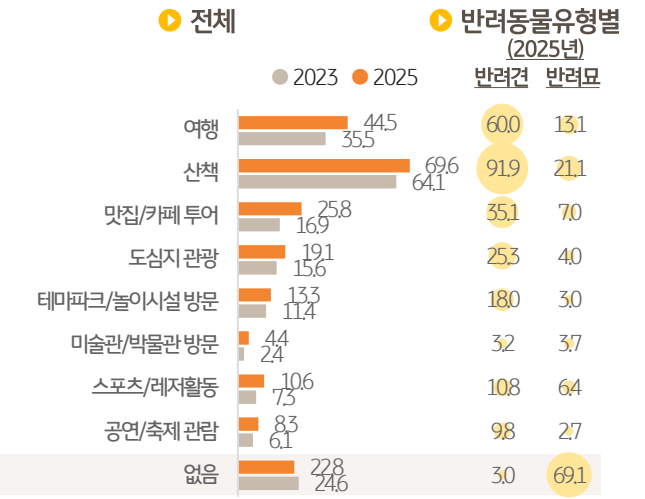
05 반려동물과의 여가활동

반려동물과 함께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반려인이 2023년 대비 늘었다

반려동물이 함께할 수 있는 여가에 대한 니즈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레저, 여행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증가하고 관련 시설 확충이 이어지고 있다. 2023년 1월 이후 최근 2년간 반려동물과 함께한 여가 활동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2023년 대비 전 항목에서 이런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일상적인 '산책'(69.6%) 외에 '여행'(44.5%, +9.0%p), '맛집/카페 투어'(25.8%, +8.9%p), '도심지 관광'(19.1%, +3.5%p), '테마파크/놀이시설 방문'(13.3%, +1.9%p) 경험률이 2023년 대비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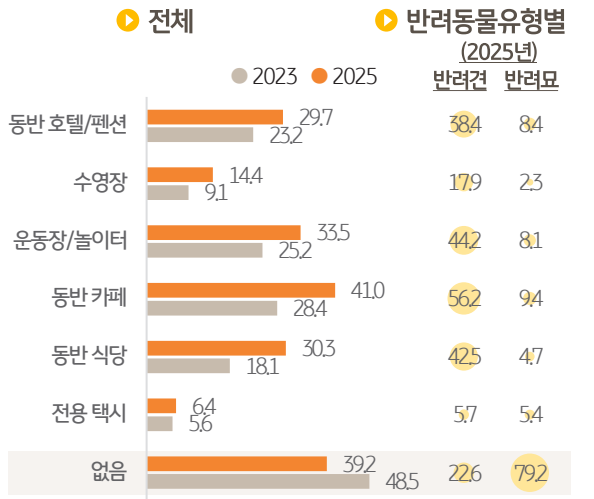
최근 2년 이내 반려동물과 함께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용해 본 서비스 비율 역시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숙소·수영장·놀이터·카페·식당 등 모든 시설과 반려동물 전용 택시 같은 서비스 영역에서 2023년 대비 높게 나타나, 반려동물 동반 여가 활동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림 II-14 반려동물 동반 여가활동 경험 (복수응답, 단위: %)



주) 2023 n=1000, 2025 n=1000, 반려견 n=593, 반려묘 n=298

그림 II-15 반려동물 동반 여가서비스 이용 경험 (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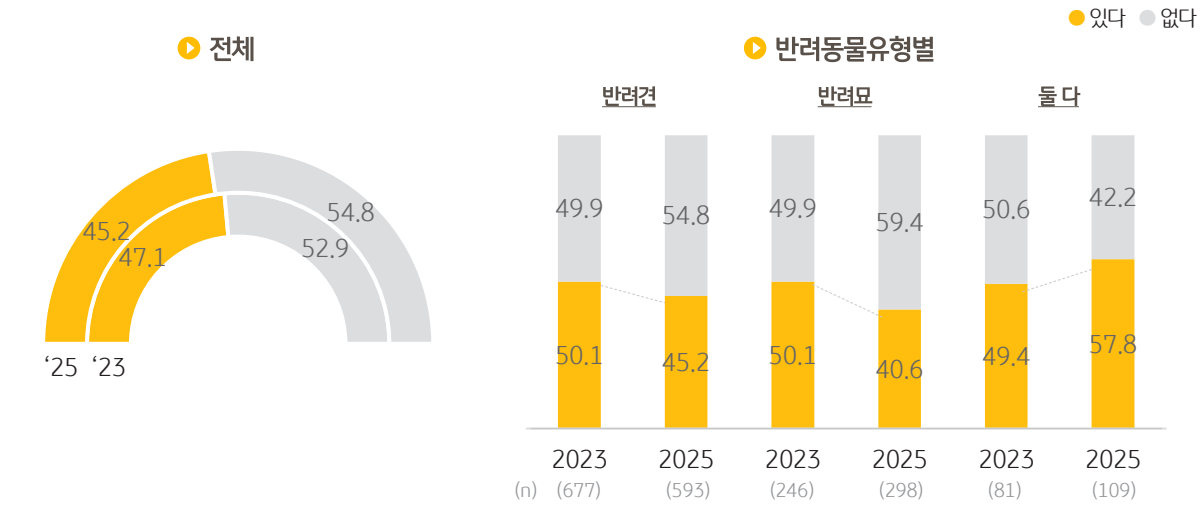
주) 2023 n=1000, 2025 n=1000, 반려견 n=593, 반려묘 n=298

반려가구 45.2%는 반려동물을 홀로 집에 남겨두기 싫어서 여행을 포기한 적이 있었다

앞서 '여행'은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한 여가활동 중 일상적인 '산책' 다음으로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44.5%). 이번에는 '반려동물만 집에 두기 싫어서' 또는 '동반 여행이 쉽지 않아서' 등 반려동물 때문에 2023년 1월 이후 최근 2년간 여행을 포기한 적 있는지 질문해 보았다. 놀랍게도 45.2%의 반려인이 '반려동물 때문에 여행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2023년 대비 응답자 비율은 1.9%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유형별로 살펴보면, 반려견가구와 반려묘가구 모두 2023년과 비교해 반려동물로 인해 여행을 포기한 응답자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견가구의 여행 포기율은 45.2%로 2023년(50.1%) 대비 4.9%p 하락했으며 반려묘가구의 경우 40.6%로 2023년(50.1%) 대비 격차가 더 벌어졌다(-9.5%p). 반면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의 경우 2023년(49.4%) 대비 8.4%p 상승해 10명 중 6명(57.8%) 가까이 여행을 포기한 경험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에서는 두 동물의 양육 특성이 서로 달라 동물들만 집에 남겨두거나 동반 여행을 가는 선택 모두 다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16 반려동물 때문에 여행을 포기한 경험 (단위:%)



주) 2023 n=1000, 2025 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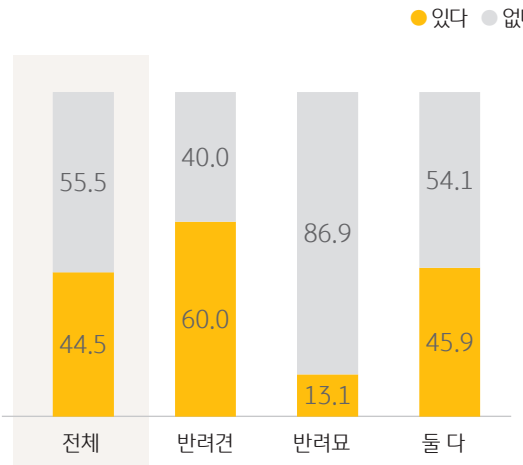
최근 2년 간 반려가구 44.5%는 3.44회의 동반 당일 여행, 1.29회의 동반 숙박 여행을 다녀왔다

최근 2년간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려인을 대상으로 여행 횟수와 참여 활동, 이용한 교통수단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당일 여행과 숙박 여행으로 구분해 질문해 보았다. 앞서 반려가구 44.5%가 동 기간 반려동물과의 동반 여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운데, 반려동물유형별로는 반려견가구(60.0%)의 여행 경험률이 가장 높았고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45.9%), 반려묘가구(13.1%) 순이었다. 실내 활동을 선호하는 반려묘 특성상 반려묘가구의 여행 경험률이 다른 가구 대비 월등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이 최근 2년 이내 다녀온 나들이를 포함한 반려동물 동반 당일 여행 및 1박 이상의 국내 숙박 여행(비행기 이동 포함) 횟수는 각각 3.44회, 1.29회로 조사됐다. 반려견가구는 평균 4.29회의 당일 여행을, 1.48회의 숙박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상대적으로 동반 여행 경험이 많지 않은 반려묘가구의 경우 유경험자들이 답한 당일 여행 횟수는 1.68회, 숙박 여행 횟수는 0.84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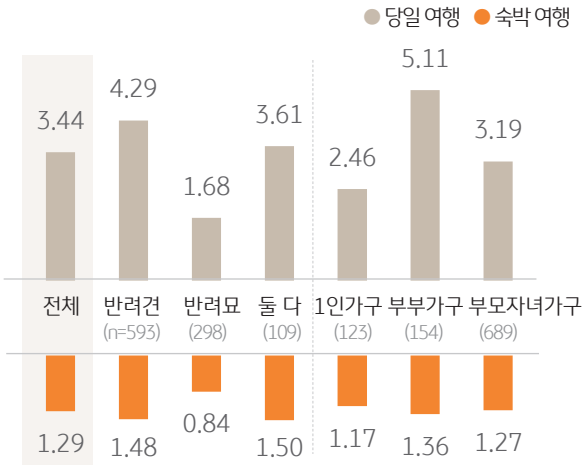
가구 유형별로는 부부가구의 경우 당일 여행 5.11회와 숙박 여행 1.36회를, 1인가구는 당일 여행 2.46회와 숙박 여행 1.17회를 다녀왔다고 답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림 II-17 반려동물 동반 여행 경험이 있는 비율 (단위:%)



주) 전체 n=1000, 반려견 n=593, 반려묘 n=298, 둘 다 n=109

그림 II-18 반려동물 동반 국내 여행 횟수 (단위:회)



주) 반려동물 동반 여행 경험이 있는 경우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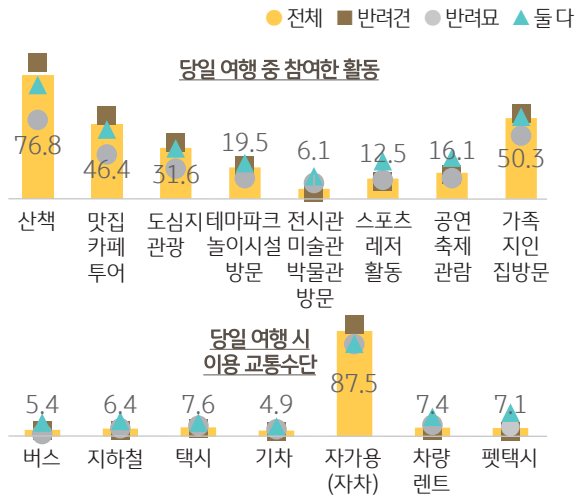
동반 여행은 '산책'과 '가족•지인 방문'이 가장 활발했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들은 여행 중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 교통수단은 무엇을 이용했을까? 최근 2년 이내 반려인들이 나들이를 포함해 반려동물 동반 당일 여행 중 참여한 활동으로는 '산책'(76.8%)이 가장 많았으며, '가족·지인 집 방문'(50.3%), '맛집·카페 투어'(46.4%), '도심지 관광'(31.6%), '테마파크·놀이시설 방문'(19.5%), '공연·축제 관람'(16.1%), '스포츠·레저 활동'(12.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여행 시 이용한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자차)'(87.5%)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택시, 펫택시, 차량렌트 등도 이용하고 있었다.

반려동물 동반 국내 숙박 여행 시에도 반려인들은 '산책'(61.0%), '가족·지인 집 방문'(48.1%), '휴식(호캉스)'(44.9%), '맛집·카페 투어'(38.3%), '도심지 관광'(29.6%), '테마파크·놀이시설 방문'(15.3%), '공연·축제 관람'(11.1%), '스포츠·레저 활동'(11.1%)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숙박 여행 시 교통수단도 마찬가지로 '자가용(자차)'(87.8%) 이용률이 월등히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장거리 여행이 많아 '차량렌트'(9.2%) 이용률이 당일 여행에 비해 소폭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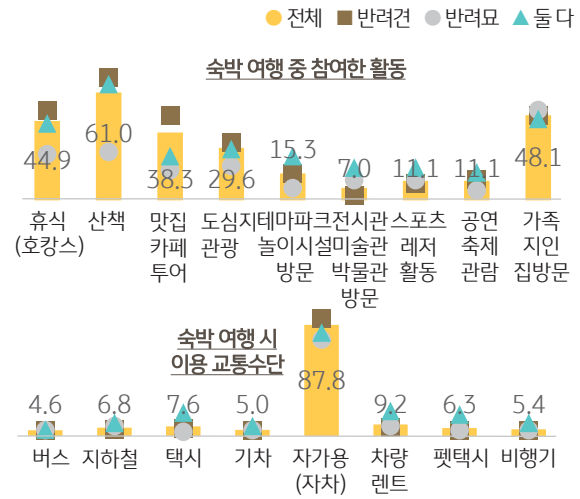
당일·숙박 여행에서 모두 반려견가구는 산책, 맛집·카페 투어, 도심지 관광, 테마파크·놀이시설 방문 등의 실외 활동, 반려묘가구는 전시관·미술관 방문, 스포츠·레저 활동 등의 실내 활동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II-19 당일 여행 참여활동 및 교통수단 (복수응답, 단위: %)



주) 당일 여행 경험자 n=591

그림 II-20 숙박 여행 참여활동 및 교통수단 (복수응답, 단위: %)



주) 숙박 여행 경험자 n=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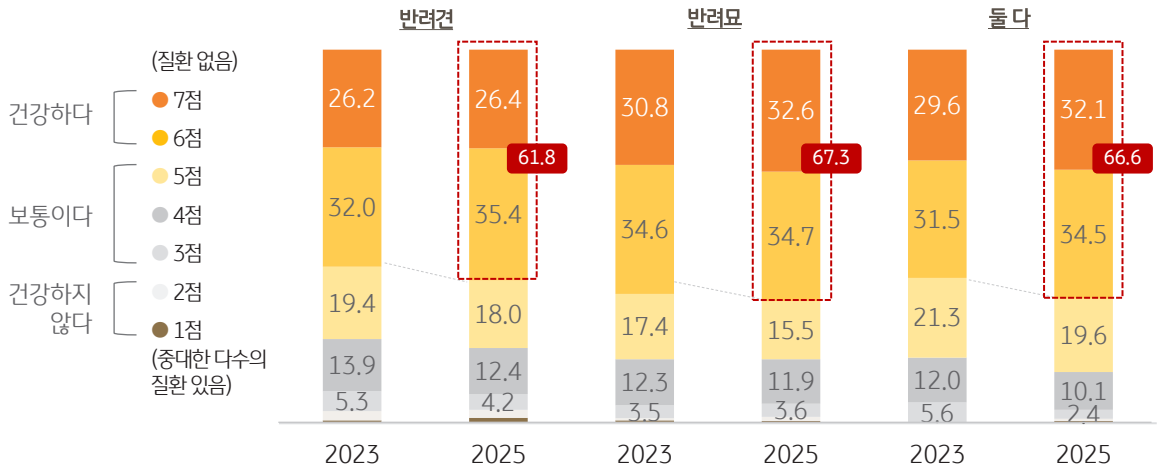
06 반려동물을 위한 건강 검진

반려가구 60% 이상은 반려동물이 '건강하다'고 생각했고, 2023년 대비 '건강하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앞서 반려인들이 '정기 검진 및 백신 접종 등의 예방 의료'(6위) 역시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의 건강검진 현황을 짚어보기에 앞서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가 얼마나 양호하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반려견가구, 반려묘가구,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 모두 60% 이상이 자신들의 반려동물이 '건강하다'(6점과 7점 합계)고 응답했다. 각 가구의 응답률은 2023년 대비 반려견가구(61.8%) 3.6%p, 반려묘가구(67.3%) 1.9%p,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66.6%) 5.5%p 상승해 전반적으로 반려동물이 '건강하다'는 인식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려동물유형별로 살펴보면, 반려묘가구가 반려견가구보다 반려동물이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반려견보다 반려묘가 상대적으로 더 건강하다고 여기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II -21 반려동물유형별 건강 상태 인식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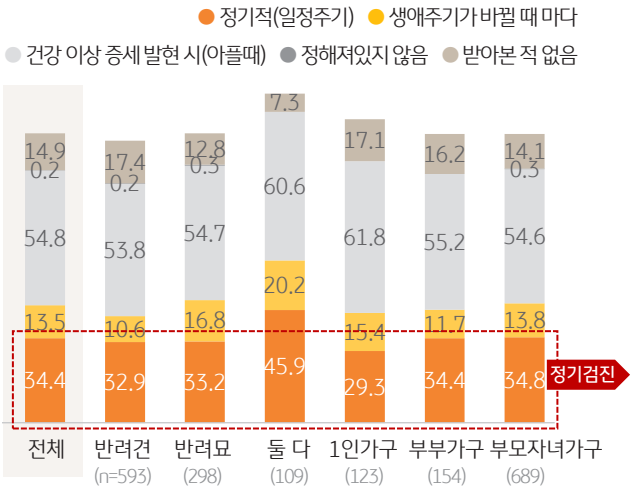
주) 반려동물 마리 수 기준, 반려견 2023 n=826, 2025 n=694, 반려묘 2023 n=373, 2025 n=478, 둘 다 2023 n=108, 2025 n=168

반려동물의 건강검진 노력 역시 활발해진 가운데, 반려가구 3분의 1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양육 중인 반려견 또는 반려묘에 대한 건강검진 방식과 주기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반려가구 54.8%는 '건강 이상 증세 발현 시(아플 때)', 34.4%는 '(일정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13.5%는 '(영유아기-청년기-노령기 등) 생애주기가 바뀔 때마다 한번씩' 반려동물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고 있었고, 14.9% 만이 '아직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반려동물유형별로는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에서 건강검진 수검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반려견과 반려묘의 건강 상태 및 질환 발현 특성이 달라 상대적으로 동물병원 방문이 잦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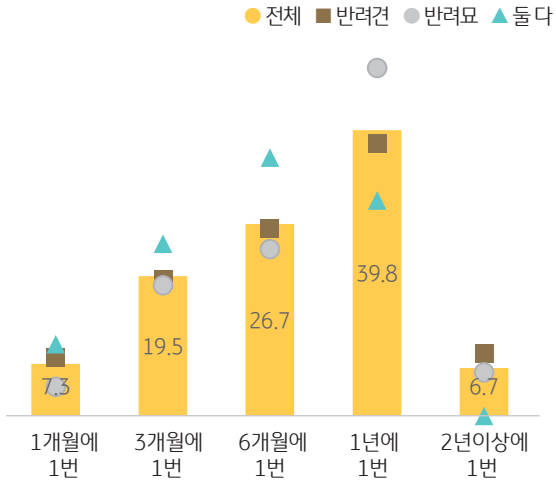
앞서 반려가구의 3분의 1(34.4%)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한다고 응답한 가운데, 양육 중인 반려견 또는 반려묘의 정기 건강검진 주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해보았다. '1년에 1번'(39.8%) 주기로 정기검진을 받는다고 응답한 반려인이 가장 많았으며, '6개월에 1번'(26.7%), '3개월에 1번'(19.5%), '1개월에 1번'(7.3%), '2년 이상에 1번'(6.7%)이 그 뒤를 이었다. 반려동물유형별로는 살펴봤을 때 정기검진 수검 주기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1년에 1번' 정기검진을 받는 경우는 반려묘가구(48.5%)가 반려견가구(37.9%) 및 둘 다 기르는 가구(30.0%) 대비 월등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II-22 건강검진 여부 및 방식 (복수응답, 단위:%)



주) 전체 n=1000

그림 II-23 정기 건강검진 수검 주기 (단위:%)



주) 정기적 건강검진 수검 응답자 n=344

Key Findings

적절한 영양과 운동, 꾸준한 건강 검진, 정서적 교감 활동 등을 통해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챙기고 있었다.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 반려가구가 꼽은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핵심 요소는 '보호자와 충분한 시간·교감'(59.8%), '운동·놀이'(41.2%), '정서 관리'(40.3%), '영양 관리'(37.6%), '환경 관리'(32.7%), '예방 의료'(29.8%) 순으로 나타남

◎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에 관한 정보 탐색 시 주로 포털·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며, 이 과정에서 '정보의 신뢰성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

영양 관리, 운동, 예방 의료를 통해 반려동물의 신체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 반려동물의 균형잡힌 영양과 식단 관리를 위해 반려가구가 생식·사료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영양 성분'(58.6%)과 '반려동물의 기호'(52.8%)

◎ 반려동물의 신체 건강 유지와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반려인들은 반려동물과 함께 다양한 실외활동과 실내놀이를 하며 교감을 나눔(반려견 동반 실외활동 하루 평균 주중 59분, 주말 1시간 24분, 실내놀이 주중 1시간 35분, 주말 2시간 15분, 반려묘 실내놀이 1시간 18분, 주말 1시간 57분)

◎ 반려동물을 위한 건강검진 노력 역시 활발해, 반려가구 54.8%는 '건강 이상 증세를 보이거나 아플 때', 34.4%는 '일정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13.5%는 '영유아기-청년기-노령기 등 생애주기가 바뀔 때마다 한번씩' 반려동물 건강검진을 실시

집에 혼자 있는 반려동물을 위해 조치를 취하고 동반 여가활동을 늘려 정신 건강을 돌보고 있었다.

◎ 반려동물 가구 80.1%는 하루 중 잠시라도 반려동물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반려동물이 집에 홀로 남겨진 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 54분이고 'TV·조명 켜놓기'(43.1%) 등의 조치를 취함

◎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여가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며 '산책'(69.6%, +5.5%p), '여행'(44.5%, +9.0%p), '맛집·카페 투어'(25.8%, +8.9%p), '도심지 관광'(19.1%, +3.5%p) 등 최근 2년간 반려인의 반려동물과 함께한 여가 활동 경험률이 2023년 대비 증가

반려동물의 신체적, 정신적 웰빙을 종합적으로 돌보는 '펫 웰니스(Pet Wellness)'가 반려인 사이에서 라이프스타일로 자리잡고 있다. 반려가구는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보호자와의 충분한 시간·교감'(59.8%), '운동·놀이'(41.2%), '정서 관리'(40.3%), '영양 관리'(37.6%), '환경 관리'(32.7%), '예방 의료'(29.8%)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이에 따라, 적절한 영양과 운동을 통한 신체 건강 증진, 교감과 동반 여가활동을 통한 정서 관리, 꾸준한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 예방 등 반려동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다방면에 걸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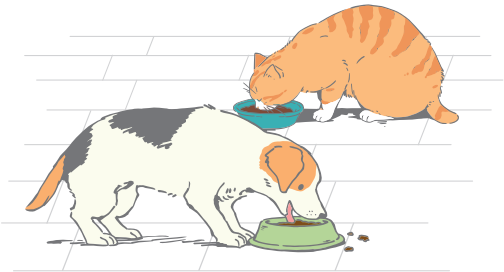
III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양육 경험

01 | 반려가구의 양육 관심사

02 | 반려가구의 양육 만족도

03 | 반려가구의 양육 지속 의향



미국 격언 중에 “친구를 원하면 개를 키우라(If you want a friend, get a dog)”는 말이 있다. 실제로 미국정신의학회(APA) 가 2024년 미국수의학협회(AVMA)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월간 건강한 마음(Healthy Minds Monthly)’에 따르면, 반려가구 84%는 반려동물이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고, 반려동물이 ‘진정한 친구’(65%)이며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64%)를 보내준다고 언급한 반려가구 역시 3분의 2에 달해, 이 격언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이처럼 소중한 가족 구성원인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반려가구의 양육 경험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반려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면서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분야를 시작으로 양육 과정에서 느끼는 만족도, 이들이 반려동물 양육을 지속할 의향과 타인에게 양육을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도 함께 들여다본다.

01 반려가구의 양육 관심사

반려가구의 변치 않는 최대 관심사는 반려동물의 '건강관리'와 '양육'이었다

반려가구의 87.3%가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해 구체적인 관심사가 있다'고 답한 가운데 건강검진·질병 치료 등 '건강관리' 관련 분야가 5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반려동물 식사나 놀이 등 '양육'(45.9%) 관련 분야가 2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행동 교정·훈련 등 '교육'(23.1%), 동반 가능 시설 정보 등 '외출'(22.3%), 금융상품·양육 비용 등 '자금'(21.9%) 관련 분야 순으로 조사됐다. 2023년 조사와 비교해 '건강관리'(55.0%)와 '양육'(38.8%)에 대한 반려인의 높은 관심은 변함없이 지속됐고, '교육'(4위→3위), '외출'(3위→4위), '자금'(6위→5위), '장례'(7위→6위), '여행'(5위→7위) 관련 관심은 유사한 수준의 응답률을 보이며 일부 순위만 변동됐다. 반려동물유형별로는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가 상대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보였다.

그림 III-1 반려인의 반려동물 양육 관련 최근 관심사 (복수응답, 단위:%)

2023 순위	2025 순위	전체		반려동물유형별 반려견	반려묘	둘 다
1	1	건강관리관련	55.2	53.3	57.7	58.7
2	2	양육관련	45.9	45.7	45.3	48.6
4	3	교육관련	23.1	25.0	16.4	31.2
3	4	외출관련	22.3	30.2	7.0	21.1
6	5	자금관련	21.9	20.1	23.2	28.4
7	6	장례관련	18.6	17.2	19.8	22.9
5	7	여행관련	14.8	17.9	5.0	24.8
8	8	입양(파양)관련	13.8	12.3	12.8	24.8
		관심사항 없음	12.7	13.8	11.7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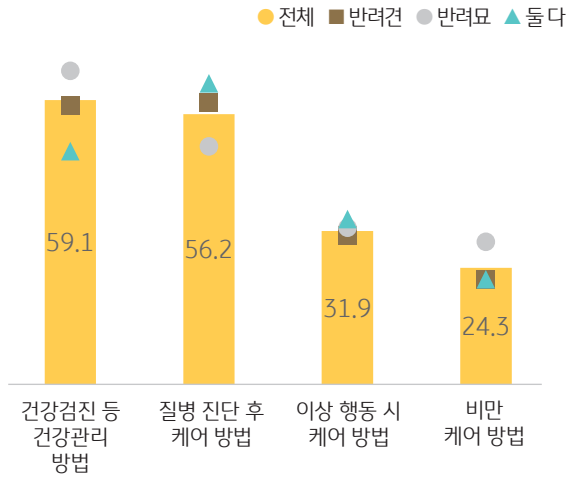
주) 전체 n=1000, 반려견 n=593, 반려묘 n=298, 둘 다 n=109

건강관리 관련해서는 '건강관리 방법'과 '질병 케어 방법', 양육 관련해서는 '펫푸드'가 최대 관심사였다

반려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강관리'와 '양육'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반려인들은 '건강관리'와 관련해서는 '건강검진과 같은 건강관리 방법'(59.1%)과 '질병 진단 후 케어 방법'(56.2%)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졌고, 그 외 '이상 행동 시 케어 방법'(31.9%)과 '비만 케어 방법'(24.3%)에 대해서도 2023년과 마찬가지로 고른 관심을 보였다. '건강관리 방법'과 '비만 케어 방법' 분야는 반려묘가구가, '질병 케어 방법'과 '이상 행동 케어 방법' 분야는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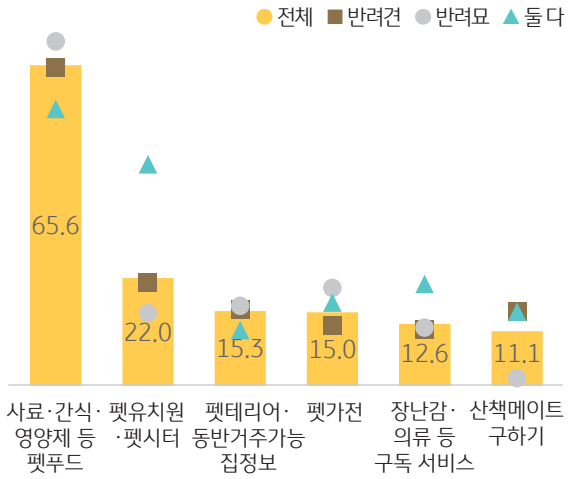
'양육'과 관련해서는 '사료·간식·영양제 등 펫푸드'에 대한 반려인들의 관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65.6%). 다음으로는 '(부재 시 반려동물 보육을 위한) 펫유치원·펫시터'(22.0%), '펫테리어 및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집 정보'와 같은 거주환경(15.3%), '펫가전'(15.0%), '장난감·의류 등의 구독 서비스'(12.6%), '산책메이트 구하기'(11.1%)의 순이었다. 2023년 조사와 비교해 각 항목에 대한 관심도는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산책메이트 구하기'만 4위에서 6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반려동물유형별로는 '펫푸드' 및 '펫가전'에 대한 반려묘가구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고 '돌봄 시설'과 '구독 서비스'는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의 관심이 높았다.

그림 III-2 반려동물 건강관리 관련 관심사 (복수응답, 단위:%)



주) 전체 n=1000, 반려견 n=593, 반려묘 n=298, 둘 다 n=109

그림 III-3 반려동물 양육 관련 관심사 (복수응답, 단위:%)



주) 전체 n=1000, 반려견 n=593, 반려묘 n=298, 둘 다 n=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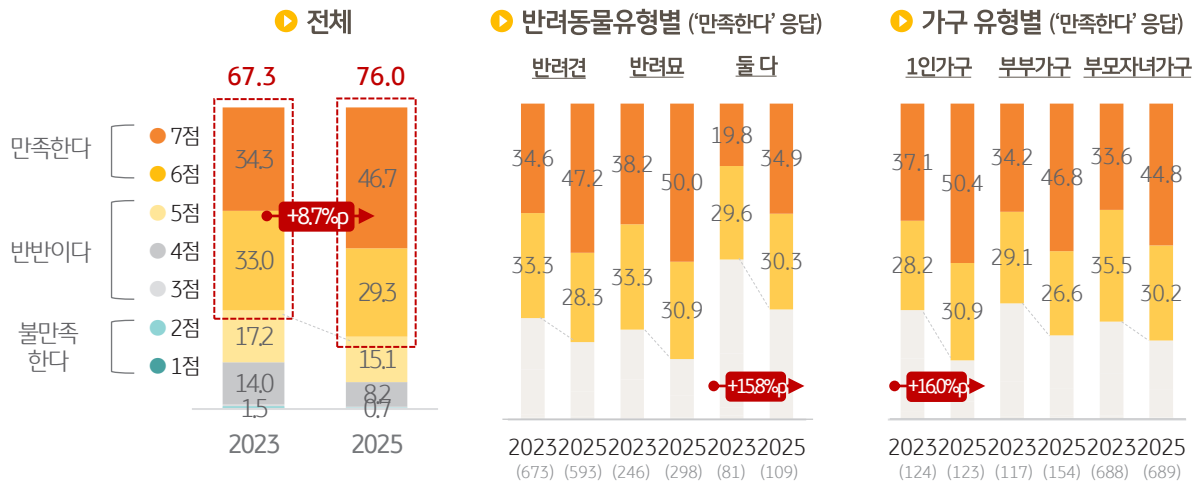
02 반려가구의 양육 만족도

반려가구 76%가 반려동물 양육에 만족했고, 특히 1인가구의 만족도 상승이 두드러졌다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만족한다'(6점과 7점 합계)는 반려인은 76.0%로 2023년(67.3%) 대비 8.7%p 증가했으며, 이중 '매우 만족한다'(7점)는 응답률이 대폭 상승하며(+12.4%p) 전반적인 양육 만족도 증가 흐름을 견인했다.

반려동물 유형과 가구 유형별로 살펴본 반려동물 양육 만족도 역시 2023년 대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반려동물유형별로는 반려묘가구(80.9%), 반려견가구(75.5%),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65.2%) 순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운데 둘 다 기르는 가구의 만족도 증가폭(+15.8%p)이 두드러졌다. 가구유형별로도 살펴본 결과, 1인가구, 부부가구, 부모자녀가구 모두 2023년 대비 반려동물 양육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족한다'는 응답률 기준 만족도 순위 1위는 1인가구(81.3%)였고 부모자녀가구(75%), 부부가구(73.4%) 순이었으며, 특히 1인가구의 경우 2023년 대비 16.0%p에 달하는 높은 상승률을 보인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림 III-4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양육 만족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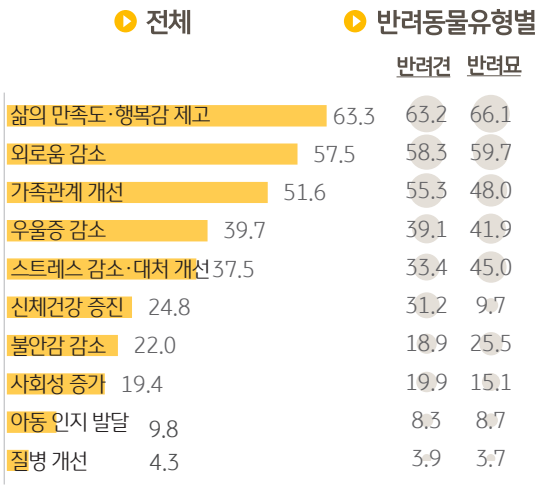
주) 전체 2023 n=1000, 2025 n=1000

반려동물 양육을 통해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높아진' 반면, '여행 가기 힘든' 점은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이 같은 반려가구의 높은 양육 만족도는 반려동물이 가족 구성원에 미친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응답 결과를 통해 그 이유를 유추해볼 수 있었다. 반려인이 꼽은 반려동물 양육이 가져다준 긍정적 효과는 '삶의 만족도 및 행복감 제고'(63.3%)가 가장 많았고, '외로움 감소'(57.5%), '가족관계 개선'(51.6%), '우울증 감소'(39.7%), '스트레스 감소 혹은 대처능력 향상'(37.5%), '(신체 활동 증가로 인한) 신체 건강 증진'(24.8%), '불안감 감소'(22.0%) 등의 순이었다. 이중 '가족관계 개선'과 '신체건강 증진'은 반려견가구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반려묘가구는 '스트레스 감소'와 '불안감 감소'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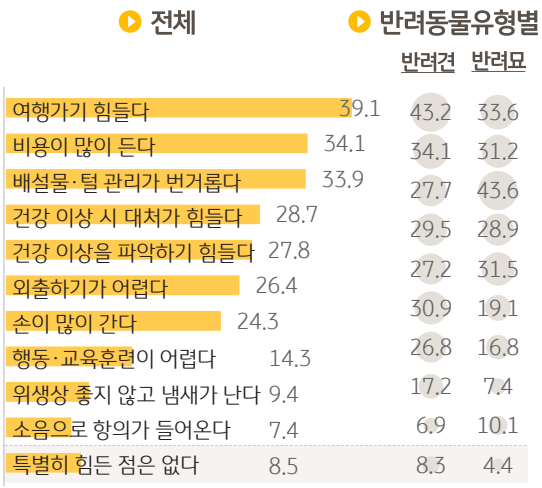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질문한 결과, 반려가구 91.5%가 크고 작은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들이 꼽은 양육 시 느낀 가장 큰 애로사항은 2023년과 동일하게 '여행가기 힘들다'(39.1%)는 점이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식 개선과 시설 확충 등으로 반려동물 동반 여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나 여전히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을 알 수 있었다. 2023년 5위였던 '비용이 많이 든다'(34.1%)는 응답은 올해 2위로 올라섰고 '배설물·털 등 관리가 번거롭다'(33.9%), '건강 이상 시 대처가 힘들다'(28.7%), '건강 이상을 파악하기 힘들다'(27.8%) 등 환경 및 건강 관리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림III-5 반려동물 양육의 긍정적 효과 Top10 (복수응답, 단위:%)



주) 전체 n=1000, 반려견 n=593 반려묘 n=298

그림III-6 반려동물 양육의 애로사항 Top10 (1+2+3순위, 단위:%)



주) 전체 n=1000, 반려견 n=593 반려묘 n=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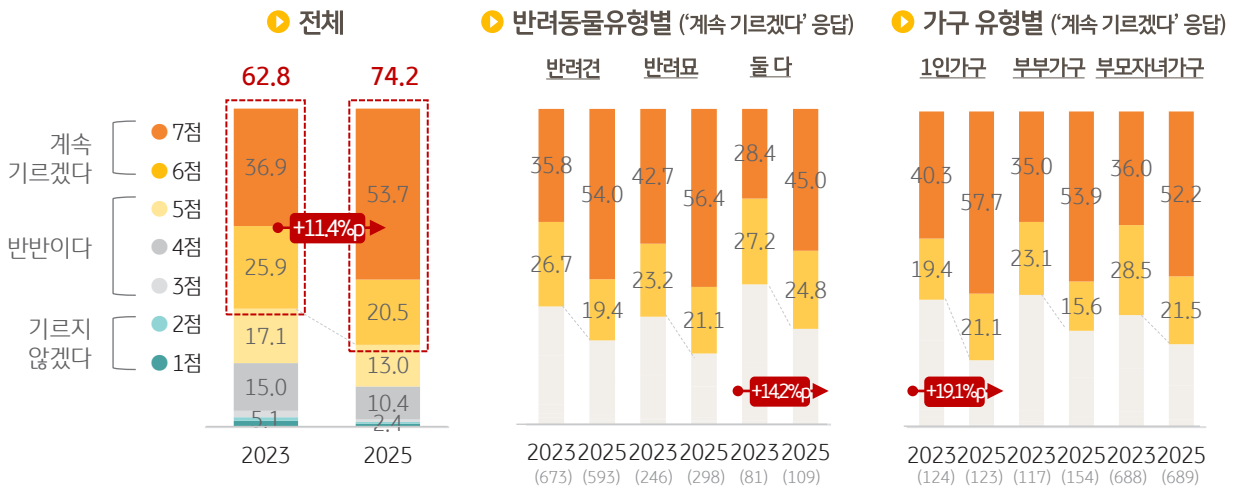
03 반려가구의 양육 지속 의향

>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면서**
> **양육 '지속' 의향 역시 동반 상승했다**

앞서 살펴본 반려인의 반려동물 양육 관련 관심사와 만족도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양육을 지속할 의향이 있는지, 또 타인에게 양육을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반려동물을 앞으로도 '계속 기르겠다'(6점과 7점 합계)고 응답한 반려가구는 74.2%로 2023년(62.8%)에 비해 11.4%p 증가해 높은 양육 지속 의향을 보였다.

반려동물 유형과 가구 유형별 양육 지속 의향은 앞서 살펴본 양육 만족도 결과와 맥을 같이했다. 반려동물유형별로는 반려묘가구(77.5%), 반려견가구(73.4%), 반려견과 반려묘를 둘 다 기르는 가구(69.8%) 순으로 양육 지속 의향이 높았고, 가구 유형별로는 1인가구(78.8%), 부모자녀가구(73.7%), 부부가구(69.5%) 순이었다. 특히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14.2%p) 와 1인가구(+19.1%p)에서 양육 지속 의향이 대폭 증가한 점 역시 양육 만족도 상승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 양육 지속 의향과 양육 만족도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III-7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양육 지속 의향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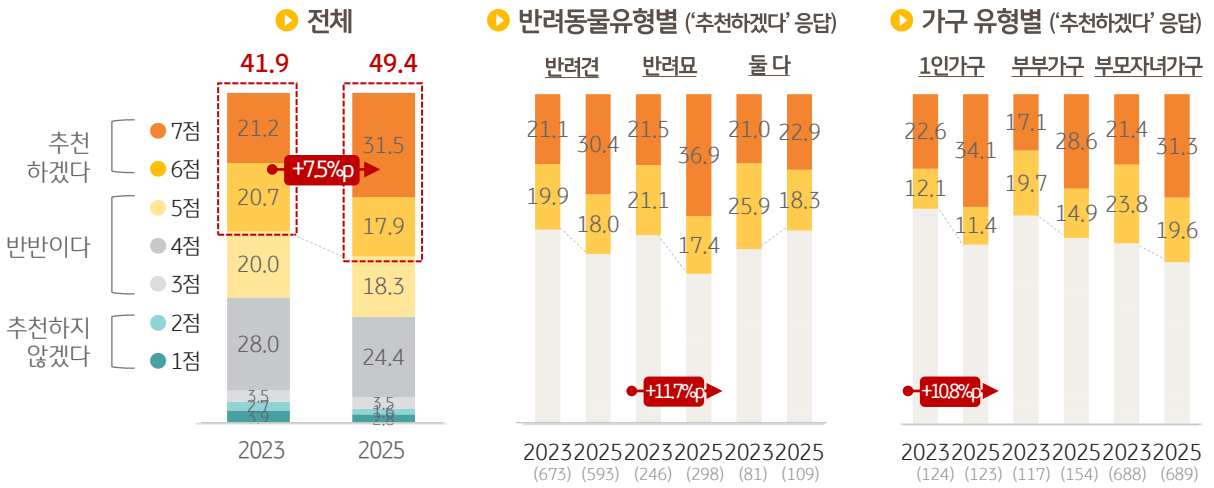
주) 전체 2023 n=1000, 2025 n=1000

양육 '추천' 의향 역시 증가해
반려가구 절반이 타인에게 반려동물 양육을 추천했다

반려가구 76%가 반려동물 양육에 만족하고 74.2%가 양육 지속 의향을 보였으나, 타인에게 반려동물 양육을 '추천하겠다'(6점과 7점 합계)는 응답은 49.4%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높은 양육 만족도를 바탕으로 양육 추천 의향 역시 2023년(41.9%) 대비 7.5%p 증가했다. 반려동물유형별로는 양육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려묘가구의 양육 추천 의향이 역시 가장 높았고(54.3%) 2023년 대비 큰 폭(11.7%p)으로 상승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부모자녀가구의 추천 의향이 가장 높았으나(50.9%), 추천 의향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가구는 가장 높은 양육 만족도와 지속 의향을 보인 1인가구로 10.8%p 상승했다.

표적집단심층면접(FGD)을 통해서도 양육 추천 의향과 관련해 반려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조사에 참여한 한 여성은 "반려동물이 주는 무한한 사랑이 몸과 마음을 크게 힐링해 준다"고 말했고, 다른 여성 참석자 역시 "아플 때 병원비만 충당할 수 있다면 반려동물이 주는 행복감이 어마어마하다"며 양육을 추천했다. 반면 한 남성 참석자는 "반려동물을 키운 이후 혼자 둘 수 없어서 가족 여행을 가기 힘들어졌고, 병원 한 번 가면 비용이 꽤 나와 부담이 된다"며 추천을 주저했고, 또 다른 여성은 "이 친구가 없을 때 특히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그 감정을 못 견딜 것 같아 선뜻 (양육을) 추천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림 III-8 타인에게 반려동물 양육을 추천할 의향 (단위:%)



주) 전체 2023 n=1000, 2025 n=1000

Key Findings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양육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양육 '지속' 의향과 양육 '추천' 의향 역시 동반 상승했다.

반려가구의 변치 않는 최대 관심사는 반려동물의 '건강관리'와 '양육'이었다.

◎ 반려가구의 최대 관심사는 2023년과 동일하게 '건강관리'(55.2%)와 '양육'(45.9%)이었고, '교육'(23.1%), '외출'(22.3%), '자금'(21.9%) 관련 분야에도 꾸준히 관심을 보임

◎ '건강관리' 관련 최대 관심사는 '건강검진과 같은 건강관리 방법'(59.1%)과 '질병 진단 후 케어 방법'(56.2%)이고 '이상 행동 시 케어 방법'(31.9%)과 '비만 케어 방법'(24.3%) 등에도 관심

◎ '양육'과 관련해서는 '사료·간식·영양제 등 펫푸드'(65.6%)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졌고 '펫유치원·펫시터'(22.0%), '펫테리어·거주환경'(15.3%), '펫가전'(1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반려가구의 만족도는 꾸준히 상승해 76%가 만족하고 있었다.

◎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양육 만족도는 76.0%로 2023년(67.3%) 대비 8.7%p 증가

◎ 가구유형별 양육 만족도 순위는 1인가구(81.3%), 부모자녀가구(75%), 부부가구(73.4%) 순이었으며, 특히 1인가구의 경우 2023년 대비 16.0%p에 달하는 높은 상승률을 보임

◎ 반려동물 양육이 가져다준 긍정적 효과로는 '삶의 만족도 및 행복감 제고'(63.3%)가 가장 많았고, '외로움 감소'(57.5%), '가족관계 개선'(51.6%), '우울증 감소'(39.7%), '스트레스 감소 혹은 대처능력 향상'(37.5%), '신체 활동 증가로 인한 신체 건강 증진'(24.8%) 등이 뒤를 이음

반려동물 양육을 '지속'할 의향과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 역시 과거 대비 상승했다.

◎ 반려동물을 계속 기르겠다는 반려가구는 74.2%로 2023년(62.8%) 대비 큰 폭으로(11.4%p) 증가. 가구 유형별로는 1인가구(78.8%), 부모자녀가구(73.7%), 부부가구(69.5%) 순으로 양육 지속 의향이 높았고, 1인가구에서 대폭 증가해(+19.1%p) 만족도 상승과 유사한 경향을 보임

◎ 타인에게 반려동물 양육을 추천하겠다는 반려가구는 49.4%로 2023년(41.9%) 대비 7.5%p 증가. 가구 유형별로는 부모자녀가구의 추천 의향이 가장 높았으며(50.9%), 가장 높은 양육 만족도와 지속 의향을 보인 1인가구가 추천 의향 역시 가장 큰 상승폭(+10.8%p)을 기록

반려가구는 2023년에 이어 반려동물의 건강검진, 질병 치료와 같은 '건강관리'(55.2%)와 식사나 놀이 등의 '양육'(45.9%) 분야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었다. 반려가구 76%가 반려동물 양육에 만족하고 있는 가운데(2023년 대비 +8.7%p), 반려동물 양육이 가져다준 긍정적 효과는 '행복 상승'(63.3%)과 '외로움 감소'(57.5%)였다. 반려동물 양육을 지속할 의향(74.2%, +11.4%p)과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49.4%, +7.5%p) 역시 지난 조사 대비 높아졌다. 특히 양육 만족도와 '지속' 의향이 가장 높은 1인가구가 '추천' 의향 포함 전 지표에서 최대 상승폭을 보여 반려동물과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서적 공감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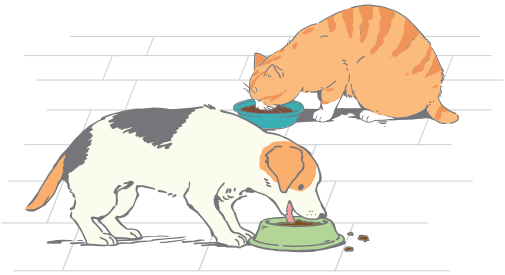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생애 지출

01 | 반려동물 입양비

02 | 반려동물 양육비

03 | 반려동물 치료비

04 | 반려동물 장례비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인식이 확산하며 “가슴으로 낳아 지갑으로 키운다”는 말이 나올 만큼, 날로 커지는 ‘펫코노미’에 반려가구의 지갑이 열리고 있다. [펫코노미는 ‘반려동물(Pet)’과 ‘경제(Economy)’의 합성어로 반려동물과 연관된 시장 또는 산업을 의미한다.] 이에 가계 총지출 중 반려동물 관련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일컫는 신조어인 ‘멍겔계수’(반려견 관련), ‘냥겔계수’(반려묘 관련) 역시 함께 상승하고 있다는 기사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한편 반려동물 생애지출 관련 시장 규모 역시 꾸준한 성장을 보여,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인텐트마켓리서치(Intent Market Research) 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상품·서비스 시장 규모는 2024년 2,276억 달러로 추정됐으며, 올해부터 연평균 10.0% 성장해 2030년까지 4,035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장에서는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위해 반려가구가 지출하는 비용 규모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부터 사료·간식·미용·용품 구입 등의 양육을 위한 비용, 질병·사고 치료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비용, 이들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 애도하며 편안히 떠나보내는 장례를 위한 비용까지 반려동물 양육 생애에 걸친 지출 현황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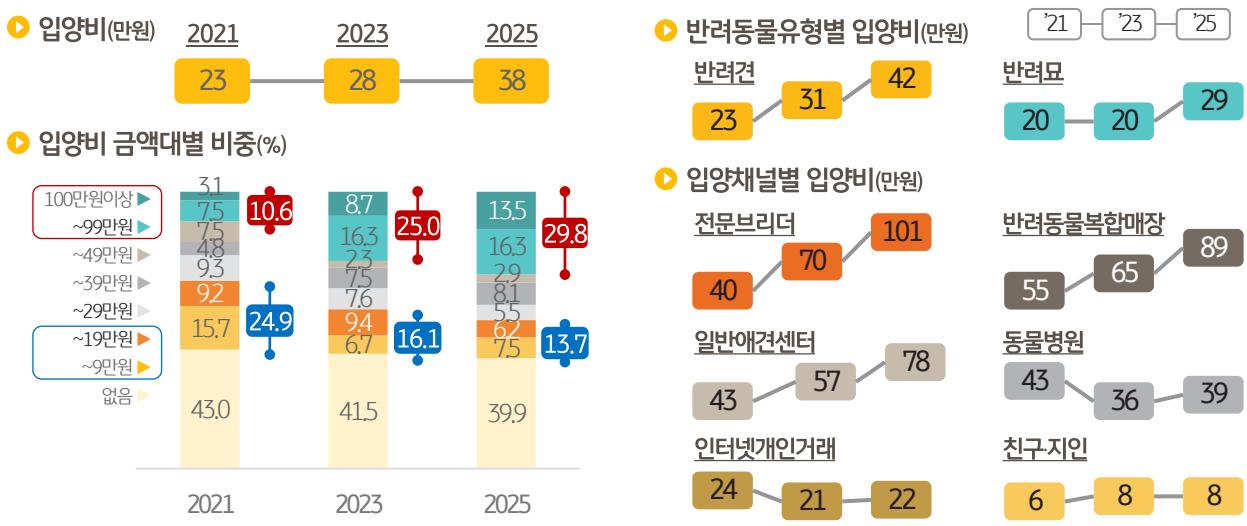
01 반려동물 입양비

반려가구는 반려동물 입양비로 평균 38만 원을 지출했고, 2023년보다 10만 원 증가했다

반려가구가 반려동물 생애 지출의 시작 단계로 '입양비'로 지출한 금액은 평균 38만 원으로 2023년(28만 원) 대비 10만 원 늘었다. 이는 2021년 23만 원에서 2023년 28만 원으로 5만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올해 '50만 원~99만 원'(16.3%)과 '100만원이상'(13.5%) 지출한 반려가구가 29.8%로 이전 조사(25.0%)보다 4.8%p 늘어난 반면, '1만 원~9만 원'(7.5%)과 '10만 원~19만 원'(6.2%) 지출한 반려가구는 13.7%로 이전 조사(16.1%)보다 2.4%p 줄며 고액 지출 가구 비중이 상승했다.

반려동물유형별로 살펴보면, 입양비로 반려견은 평균 42만 원을 지출해 이전 조사(31만 원)보다 11만 원 늘었고, 반려묘는 평균 29만 원을 지출해 이전 조사 대비 9만 원 늘면서 전반적인 증가를 보였다. 입양 채널별로는 '전문브리더'를 통해 데려온 경우 평균 101만 원을 지출해 2023년(70만 원) 대비 31만 원 늘었고, '반려동물복합매장'은 평균 89만 원으로 2023년(65만 원) 대비 24만 원, '일반애견센터'는 평균 78만 원으로 2023년(57만 원) 대비 21만 원이 늘면서 전체적으로 평균 입양비가 상승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그림Ⅳ-1 반려동물 입양비 추이 (단위:만원,%)



주) 2021 n=896, 2023 n=865, 2025 n=865 (유기동물 입양이나 유기된 장소에서 데려온 경우 제외)

반려가구가 반려동물 입양처로 신뢰하는 채널은 '친구/지인'을 통해 입양하고 싶은 경우가 67.6%로 가장 많았고, '동물병원'도 반려가구의 절반(50.0%) 정도가 신뢰를 보이며 차순위를 차지했다. 그 외에 '전문 브리더'(36.2%), '반려동물복합매장'(26.1%) 등이 큰 신뢰도 차이를 보이며 뒤를 이었다. 앞서 반려동물을 분양받았던 채널별로 지출한 비용으로 '전문 브리더'가 평균 101만 원으로 가장 컸고 '반려동물복합매장' 89만 원, '일반애견센터' 78만 원, '동물병원' 39만 원 등의 순이었던 것에 비해 신뢰도 순위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반려가구의 입장에서는 가까이서 지켜본 친구나 지인의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싶은 마음이 크나 입양시기나 선호하는 품종 등을 맞추기 어려워 전문 브리더를 통해 분양받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어떤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는지도 질문했다. 반려가구의 66.0%는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고, 이는 이전 조사(58.3%)에 비해 7.7%p 증가하며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1순위와 응답률 격차가 있으나 '품종'(35.9%)과 '털 날림'(32.9%)도 반려가구 3분의 1 정도가 꼽고 있었고,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반려묘보다 반려견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더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묘의 경우 '건강상태'(66.1%)에 이어 '양육비'(36.4%)가 2순위를 차지해 반려견(21.1%)을 입양할 때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했다. 양육비는 전체 반려가구(27.3%)에서도 이전 조사(22.4%)에 비해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4.9%p), 경제적 어려움을 우려하는 경우가 늘었다.

그림Ⅳ-2 반려동물 입양처별 신뢰도 (단위:%)

주) 각 입양처별 '신뢰한다'의 응답률만 표시
주) 2023 n=865, 2025 n=865 (유기동물이나 유기된 장소에서 입양 제외)

그림Ⅳ-3 반려동물 입양 시 고려사항 Top8 (1+2+3순위, 단위:%,%p)

	전체 2023		전체 2025	동물유형별(2025년) 반려견		반려묘
건강상태	58.3	+7.7	66.0	65.9	<	66.1
품종	37.0	-1.1	35.9	43.3	>	25.1
털 날림	30.7	+2.2	32.9	38.8	>	24.3
성별	25.0	-0.5	24.5	27.2	>	20.6
양육비용	22.4	+4.9	27.3	21.1	<	36.4
분양비용	21.1	-1.8	19.3	20.7	>	17.2
평균수명	15.7	+1.6	17.3	14.7	<	21.1
분양처	19.1	-4.1	15.0	15.7	>	14.0
없음	14.9		14.9	9.1	>	15.2

주) 2023 n=1000, 2025 n=1000, 반려견가구 n=593, 반려묘가구 n=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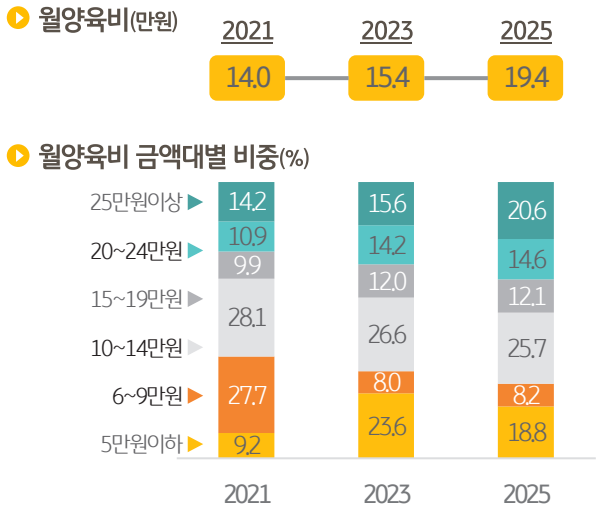
02 반려동물 양육비

반려동물 양육비로 매달 평균 19만 4천 원, 1마리당 반려견은 16만 1천 원, 반려묘는 14만 2천 원을 지출했다

올해 반려가구는 반려동물 병원비나 건강관리, 상해나 질병 치료비를 제외하고 매달 양육비로 '평균 19만 4천 원'을 지출해 2023년(15만 4천 원)에 비해 4만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 '25만 원 이상' 지출한 반려가구가 20.6%로 2023년(15.6%)에 비해 5.0%p 증가한 데 비해 '5만 원 이하' 지출한 반려가구는 18.8%로 2023년(23.6%)에 비해 4.8%p 감소해 양육비 지출 규모가 큰 반려가구가 늘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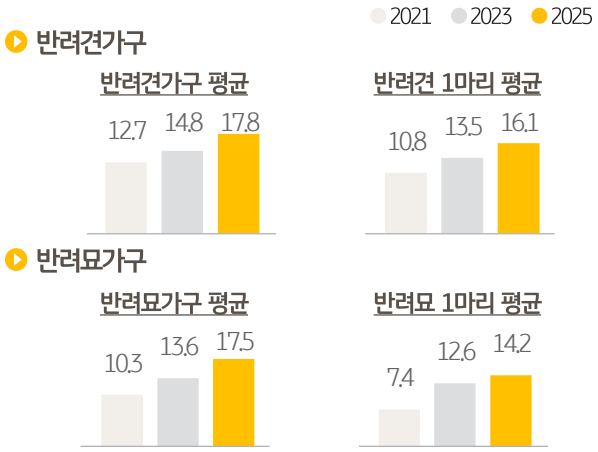
반려견가구의 경우 매달 양육비로 평균 17만 8천 원을 지출해 이전 조사(14만 8천 원)보다 3만 원 증가했고, 개체수별로 환산하면 1마리당 16만 1천 원을 지출해 2023년에 비해 2만 6천 원이 늘었다. 반면 반려묘가구는 월평균 17만 5천 원을 양육비로 지출해 2023년(13만 6천 원)에 비해 3만 9천 원이 늘어 반려견가구보다 지출액 상승폭이 컸다. 반려묘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는 14만 2천 원을 지출해 이전 조사(12만 6천 원) 대비 1만 6천 원이 늘어 반려견에 비해 상승폭이 작았다.

그림IV-4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월양육비 추이 (단위:만원, %)



주) 2021 n=1000, 2023 n=1000, 2025 n=1000

그림IV-5 반려동물 종류별 월평균 양육비 추이 (단위:만원)



주1) 반려견만 기르거나 반려묘만 기르는 경우만
주2) 반려견가구 2021 n=690, 2023 n=673, 2025 n=593
반려묘가구 2021 n=170, 2023 n=246, 2025 n=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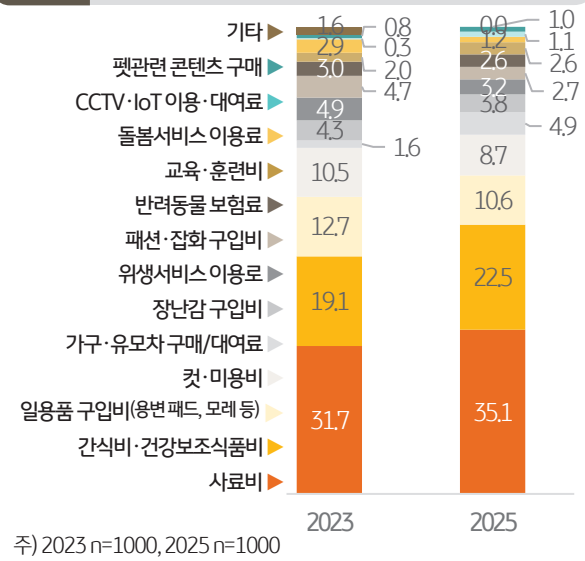
양육비 중 사료비와 간식비 등 식비가 57.6%를 차지했고, 2023년 50.8%보다 6.8%p 증가했다

반려동물의 월평균 양육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사료비'(35.1%)와 '간식비·건강보조식품비'(22.5%) 등의 식비로 절반 이상(57.6%)을 차지했고 이전 조사(50.8%)보다 6.8%p 증가했다. 그 외에 배변 패드나 모래 등 '일용품 구입비'(10.6%), '컷·미용비'(8.7%) 순으로 지출 비중이 컸다. 올해 조사에서는 양육비 지출 항목 중 다섯 번째로 비중이 큰 '가구·유모차 구매/대여료'가 4.9%로 이전 조사(1.6%)보다 3배 이상 늘었는데, 이는 반려동물의 노령화 및 건강이 악화된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이나 장거리 이동 및 여행, 혼잡한 공간에서의 이동 등이 늘면서 구매가 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유형별로 살펴보면, 반려견가구는 섭식관련 '사료비'와 '간식비·건강보조식품비' 등 식비가 각각 34.7%와 26.0%로 60.7%를 차지했으며 2023년 보다 '사료비'(2023년 31.5%)는 3.2%p, '간식비·건강보조식품비'(2023년 19.1%)는 6.9%p 증가했다. 반면 '패션·잡화구입비'는 3.0%로 2023년(5.3%)보다 2.3%p, '일용품 구입비'는 9.0%로 2023년(11.1%) 대비 2.1%p 감소했다.

반려묘가구의 경우 '가구·유모차 구매/대여료' 비중이 9.7%로 2023년(2.8%)에 비해 3.5배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반려견가구(0.4%p)와 비교해서도 차이가 컸다. '사료비'도 36.8%로 이전 조사(33.6%) 보다 3.2%p 늘었고, 반려견가구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항목인 '간식비·건강보조식품비'는 21.3%로 이전 조사(20.3%) 보다 1.0%p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 외 항목은 모두 감소했으며, 특히 '위생서비스 이용료'(3.0%)가 2023년(5.7%) 대비 2.7%p로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그림Ⅳ-6 반려동물 월평균 양육비 지출 비중 (단위:%)



주) 2023 n=1000, 2025 n=1000

그림Ⅳ-7 반려동물유형별 양육비 지출 비중 Top10 (단위:%)

	반려견가구		반려묘가구	
	2023 (n=673)	2025 (n=593)	2023 (n=246)	2025 (n=298)
사료비	31.5	34.7	33.6	36.8
간식비·건강보조식품비	19.1	26.0	20.3	21.3
일용품 구입비(용변패드, 모래 등)	11.1	9.0	17.6	22.5
컷·미용비	13.1	12.2	4.2	2.6
가구·유모차 구매/대여료	1.1	1.5	2.8	9.7
장난감 구입비	3.8	3.0	6.1	5.1
위생서비스 이용료	4.4	3.1	5.7	3.0
패션·잡화 구입비	5.3	3.0	3.0	2.0
반려동물 보험료	3.3	2.9	1.2	1.0
교육·훈련비	1.9	2.7	0.5	0.5

03 반려동물 치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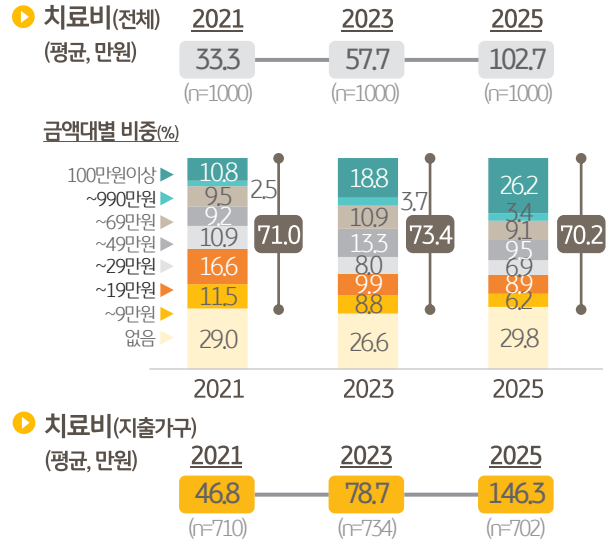
> **최근 2년간 반려동물 치료비로 102만 7천 원 지출했으며, 2023년 57만 7천 원보다 2배 정도 증가했다**

반려가구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양육비 외에 간헐적으로 발생하나 규모가 큰 생애 지출 중 하나가 반려동물 상해 및 질병 치료, 백신 접종, 건강검진 등으로 지출하는 '치료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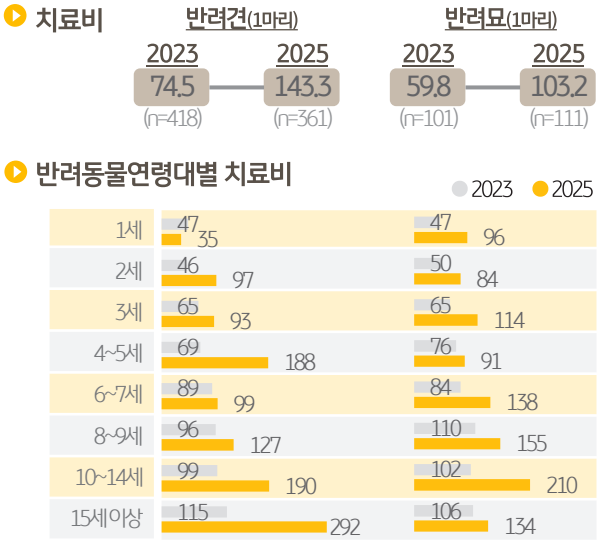
최근 2년간 반려가구는 반려동물 치료비로 평균 102만 7천 원을 지출하며 2023년(57만 7천 원)에 비해 2배가량 늘었다. 반려동물 치료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은 가구'는 29.8%로 이전 조사(26.6%)보다 3.2%p 늘었으며, '평균 100만 원 이상'의 고액을 지출한 반려가구도 26.2%로 이전 조사(18.8%)보다 7.4%p 증가하며 평균 치료비 상승을 견인했다.

앞서 반려동물 치료비를 지출하지 않은 29.8%와는 달리 치료비를 지출한 70.2%의 반려가구가 최근 2년간 사용한 금액은 146만 3천 원으로 2023년(78만 7천 원)보다 2배 가까운 67만 6천 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IV-8 최근 2년간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치료비



그림IV-9 반려동물유형별 치료비(치료비 지출가구만) (단위:만원)



치료비 지출 가구의 지출액을 개체수별로 환산하면, 반려견은 143만 3천 원으로 2023년(74만 5천 원)보다 68만 8천 원이 늘었고, 반려묘는 103만 2천 원으로 2023년(59만 8천 원)에 비해 43만 4천 원이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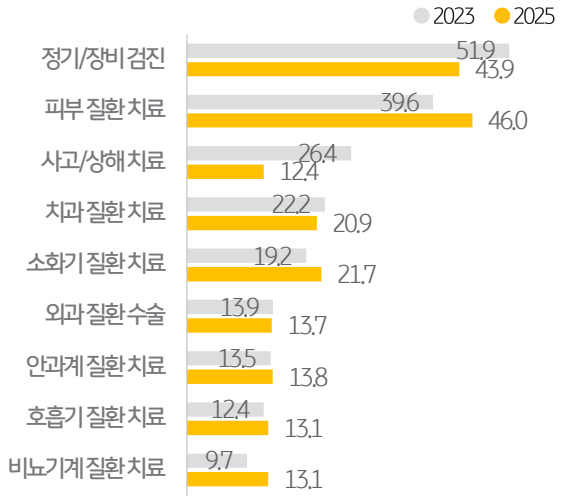
반려동물 나이대별로는 반려견의 경우 4세 즈음 중장년기에 접어들며 치료비(188만 원)가 증가하기 시작해 노령기인 7세 이후 증가폭이 커졌고, 반려묘는 반려견보다 그 시기가 1년 정도 빨라 중장년기에 들어서는 3세 즈음(114만 원)과 노령기 6세 이후 치료비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치료비 지출 항목 1순위는 '피부 질환 치료비'로 46.0%를 기록했고, 이전 조사결과(39.6%)에 비해서도 6.4%p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그 외 이전 조사에서 51.9%로 1순위를 차지했던,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장비를 사용한 '정기/장비 검진비'는 올해 8.0%p 감소하며 2순위로 하락했다. 올해 3순위인 '소화기 질환 치료'(21.7%)는 피부 질환 치료비와 마찬가지로 2023년(19.2%)에 비해 지출이 늘어난(+2.5%p) 항목 중 하나였다. 한편 '사고/상해 치료'(12.4%)는 이전 조사(26.4%)보다 14.0% 감소하며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려동물유형별로 살펴보면, 반려견가구는 절반 이상인 52.6%가 '피부 질환 치료비'를 지출해 최대 지출 항목으로 나타났고, 2023년 51.2%로 최대 지출 항목이었던 '정기/장비 검진'은 37.9%로 13.3%p 감소하며 2위를 차지했다. 그 외 '소화기 질환 치료'(21.9%), 잇몸 질환이나 치석, 구내염 치료 등 '치과 질환 치료'(19.5%), 디스크나 슬개골탈구, 연골염 등 수술하는 '외과 질환 수술'(18.3%) 등의 순으로 치료비를 지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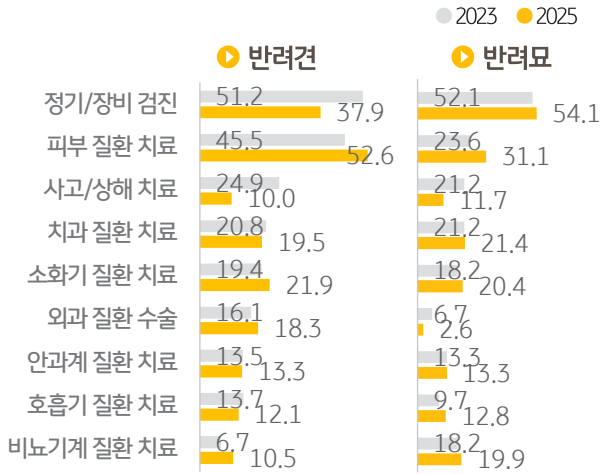
반려묘가구의 치료비 최대 지출 항목은 '정기/장비 검진비'로 2023년(52.1%)에 이어 올해도 54.1%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피부 질환 치료비'(31.1%), 3위로 '치과 질환 치료비'(21.4%), '소화기 질환 치료비'(20.4%), '비뇨기계 질환 치료비'(19.9%) 등의 순으로 지출해 반려견가구와 차이를 보였다.

그림Ⅴ-10 반려동물 치료비 지출처 Top9 (복수응답, 단위:%)



주) 치료비 지출이 있는 반려가구만 2023 n=734, 2025 n=702

그림Ⅴ-11 반려동물유형별 치료비 지출처 Top9 (단위:%)



주) 치료비 지출이 있는 경우만, 반려견가구 2023 n=510, 2025 n=420, 반려묘가구 2023 n=165, 2025 n=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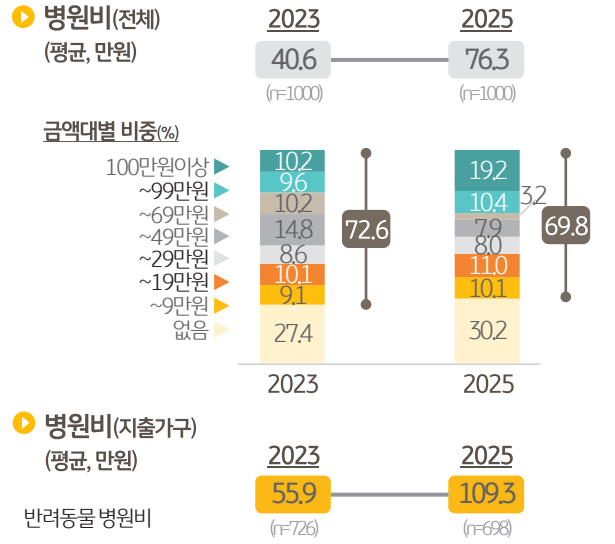
최근 2년간 내원 횟수는 9.7회로 109만 3천 원을 썼고, 반려견은 시추, 반려묘는 스코티시폴드의 내원율이 높았다

반려가구 중 69.8%는 최근 2년간 치료 목적으로 동물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 2023년 조사(72.6%)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때 미용이나 물품 구입을 위해 동물병원을 방문한 경우는 제외했다. 동물병원에 내원한 경험이 있는 반려가구가 이 기간 동안 지출한 병원비는 평균 109만 3천원으로 2023년(55만 9천 원)에 비해 2배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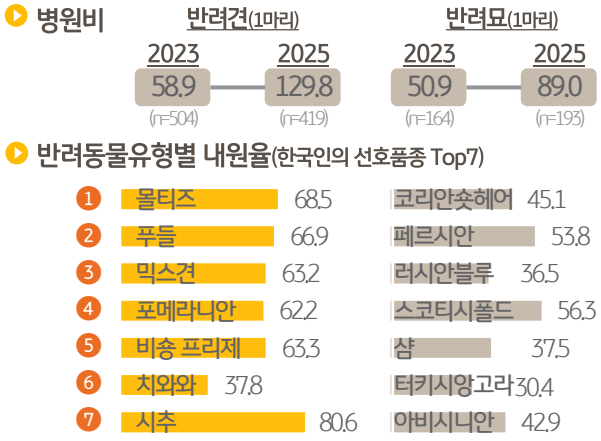
동물병원 내원 시 지출한 병원비를 반려견과 반려묘로 구분하여 1마리당 비용으로 산출해 보았다. 최근 2년 내 반려견은 1마리당 동물병원을 내원하여 지출했던 병원비는 평균 129만 8천 원으로 2023년 58만 9천 원보다 2배 이상(+70만 9천 원) 증가했고, 반려묘는 1마리당 평균 89만 원을 지출하여 2023년 50만 9천 원보다 38만 1천 원이 증가해 반려견의 병원비 지출이 급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7대 반려견 중 내원율이 가장 높은 견종은 '시추'로 전체 개체수 중 80.6%가 내원 경험이 있었다. 다음으로 '몰티즈'(68.5%), '푸들'(66.9%), '비숑 프리제'(63.3%) 등의 순이었고, '치와와'(37.8%)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60% 이상의 높은 내원율을 기록하며 동물병원에 자주 방문하고 있었다. 한편 반려묘는 '스코티시폴드'가 56.3%로 내원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페르시안'(53.8%), '코리안숏헤어'(45.1%), '아비시니안'(42.9%), '샴'(37.5%), '러시안 블루'(36.5%) 등의 순이었다. 반려묘는 상대적으로 내원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고 야행성인 반려묘의 경우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림IV-12 최근 2년간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병원비 (단위:만원,%)



그림IV-13 반려동물유형별 병원비 및 내원율 (단위: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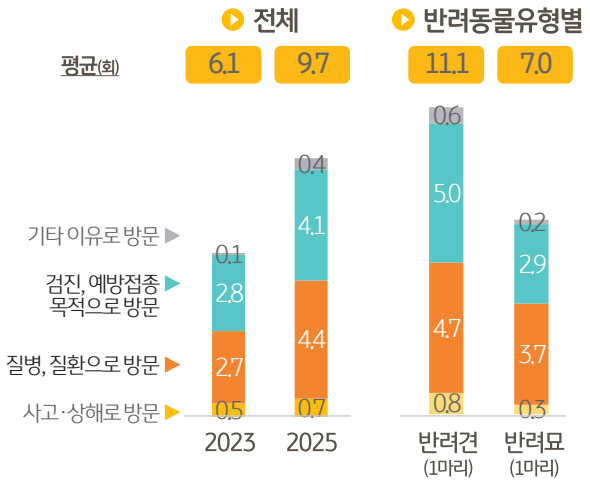
주1) 내원율: 품종별로 (병원 방문 개체수/ 전체 개체수*100)
주2) 선호하는 견종 Top7, 묘종 Top7 중심으로 산출
주3) 반려묘는 단일품종으로 3순위 '모름'을 제외, 8순위 '아비시니안' 추가

앞서 반려가구가 최근 2년 내 미용이나 물품 구입 목적을 제외하고 반려동물을 병원에 데려간 비율은 69.8%였다. 이들 반려가구가 동물병원에 내원한 횟수는 평균 9.7회로 2023년 6.1회에 비해 평균 3.6회 늘었다. 내원 이유로는 '질병·질환 치료의 목적'(평균 4.4회)과 '검진, 예방접종 목적'(평균 4.1회)이 평균 8.5회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사고·상해 치료 목적'(평균 0.7회)이나 '기타 이유'(평균 0.4회)로 내원했다.

반려동물유형별로는 앞서 상대적으로 자주 동물병원을 방문했던 것으로 나타난 반려견이 평균 11.1회 내원했고, 반려묘는 평균 7.0회로 반려견보다 4.1회 적었다. 반려견이 동물병원에 내원한 이유는 '검진, 예방접종 목적'이 평균 5회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질병·질환 치료의 목적'이 평균 4.7회를 차지했다. 한편 반려묘는 반려견에 비해 동물병원 내원 횟수가 적었고, 방문 목적도 순위가 바뀌어 '질병·질환 치료의 목적'으로 내원한 경우가 평균 3.7회로 가장 많고 차순위로 '검진, 예방접종 목적'(평균 2.9회)으로 내원했다.

반려가구가 동물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은 절반 이상이 '지리적 접근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고, 다음으로 '진료인력의 전문성'(46.8%), '진료인력의 친절함'(31.4%), '추천/이용후기'(30.9%) 등의 순이었다. '진료인력의 전문성'과 '추천/이용후기'에 대해서는 '부부가구'가, '진료비'와 '추천/이용후기', '병원 인지도'는 1인가구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려하는 선택 기준이었다.

그림Ⅴ-14 최근 2년간 동물병원 내원이유별 방문횟수 (단위:회)



주1) 병원비 지출이 있는 반려가구만
주2) 전체 2023 n=734, 2025 n=702, 반려견 n=361, 반려묘 n=111

그림Ⅴ-15 동물병원 선택 기준 Top10 (1+2+3순위, 단위:%)

	전체 (n=1000)	가구유형별 1인 (n=123)	부부 (n=154)	부모자녀 (n=689)
1 지리적 접근성	52.6	47.2	52.6	53.7
2 진료인력(원장)의 전문성	46.8	47.2	51.3	45.6
3 진료인력의 친절함	31.4	33.3	28.6	31.8
4 추천/이용후기	30.9	39.0	31.2	29.3
5 진료비	29.4	33.3	31.2	28.2
6 병원 인지도	19.1	23.6	16.9	18.9
7 진료인력(원장)의 경력	17.5	17.1	16.9	17.9
8 24시간 진료 여부	17.5	11.4	18.2	17.4
9 시설/장비의 우수성	16.7	12.2	20.1	16.8
10 병원규모/진료과목	16.6	12.2	15.6	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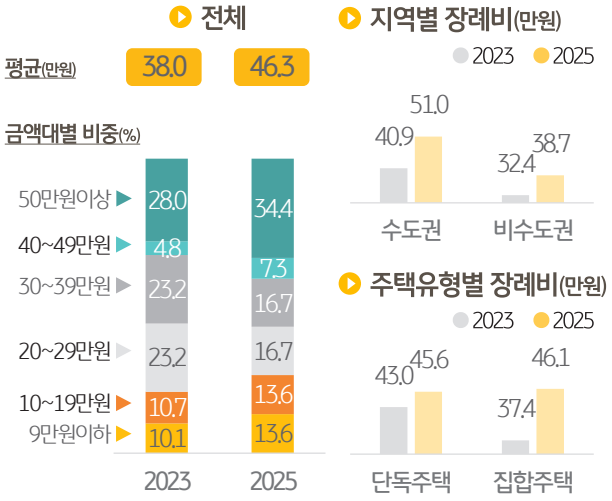
04 반려동물 장례비

> **최종 생애지출인 장례비로는 46만 3천 원을 지출했고,**
> **'직접 매장'이 절반으로 줄면서 2023년보다 8만 3천 원 늘었다**

반려가구는 반려동물 관련 생애 지출의 최종 단계인 '장례비'로 46만 3천 원을 지출하며 2023년(38만 원) 대비 8만 3천 원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장례비 지출 규모는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수도권이나 집합주택에 거주하는 반려가구가 비수도권이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반려가구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집합주택'에 거주하는 반려가구는 46만 1천 원을 지출하며 2023년(37만 4천 원)보다 8만 7천 원으로 조사 대상 가구 중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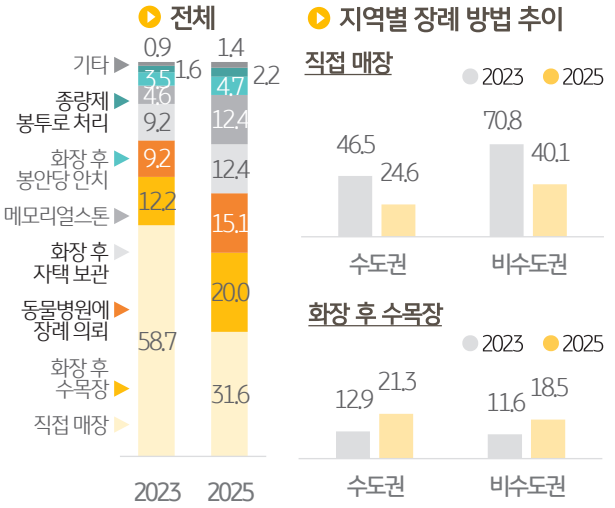
반려가구의 장례비 지출이 늘어난 이유는 장례 방법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었다. 반려동물을 '직접 매장'하는 반려가구가 2023년 58.7%에서 올해 31.6%로 27.1%p 감소하며 비용이 수반되는 장례 방법 이용률이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직접 매장'하는 가구가 크게 감소했다. '직접 매장' 다음으로 많이 활용하는 반려동물 장례 방법은 '화장 후 수목장'(20.0%)을 하거나 '동물병원에 장례를 의뢰'(15.1%) 하는 등의 순이었고, '화장 후 유골함을 자택에 보관'(12.4%)하거나, '화장 후 메모리얼스톤'(12.4%)으로 보관하는 경우도 이전 조사에 비해 늘었다.

그림Ⅳ-16 반려동물 장례비(이별 경험자만) (단위:만원,%)



주) 반려동물 죽음을 경험한 가구만, 전체 2023 n=168, 2025 n=317

그림Ⅳ-17 반려동물 장례 방법 (단위:%)



주) 반려동물 죽음을 경험한 가구만, 2023 n=168, 2025 n=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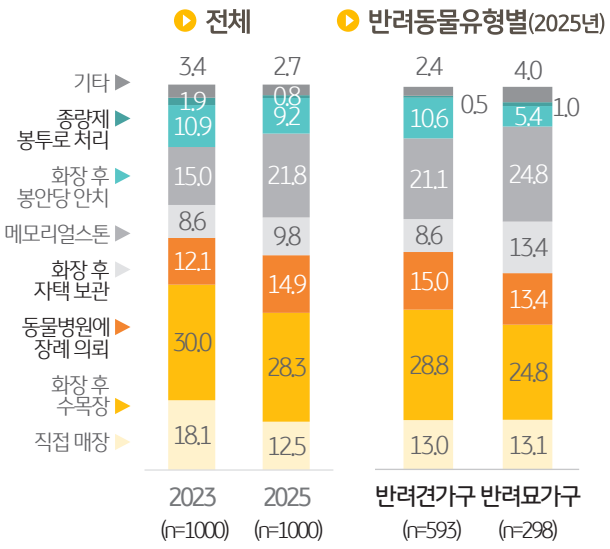
화장 후 수목장을 하거나 자택에 추모 공간을 만들어 유골함이나 메모리얼스톤으로 보관하거나, 봉안당에 안치하는 등의 장례 절차를 따르는 경우가 늘어난 이유는,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여 무지개 다리를 잘 건널 수 있게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이후에도 계속 기억하려는 문화가 확산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지속될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향후 계획하는 반려동물 장례 방법에 대해서도 질문해 보았다. 향후 '직접 매장'을 생각하는 반려가구는 12.5%에 불과한 반면 '화장 후 수목장'(28.3%)이나 '화장 후 메모리얼스톤'(21.8%), '동물병원에 장례 의뢰'(14.9%), '화장 후 자택 보관'(9.8%)이나 '봉안당 안치'(9.2%) 등의 순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화장 후 수목장이나 봉안당 안치의 장례 절차에 대해서는 이전 조사보다 선호도가 낮아졌는데, 이는 반려동물 전용 납골당이 유지비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경제적 이유나 납골당이 집과 떨어져 있어 자주 볼 수 없다는 지리적 이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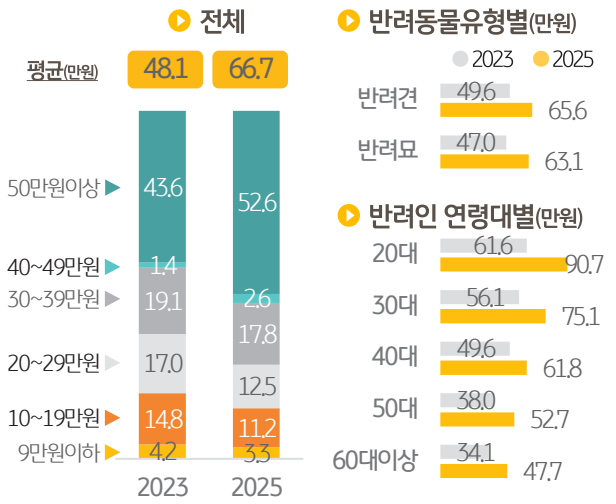
향후 반려동물 장례비로 계획하는 지출 금액은 평균 66만 7천 원으로 2023년(48만 1천 원)보다 18만 6천 원 늘었다. '50만 원 이상' 지출 계획인 반려가구는 52.6%로 2023년(43.6%)에 비해 증가한 반면, '30만 원 미만' 지출 계획인 반려가구는 2023년 36.0%에서 올해 27.0%로 감소해 고액 지출을 계획하는 반려가구가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려동물유형별로는 반려견가구가 65만 6천 원을, 반려묘가구가 63만 1천 원을 계획하며 금액 차가 크지 않았다. 반려인 연령대별로는 나이가 젊을수록 장례비를 높게 책정하여 '20대'가 90만 7천 원, '30대'는 75만 1천 원으로 '60대 이상'의 47만 7천 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컸다. 특히 20대 반려인의 향후 장례비 지출 규모는 2023년(61만 6천 원)보다 29만 1천 원이 증가했고, 60대 이상보다 2배 정도 높게 책정하고 있었다.

그림Ⅴ-18 향후 고려 중인 반려동물 장례 방법 (단위:%)



그림Ⅴ-19 향후 고려 중인 반려동물 장례비 (단위:%)



주) 직접 매장 외 대외 장례절차 고려만, 전체 2023 n=766, 2025 n=840

Key Findings

반려가구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입양비부터 장례비에 이르는 반려동물 생애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

반려가구는 반려동물 입양비로 2023년보다 10만 원 증가한 평균 38만 원을 지출했다.

◎ 반려견 입양비는 평균 42만 원, 반려묘는 29만 원으로 2023년보다 각각 11만 원, 9만 원 증가

◎ 입양처는 '전문 브리더'(101만 원)→'반려동물복합매장'(89만 원) →'일반애견센터'(78만 원)의 순

◎ 입양 시 주요 고려사항은 반려동물의 '건강상태'(66.0%), '품종'(35.9%), '털 날림'(32.9%) 등의 순

반려동물 월평균 양육비로 2023년보다 4만 원이 늘어난 19만 4천 원을 지출했다.

◎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로 반려견은 16만 1천 원을, 반려묘는 14만 2천 원을 지출

◎ 양육비 중 사료비와 간식비, 건강보조식품비의 '식비'가 57.6%로 2023년(50.8%) 보다 6.8%p 증가

◎ 2023년보다 반려견가구는 '식비'가 10.1%p, 반려묘가구는 '가구·유모차 구매/대여료'가 6.9%p 증가

최근 2년 간 반려가구는 반려동물 치료비로 2023년보다 2배 늘어난 평균 102만 7천 원을 지출했다.

◎ 치료비 지출가구는 반려견 1마리당 치료비로 반려견 143만 3천 원, 반려묘 103만 2천 원을 지출

◎ 지출 항목 1순위는 '피부 질환 치료비'(46.0%), 2023년 1순위였던 '정기/장비 검진비'(43.9%)는 2순위로

◎ 최근 2년 간 동물병원 내원 횟수는 9.7회, 반려견은 '시추', 반려묘는 '스코티시폴드'의 내원율이 높음

장례비로는 46만 3천 원을 지출했고, '직접 매장'이 절반으로 줄면서 2023년보다 8만 3천 원 증가했다.

◎ '직접 직접 매장'하는 반려가구가 2023년 58.7%에서 올해 31.6%로 27.1%p 감소

◎ 그 외에 '화장 후 수목장'(20.0%)을 하거나, '동물병원에 장례 의뢰'(15.1%) 방법으로 장례를 치름

◎ 향후 '직접 매장'(12.5%)보다 '화장 후 수목장'(28.3%), '메모리얼스톤'(21.8%) 등으로 장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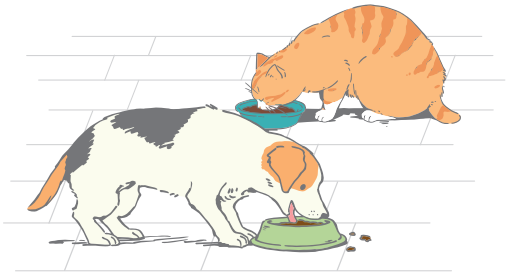
반려가구는 반려동물 입양부터 무지개다리를 건너는 장례까지 가족의 일원으로서 반려동물의 전 생애를 책임지고 있었다. 반려가구는 입양비부터 양육비, 치료비, 장례비의 반려동물 관련 생애지출을 하고 있다. 올해 조사에서는 반려동물의 생애 지출 규모가 지난 조사(2023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입양비(38만 원)에서 10만 원, 월평균 양육비(19만 4천 원)에서 4만 원, 치료비(102만 7천 원)에서 45만 원, 장례비(46만 3천 원)에서 8만 3천 원이 늘었다. 가족이기에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녕 등에 지출하는 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보였다. 한편 장례 방법도 야산에 직접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골함이나 메모리얼스톤, 봉안당 안치 등을 계획하며 가족으로 계속 기억하려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었다.

V

반려동물 생애자금 관리

01 | 반려동물 생활비 마련

02 | 반려동물 보험



앞서 4장에서 반려가구는 입양비부터 양육비, 치료비, 장례비까지 반려동물 생애 지출을 하고 그 규모가 2023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크게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치료비는 이전 조사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목표를 이루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저축하고 자금을 운용한다. 반려인에게는 가족으로서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위해 필요한 생애 지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다.

본 장에서는 반려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데 필요한 생애 지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운용하는지 알아보고자 반려동물 전용 자금 여부와 그 규모, 저축 및 자산 운용 방법 등을 알아보았다. 반려동물 관련 생애 지출 중 부담이 큰 치료비 마련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보험에 대해 인지도, 가입률,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 등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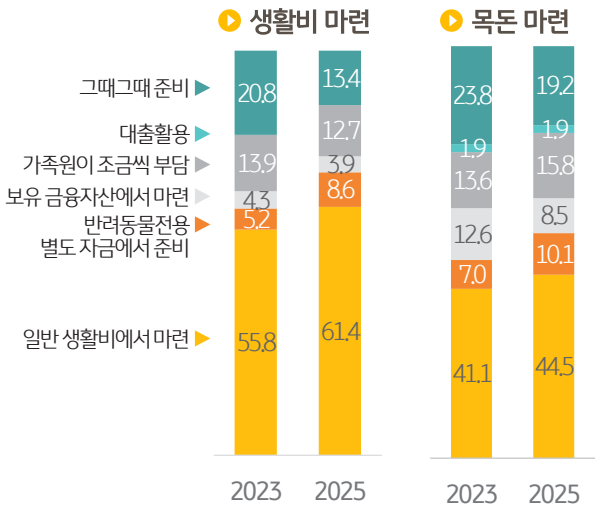
01 반려동물 생활비 마련

반려동물 생활비는 '일반 생활비'에서 마련하거나 '그때그때' 준비, 반려동물 전용 양육 자금을 운용하는 가구는 26.6%에 불과했다

반려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분양비, 양육비, 치료비, 장례비 등 다양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반려가구가 반려동물 양육 관련 생활비와 목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알아보았다. 생활비의 경우 '일반 생활비에서 마련'(61.4%)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전 조사(55.8%)에 비해 5.6%p 증가했다. 목돈 필요 시에는 '일반 생활비에서 마련'(44.5%)하거나 '그때그때 준비'(19.2%)하는 응답이 63.7%를 차지했다. 생활비와 목돈 모두 별도 자금에서 준비한다는 반려가구는 각각 8.6%, 10.1%에 불과해 대부분 생활비에서 충당하거나 그때그때 필요한 경우에 자금을 마련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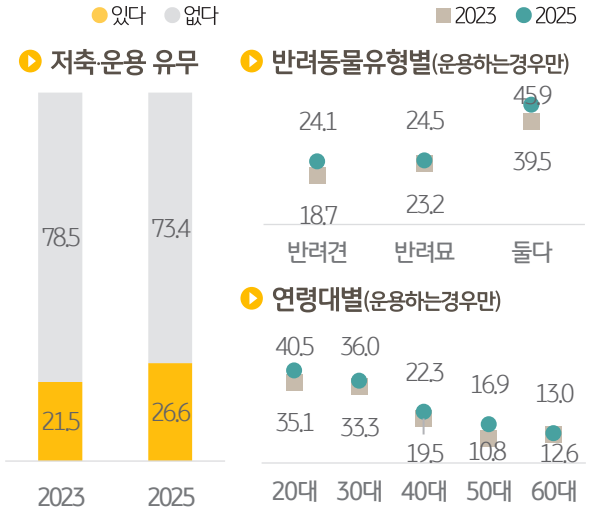
반려동물을 위한 전용 자금을 저축하거나 보유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반려가구의 26.6%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전 조사(21.5%)에 비해 5.1%p 증가했으나 4가구 중 1가구 수준에 그쳤다. 반려동물유형별로는 반려견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가 45.9%로 가장 많았고 이전 조사보다 6.4%p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40.5%)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V-1 반려동물 생활비/목돈 마련 방법 (단위:%)



주) 2023 n=1000, 2025 n=1000

그림V-2 반려동물을 위한 자금 저축·운용 유무 (단위:%)



주) 2023 n=1000, 2025 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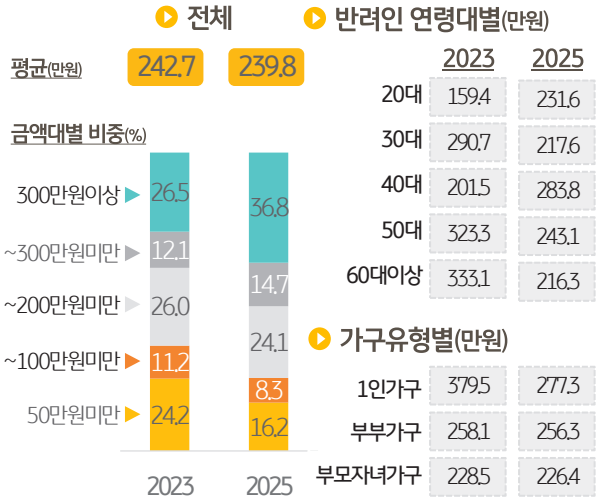
반려동물 전용 운용 자금은 평균 239만 8천 원이고 질병이나 상해 대비 병원비 마련 목적이 많았다

반려동물 전용 운용 자금은 평균 239만 8천 원으로 이전 조사(242만 7천 원)보다 줄었다.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300만원이상' 응답률이 3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0만~200만원미만'(24.1%), '50만원미만'(16.2%) 등의 순이었다. 반려인 연령대별로는 40대가 평균 283만 8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243만 1천 원), '20대'(231만 6천 원)가 뒤를 이었다. 가구 유형에 따라서는 '1인가구'(277만 3천 원), '부부가구'(256만 3천 원), '부모자녀가구'(226만 4천 원) 순이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20대와 4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반려동물 전용 운용 자금 규모가 줄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가구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해(-102만 2천 원)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가구에서 반려동물 운용 자금 여력이 크게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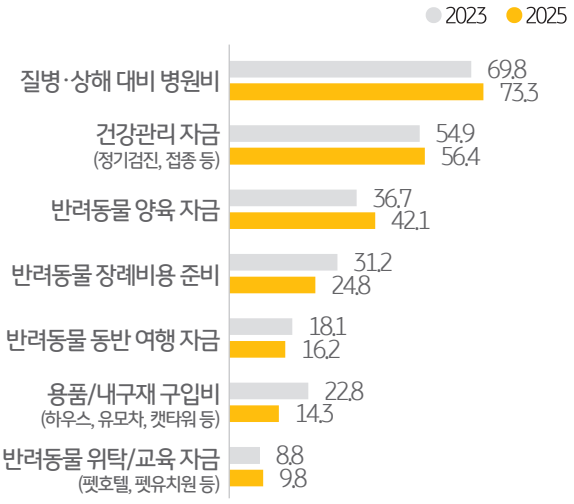
반려가구가 반려동물 전용 자금을 운용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상해 대비 병원비' 마련의 목적이 7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기검진, 접종 등 건강관리 자금'(56.4%), '반려동물 양육 자금'(42.1%)의 순이었다. 증가폭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2023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 외 '반려동물 장례비용 준비'(24.8%), '반려동물 동반 여행 자금'(16.2%), '하우스, 유모차, 캣타워 등 용품/내구재 구입비'(14.3%) 마련 목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는 지난 조사보다 감소했다.

그림V-3 반려동물 전용 운용 자금 규모(저축총액) (단위:만원, %)



주) 반려동물 전용 저축·운용 자금이 있는 경우만 2023 n=215, 2025 n=266

그림V-4 반려동물을 위한 자금 운용 목적 (1+2+3순위, 단위:%)



주) 반려동물 전용 저축·운용 자금이 있는 경우만 2023 n=215, 2025 n=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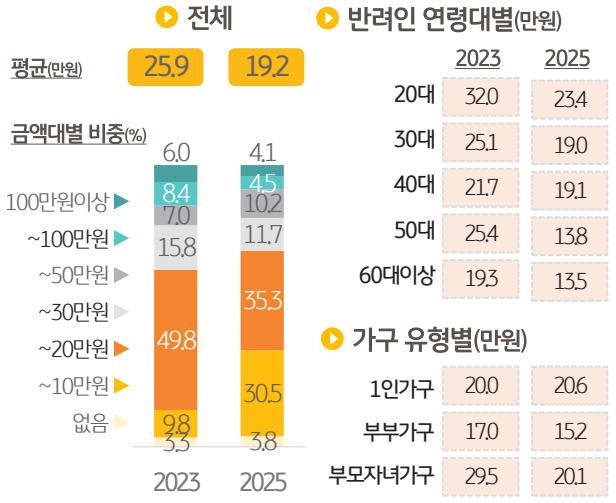
반려동물을 위한 월평균 저축액은 평균 19만 2천원, 금융상품 중 보험 보유율이 가장 높았으나 12.8%였다

반려동물을 위한 월평균 저축액은 19만 2천 원으로 2023년(25만 9천 원) 대비 6만 7천 원이 줄었다. 반려인 연령대별로는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20대가 평균 23만 4천 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40대'(19만 1천 원), '30대'(19만 원), '50대'(13만 8천 원), '60대이상'(13만 5천 원)이 뒤를 이었다. 2023년보다 모든 연령대에서 월평균 저축액이 감소했는데, 특히 '50대'(-11만 6천 원)와 '20대'(-8만 6천 원)에서 크게 감소했다. 가구 유형에 따라서는 '1인가구'(20만 6천 원), '부모자녀가구'(20만 1천원), '부부가구'(15만 2천 원) 순으로 금액이 높았다.

반려가구 36.2%가 반려동물을 위한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었다. 반려동물 유형에 따라서는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57.8%)가 '반려견가구'(34.4%)나 '반려묘가구'(31.9%)에 비해 보유율이 높았고, 반려인 연령대별로는 '20대'(48.0%)와 '30대'(48.1%)가 절반 가까이 금융상품을 보유한 것과는 달리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보유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40대 34.8%, 50대 25.1%, 60대이상 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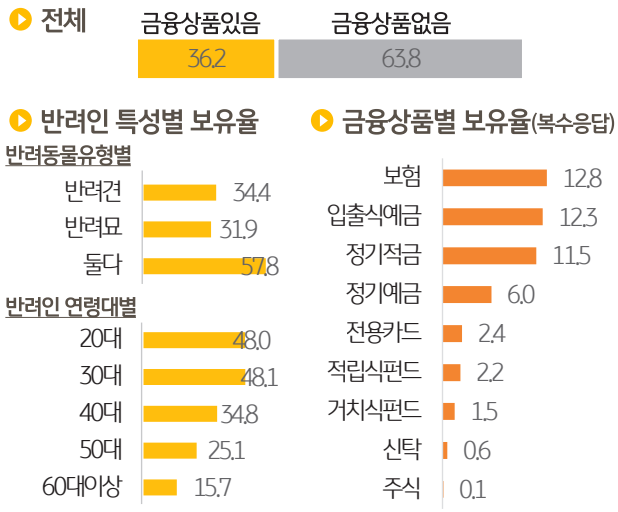
금융상품 종류별로는 '보험'(12.8%)과 '입출식예금'(12.3%), '정기적금'(11.5%)이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이를 연령대별로 나누어보면, 보험의 경우 '20대'(17.3%)의 보유율이 가장 높았고 '40대'(14.7%), '30대'(14.6%)가 그 뒤를 이었다. 입출식예금은 '30대'(14.6%)와 '40대'(13.6%)에서 보유율이 높았고, 정기적금은 '20대'(20.2%)와 '30대'(16.7%)에서 높은 보유율을 보였으며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보유율이 감소했다.

그림V-5 반려동물을 위한 월평균 저축액 (단위:만원, %)



주) 반려동물 전용 저축·운용 자금이 있는 경우만 2023 n=215, 2025 n=266

그림V-6 반려동물을 위한 금융상품 보유현황 (단위:%)



주) 반려가구 전체를 모수로 응답, 2023 n=1000, 2025 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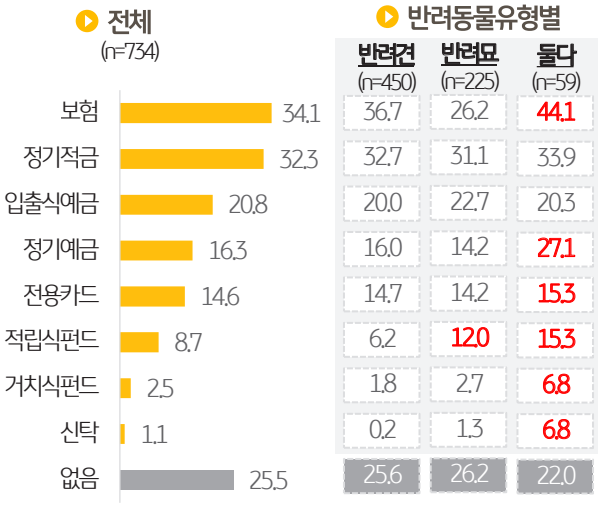
반려동물 전용 자금을 운용하지 않는 가구에서도 34.1%는 '반려동물보험 신규 가입'을 고려했다

현재 반려동물을 위한 자금을 운용하지 않는 반려가구를 대상으로 향후 반려동물을 위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파악해 보았다. 금융상품에 가입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25.5%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금융상품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상품별로는 '반려동물보험'이 34.1%로 가장 많았고 '정기적금'(32.3%), '입출식예금'(20.8%), '정기예금'(16.3%), '전용카드'(14.6%)가 뒤를 이었다. 반려동물 유형에 따라서는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가 대부분의 금융상품 이용의향이 높았는데, 특히 '보험'의 경우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44.1%)가 '반려견가구'(36.7%)나 '반려묘가구'(26.2%)에 비해 압도적으로 이용 의향이 높았다.

반려동물을 위한 자금을 운용하지 않는 반려가구는 향후 반려동물 전용자금을 마련하기위해 평균 4만 8천 원 정도 저축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23.7%)를 제외하면 금액대별로는 '10만원미만'(57.2%), '10만~20만원미만'(15.3%)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 저축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20대가 17.5%로 가장 적었고 평균 저축금액은 6만 2천 원으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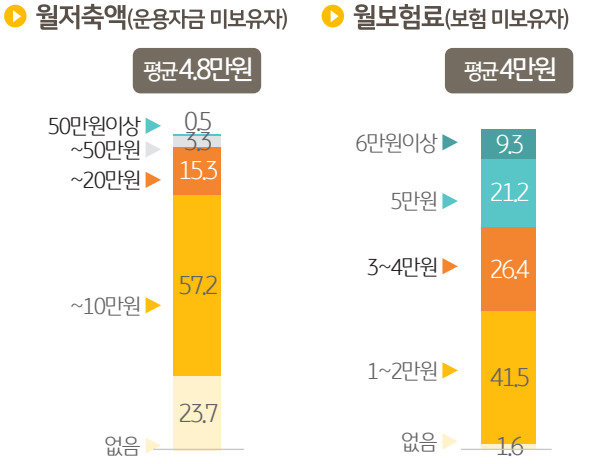
반려동물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반려가구가 생각하는 납입 가능한 월 보험료는 평균 4만 원이었고 금액대별로는 '1만~2만원'(41.5%), '3만~4만원'(26.4%)', '5만원'(21.2%), '6만원이상'(9.3%)의 순이었다. 월 저축액과 마찬가지로 20대의 납입가능한 월평균 보험료 역시 '20대'가 가장 많았고(6만 3천 원), '30대'(4만 1천 원), '40대'(3만 6천 원), '50대'(3만 1천 원), '60대'(3만 원) 순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감내 가능한 금액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V-7 향후 반려동물전용 금융상품 이용의향 (복수응답, 단위:%)



주) 반려동물을 위한 저축·운용 자금이 없는 반려가구만

그림 V-8 향후 반려동물 전용 자금 마련 규모 (단위:만원, %)



주1) 반려동물을 위한 저축·운용 자금이 없는 반려가구만 n=734
주2) 반려동물 보험이 없는 반려가구만 n=734, n=872

02 반려동물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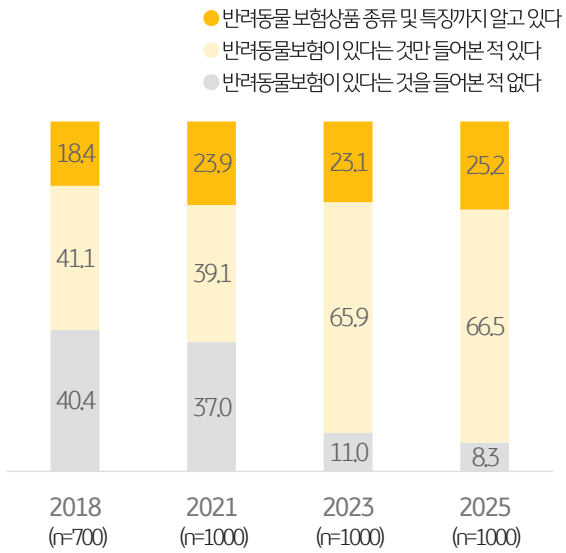
반려가구 91.7%는 '반려동물보험'에 대해 알고 있으나 실제 가입한 가구는 12.8%에 불과했다

백신 접종과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에 힘쓰면서 수명이 연장되고 있으나 반려동물 고령화와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의료비 부담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반려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하는 반려동물보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반려가구 25.2%는 반려동물보험에 대해 상품의 종류나 특징까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 있다'는 반려가구도 66.5%로 2018년 41.1%, 2021년 39.1%, 2023년 65.9%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반려동물보험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는 반려가구는 8.3%로 2018년 40.4%, 2021년 37.0%, 2023년 11.0%에 비해 크게 감소해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반려가구가 반려동물보험을 접한 경로는 '포털사이트 검색'(46.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카페/블로그/커뮤니티'(28.2%), '유튜브'(25.3%), '가족/친구/지인'(24.5%), 'SNS'(22.1%)등의 순이었다. 특히 '유튜브', 'SNS' 통해 알게 된 경우는 크게 증가한 반면, '가족·친구·지인'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감소했다.

그림V-9 반려동물보험 인지도 (단위:%)



그림V-10 반려동물보험 인지 경로 변화 (복수응답,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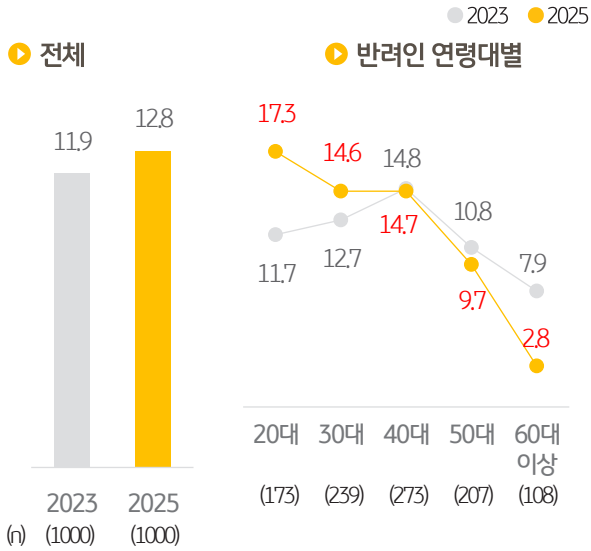
	2023	2025
포털사이트 검색	1 45.1	1 46.9
카페/블로그/커뮤니티 등	4 20.7	2 28.2
TV/라디오	2 25.2	17.4
SNS	5 15.4	5 22.1
신문/잡지	10.6	5.2
펫전용 웹사이트	8.2	10.6
특정앱	8.5	9.2
유튜브	14.8	3 25.3
이메일/문자메시지	6.2	3.4
가족/친구/지인	2 25.2	4 24.5
동물병원	10.9	14.4
펫전문점	6.1	6.4

주) 반려동물 보험을 인지하거나 알고 있는 반려가구만 n=890, n=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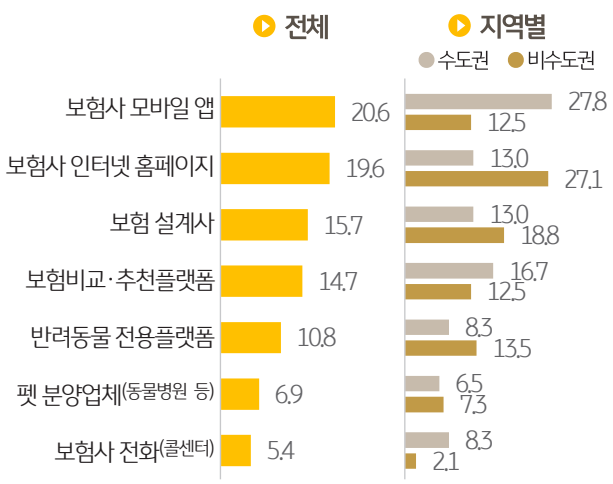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반려가구의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졌지만, 실제로 가입한 경우는 12.8%로 매우 저조했다. 2023년 11.9%와 비교해 가입률은 1%p도 증가하지 않았다. 반려인 연령대별로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큰 차이를 보였는데, 20대가 17.3%로 60대 이상 2.8%에 비해 6.2배 높았다. 그 외 30대와 40대 반려인은 각각 14.6%, 14.7%의 가입률을 나타냈으나, 50대부터 9.7%로 급락했다.

반려가구가 반려동물보험을 가입한 경로는 비대면 채널인 '보험사 모바일 앱'(20.6%)과 '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19.6%)가 약 40%에 이르렀다. 그 외에 '보험설계사'(15.7%), '보험비교·추천플랫폼'(14.7%), '반려동물 전용플랫폼'(10.8%), '동물병원 등 펫 분양업체'(6.9%), '보험사 콜센터'(5.4%)가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큰 항목이 있었는데 비대면 채널에서 보험사 모바일앱을 통한 가입률은 수도권(27.8%)이 비수도권(12.5%)에 비해 높은 반면 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가입률은 비수도권(27.1%)이 수도권(13.0%)에 비해 높았다. '보험설계사', '동물병원/펫 분양업체' 등 대면 채널을 통한 가입률도 비수도권(26.1%)이 수도권(19.5%)에 비해 높았다.

그림V-11 반려동물보험 가입률 (단위:%)



그림V-12 반려동물보험 가입채널(가장 최근 가입기준)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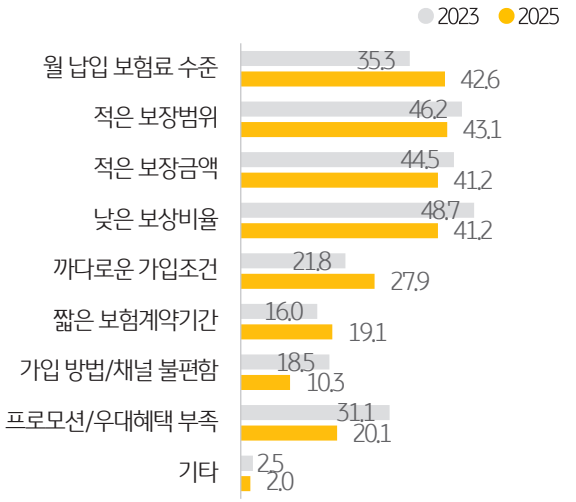
주1) 반려동물 보험 가입 경험자 전체 n=204, 수도권 n=108, 비수도권 n=96
주2) 홈쇼핑, 박람회, 지인 등 5% 미만 응답은 상기 표시 제외(전체 기준)

반려동물보험 가입을 주저하게 하는 저해 요인 1위는 '월 납입 보험료 부담'이었다

가입률이 저조한 반려동물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험의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반려동물에 가입한 반려가구가 실제로 보험을 이용하면서 느낀 주된 불편 사항을 문의한 결과, '적은 보장범위'(43.1%), '월 납입 보험료 수준'(42.6%), '적은 보장금액'(41.2%), '낮은 보상비율'(41.2%)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그 외 '까다로운 가입조건'(27.9%), '프로모션/우대혜택 부족'(20.1%), '짧은 보험계약기간'(19.1%)도 불편 사항으로 토로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월 납입 보험료 수준'(+7.3%p)과 '까다로운 가입조건'(+6.1%p)을 꼽은 응답률이 증가한 반면 '프로모션/우대혜택 부족'(-11.0%p)과 '가입 방법/채널 불편함'(-8.2%p)을 꼽은 응답률은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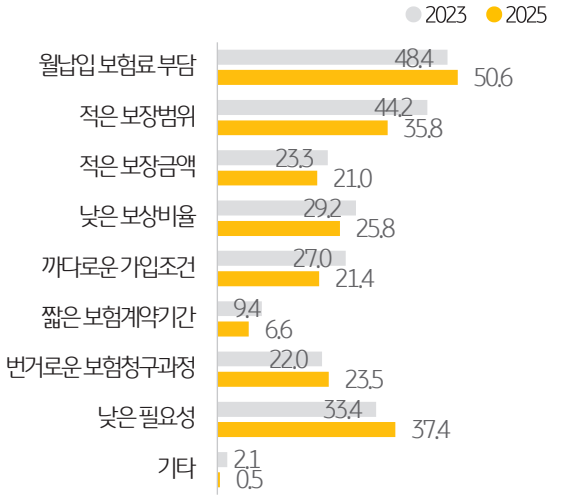
다음으로 반려동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반려가구에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문의한 결과 '월납입 보험료 부담'(50.6%), '낮은 필요성'(37.4%), '적은 보장범위'(35.8%)를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반면 반려동물보험 가입가구가 불편 사항으로 꼽은 '낮은 보상비율'과 '적은 보장금액'을 가입 저해 요인으로 꼽은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2023년과 비교해 '월납입 보험료 부담'(+2.2%p), '낮은 필요성'(+4.0%p)을 답한 응답자는 증가한 반면 '적은 보장범위'(-8.4%p), '낮은 보상비율'(-3.4%p)과 '적은 보장금액'(-2.3%p)을 답한 응답자는 감소했다.

그림V-13 반려동물보험 불만족 사항 (1+2+3순위, 단위:%)



주) 반려동물보험 가입자만 2023 n=119, 2025 n=128

그림V-14 반려동물보험 가입 저해요인 (1+2+3순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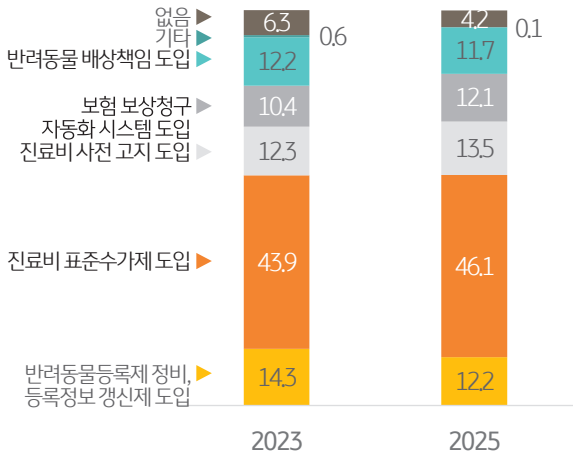
주) 반려동물보험을 알지만 비가입한 가구만 2023 n=799, 2025 n=737

반려동물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진료비 표준 수가제 도입'을 꼽았다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인식은 향상되고 있으나 가입률은 저조한 상황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물었다. 반려가구 46.1%는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다음으로 '진료비 사전 고지 도입'(13.5%), '반려동물 등록제 정비, 등록정보 갱신제 도입'(12.2%), '반려동물보험 보상청구 자동화 시스템 도입'(12.1%) 등의 순이었다. 지난 조사 대비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2.2%p)과 '진료비 사전 고지 도입'(+1.2%p), '반려동물보험 보상청구 자동화 시스템 도입'(+1.7%p) 응답률은 증가한 반면 '반려동물 등록제 정비, 등록정보 갱신제 도입'(-2.1%p) 응답률은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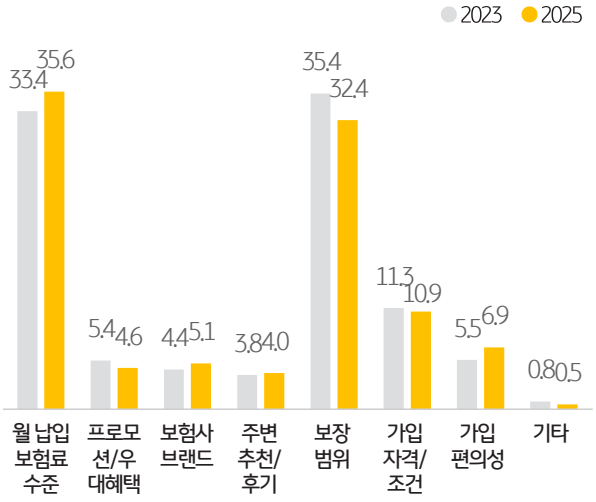
반려가구가 생각하는 반려동물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요인을 문의한 결과, '월 납입 보험료 수준'(35.6%), '보장범위'(32.4%)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입자격/조건'(10.9%), '가입 편의성'(6.9%), '보험사 브랜드'(5.1%) 등이 뒤를 이었다. 2023년 반려동물보험 가입 요인 1위였던 '보장범위'는 3.0%p 하락하며 2위로 떨어졌고 지난 조사에서 2위였던 '월 납입 보험료 수준'은 2.2%p 증가하여 1위로 올라섰다.

그림V-15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 (단위:%)



주) 2023 n=1000, 2025 n=1000

그림V-16 반려동물보험 가입 요인 (1+2+3순위, 단위:%)



주) 2023 n=1000, 2025 n=1000

반려동물 보험 비교(국내)

	KB	DB	메리츠 meritz	삼성 삼성화재
상품명	금쪽같은 펫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펫블리 반려동물보험	무배당 펫퍼민트	무배당 펫보험 (위풍댕댕/의기냥냥)
가입대상	강아지/고양이	강아지/고양이	강아지/고양이	강아지/고양이
모바일앱 보험금청구	O	O	O	O
동물병원 보험금 대리청구	X	X	O	X
반려동물 가입연령	생후 61일~만10세	만 2개월~10세	생후 61일~만10세	생후 61일~만10세
질병	O	O	O	O
상해	O	O	O	O
보상한도액	연간 최대 2,000만원 (보상비율 50%/70%)	연간 최대 2,000만원 (보상비율 50%/70%)	연간 최대 1,500만원 (보상비율 50%/70%)	연간 최대 2,100만원 (보상비율 50%/70%)
배상책임 (반려견)	O 사고당 1천만원 - 자부담 3만원	O 사고당 5백/1천만원 - 자부담 3만원 사고당 2천/3천만원 -자부담 10만원	O 사고당 1천만원 -자부담 3만원	O 사고당 500/1천만원/3천만원~ 자부담 10만
사망	무지개다리위로금 15/30만원 *보상비율 50% 가입 시 100만원 제한	장례지원비 30만원	X	사망위로금 15만원
보험료 할인	동물 등록 할인 다펫 할인 유기동물 입양 할인 *다이렉트 제외	-동물 등록 할인 -유기동물 입양할인	-동물등록 할인 -2~3마리/4마리 이상 가입 시	-동물등록 할인 -2마리 이상 가입 시
갱신기간	1년	1년	1년	1년
인터넷 보험료주) (몰티즈 11개월 기준)	월 27,416~46,861원	월 19,840~40,610원	월 26,430~40,500원	월 6,200~36,839원

주) 인터넷 보험료는 각 보험사 웹사이트를 통한 견적으로 최대 보험기간 설정이나 보장 내용, 보상비율, 보상 세부 내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
(몰티즈 11개월, 견주는 만 34세 남성 회사원 기준으로 산출)

반려동물 보험 비교(해외)

	Nationwide	Fetch	Petplant	Anicom
국가	미국	미국	영국	일본
가입대상	강아지,고양이 기타동물 (앵무새, 토끼, 돼지, 파충류 등)	강아지,고양이	강아지, 고양이, 토끼	강아지, 고양이, 토끼, 앵무새
반려동물 가입연령	플랜별 상이 (일반적으로8주~12세)	6주 이상	6주 이상	일반보험: 7세 11개월 까지 시니어: 8세이상
질병	O	O	O	O
상해	O	O	O	O
웰빙특약	정기검진, 백신 접종 등 보장	정기검진, 백신 접종 등 보장	-	- (연 1회 건강검진 포함)
기저질환 보장	X	X	X	X
보상한도 액	항목별 연간 5천 달러 (평균)	-강아지: 1만5천 달러 -고양이: 1만 달러 - 보상비율 80%	연 4천~1만2천 파운드	-통원,입원: 11만 4천 엔·1만 엔 (각각 연 20일) -수술 14만 엔·1만 엔 (연 2회) -보상비율 70%/50%
배상책임 (반려견)	X	X	O	O(특약)
사망/실종	안락사 또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사망 시 보험금 지급	안락사 또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사망 시 치료비 보상 (연 1천 달러 한도)	-펫로스 상담 전화 지원 -사망보험 특약 3천파운드 -실종 시 전단지 비용 최대 2천 파운드/재회하지 못할 경우 3천 파운드	-
갱신기간	1년	1년	1년 (반려동물 10번째 생일 또는 반려견 7번째 생일 이후 갱신 시 20% 초과액 적용)	1년
보험료 (몰티즈 11 개월 기준)	- 사고&질병 : 월 43.08 달러 - 사고&질병&웰빙:월 66.68 달러	-사고&질병: 월 59.3 달러 - 사고&질병&웰빙: 월 84.33 달러	월 53.88~86.25 파운드	월 3,060~4,050엔

주) 인터넷 보험료는 각 보험사 웹사이트를 통한 견적으로 최대 보험기간 설정이나 보장 내용, 보상비율, 보상 세부 내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
(몰티즈 11개월, 견주는 만 34세 남성 회사원 기준으로 산출)

Key Findings

반려동물 생애 지출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반려가구가 반려동물을 위해 별도 자금을 마련하고 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반려동물 양육자금을 운용하는 가구는 26.6%, 보유 자금은 평균 239만 8천 원이었다.

◎ 반려동물 생활비는 일반 생활비에서 마련(61.4%)하거나 그때그때 준비(13.4%)한다는 반려가구가 대부분을 차지

◎ 반려동물을 위한 전용 자금을 운용하는 가구는 26.6%로 2023년(21.5%)에 비해 5.1%p 증가

◎ 반려동물 운용 자금은 평균 239만 8천원으로 2023년(242만 7천 원)보다 줄었고, 전용 자금을 운용하는 이유 1위는 '질병이나 상해 대비 병원비' 마련의 목적이 73.3%로 가장 많음

반려동물을 위한 월 저축액은 평균 19만 2천 원이고, 금융상품 중 반려동물보험 보유율이 가장 높았다.

◎ 반려동물을 위한 월 저축액은 평균 19만 2천원으로 2023년(25만 9천원)보다 6만 7천원이 감소

◎ 반려동물을 위한 금융상품을 보유한다는 응답률은 36.2%였고 이 중 반려동물보험 보유율(12.8%)이 가장 높음

반려가구 91.7%가 반려동물 보험을 알고 있었으나 가입률은 12.8%에 그쳤다.

◎ 반려가구 25.2%는 반려동물보험에 대해 상품의 종류나 특징까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 있는' 반려가구도 66.5%로 2018년 41.1%, 2021년 39.1%, 2023년 65.9%에 비해 크게 증가

◎ 반면 반려동물보험에 가입한 반려가구는 12.8%로 2023년 가입률(11.9%)과 비슷한 수준

반려가구는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을 보험 활성화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 현재 반려동물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반려가구가 반려동물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는 '월납입 보험료 부담'(50.6%), '낮은 필요성'(37.4%), '적은 보장범위'(35.8%) 등의 요인 때문

◎ 반려가구는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46.1%)을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각

반려동물보험의 인지도에 비해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반려동물을 가입하지 않은 반려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이유를 질문해 보았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50.6%가 '월 납입 보험료 부담'을 꼽았고, 다음으로 '낮은 필요성'(37.4%), '작은 보장 범위'(35.8%) 등의 순이었다.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이 정체된 상황에서 반려동물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질문해 보았다. 반려가구 46.1%가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는 적정 보험료 산정을 통해 보험료 부담이 일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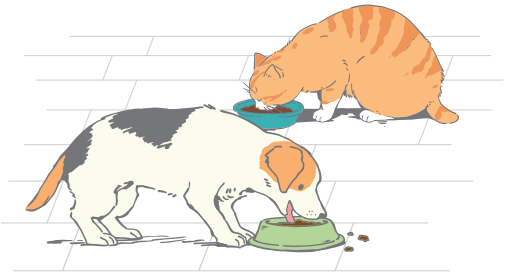
VI

[이슈1] 반려가구의 펫로스 관리

01 | 펫로스 경험

02 | 펫로스증후군 경험

03 | 펫로스증후군 극복 방법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시간은 다른 속도로 흘러간다. 반려동물의 평균수명은 과거에 비해 10~15년 정도 늘어났지만 반려인보다는 여전히 짧은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많은 반려인은 가족의 일원인 반려동물을 먼저 떠나보낸 후 슬픔, 우울감, 상실감 등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한다. 미국수의학협회(AVMA)는 이 같은 슬픔이 인간의 가족이나 친구를 잃은 후 겪는 슬픔에 맞먹을 정도로 강렬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반려인은 1,546만 명으로 총 인구의 29.9%를 차지한다. 국민 10명 중 3명이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도 반려동물과의 이별, 곧 펫로스(Pet Loss)로 인한 극도의 상실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었다. 이 같은 이별 후유증이 개인의 심리적 고통을 넘어 사회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관련 연구 및 상담 서비스 역시 활발해지는 추세다.

본 장에서는 반려가구가 경험한 펫로스 경험을 둘러싼 심리적 증상부터 사회적 인식 및 주변 반응, 이별 회복 시간 및 방법, 사회적 지원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짚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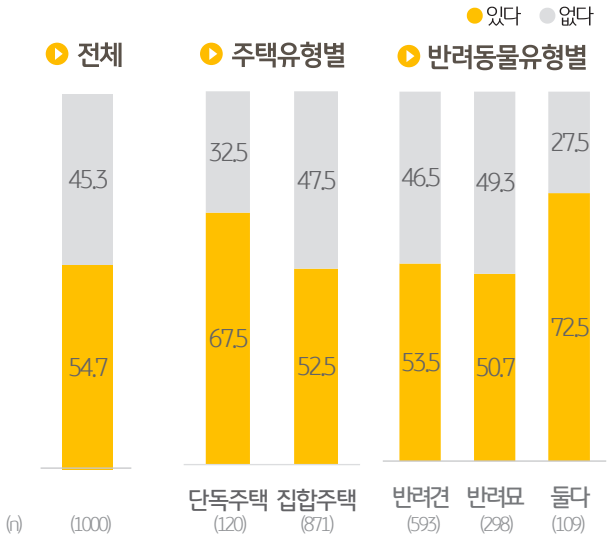
01 펫로스 경험

반려가구 54.7%는 반려동물과 이별한 경험이 있었고, 가장 흔한 사유로는 '노환, 질병 등으로 인한 자연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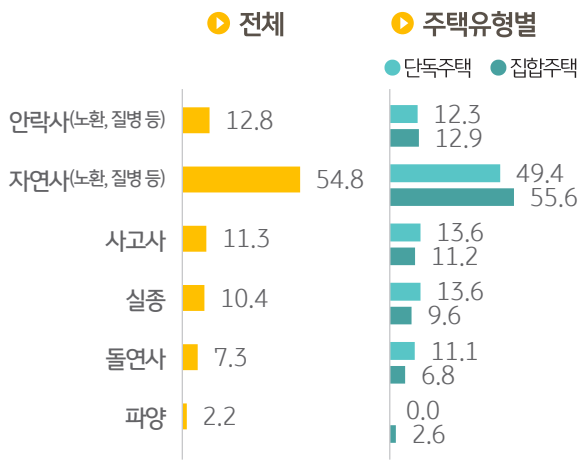
'펫로스'란 반려동물을 의미하는 '펫(Pet)'과 상실, 죽음을 의미하는 '로스(Loss)'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이 죽은 뒤 경험하는 상실감·우울감 등의 감정과 동의어로 혼용되기도 하나 여기서는 글자 그대로 '반려동물과의 이별' 경험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반려가구 54.7%는 펫로스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반려동물유형별로는 반려견과 반려묘를 둘 다 기르는 가구(72.5%)에서 반려견가구(53.5%) 및 반려묘가구(50.7%) 대비 더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경험한 반려가구를 대상으로 펫로스 사유를 질문한 결과, 절반 이상(54.8%)은 '(노환, 질병 등으로 인한) 자연사'를 원인으로 답했고 이어 '(노환, 질병 등으로 인한) 안락사'(12.8%), '사고사'(11.3%), '실종'(10.4%) 등의 순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67.5%) 거주자의 펫로스 경험이 집합주택(52.5%) 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집합주택의 경우 '자연사'(55.6%)가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단독주택의 경우 '사고사', '실종', '돌연사' 등의 경험 역시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Ⅵ-1 펫로스 경험 유무 (단위:%)



그림Ⅵ-2 펫로스 사유(가장 최근 경험) (단위:%)



주1) 펫로스 경험자 전체 n=547, 단독주택 n=81, 집합주택 n=457
주2) 분양/입양, 이사 등 1%미만 소수 의견은 상기 제외

펫로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 부족한 편이며, 특히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 공감 수준 차이가 컸다

반려동물과의 이별은 때로는 가족을 잃은 것에 비견할 만한 깊은 상실감을 가져다준다. 이런 점에서 반려동물과 이별을 경험한 반려가구를 대상으로 펫로스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과 주변 반응에 대해 질문해 보았다.

표적집단심층면접을 통해 펫로스를 겪은 반려인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질문한 결과,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가한 편이나 펫로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조사에 참여한 한 여성은 "요즈음은 10년 전보다 공감해 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펫로스에 대해) 약간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다수 참여자의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공감을 받지 못했던 것 같다"거나 "이해를 바라지도 않고 내가 힘들어할 때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엄청 힘들었는데 부모님이 아예 언급을 못 하게 해서 더 힘들었고, 어디다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었다)"와 같이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반응이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 공감 수준의 차이 역시 상당했다. 한 참여자는 "아쉬운 점은 이런 심정을 나눌 데가 없다는 거"라며 "이런 힘든 마음이 강아지를 기르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해 안 되는 것들이고,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한테도 일부에게는 너무 유난 떠는 것처럼 보이고 해서요"라고 공감을 받지 못한 경험을 토로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개를 키워서 결혼을 못하는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중략) 강아지가 나한테는 가족이고 동생일 수 있는데... 존중하지 않는 시각이 있다"고도 했다. 한편 남성 참여자 중 일부는 "남자들은 T인 경우도 많아서 유난이라는 반응이 많다"거나 장례비용 지출에 공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림VI-3 펫로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주변 반응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가, 그러나 펫로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관련 지원은 미흡

"반려동물을 떠나 보냈다는 거에 대해서 동물 안 키워본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렇다 보니까 잘 얘기 안 하게 돼요. 어떻게 생각할지는 아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공감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해도 바라지 않고 내가 힘들어 할 때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반려인-비반려인의 펫로스에 대한 공감 수준차가 크고, 특히 일부 남성에서 동물권 감수성이 다소 부족

"반려동물을 물건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서 '죽으면 '한 마리 더 데려 와', '아 그래 죽었구나' 이 느낌이라 차이가 심한 것 같아요."

"개를 키워서 결혼을 못하는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인생은 굉장히 다양하고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도 인생인데 강아지가 나한테는 가족이고 동생일 수 있는데...존중하지 않는 시각이 있어요."

"주변에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 없기도 하고 남자들은 T인 경우도 많아서 유난이라는 반응이 많아요."

"여자친구랑 같이 키우던 말티즈가 죽었는데 저는 산에 묻자고 했고 여자친구는 화장을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순간적 감정때문에 30만원 썼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 펫로스를 경험한 반려인대상 표적집단심층면접(FGD)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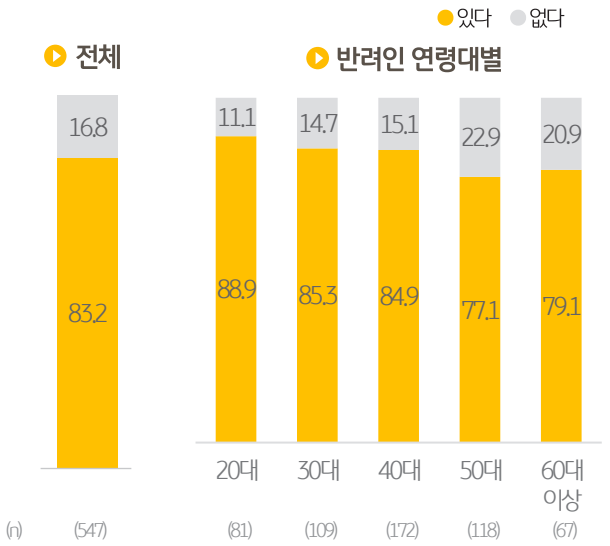
02 펫로스증후군 경험

반려동물과의 이별 이후 83.2%는 우울감을 경험했으며,
16.3%는 '펫로스증후군' 극복까지 1년 이상 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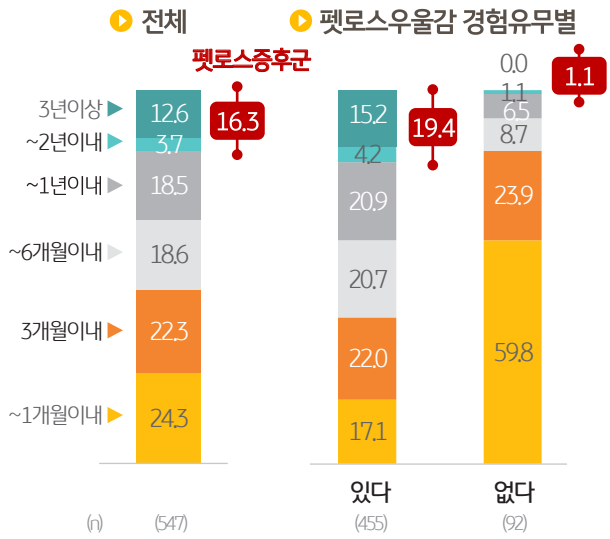
흔히 반려동물과의 이별 이후 겪는 상실감·우울감 등의 심리적 고통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태를 '펫로스증후군(Pet Loss Syndrome)'이라 일컬으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단 체계에 포함되는 공식적인 진단은 아니다. 여기서는 국내외 연구 사례를 참고하여 '사별 이후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불편을 주는 슬픔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속성 애도장애(Prolonged Grief Disorder, PGD)'의 진단 기준을 적용해 펫로스증후군을 정의했다.

펫로스를 경험한 반려가구 83.2%는 그로 인한 상실감·우울감을 겪었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88.9%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85.3%), 40대(84.9%), 60대 이상(79.1%), 50대(77.1%) 순이었으며, 이들 중 16.3%는 이 같은 심리적 고통을 1년 이상 느낀(펫로스증후군) 것으로 조사됐다. 펫로스 증후군 경험률은 펫로스 후 실제로 상실감·우울감(펫로스 우울감)을 겪었다고 답한 반려인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중 5분의 1(19.4%)이 이를 극복하기까지 1년 이상이 걸렸다고 답했다.

그림VI-4 펫로스 우울감 경험 유무(펫로스경험자) (단위:%)



그림VI-5 펫로스 우울감 극복 기간(최근 펫로스 경험) (단위:%)



펫로스 후 반려인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증상은 '더 잘 돌봐주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후회'였다

반려동물과 이별 이후 반려인들이 겪은 증상과 우울감을 경험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펫로스를 경험한 반려인들이 가장 많이 겪은 증상으로는 '돌봄 부족에 대한(더 잘 돌봐주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후회'(71.5%)로 나타났고, '무기력하거나 우울한 기분'(48.6%), '지속적인 슬픔'(45.2%) 역시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불면증 또는 과도한 수면 등) 수면문제'(12.2%), '불안감'(11.9%), '(식욕 감소 또는 과도한 식욕 증가와 같은) 섭식 문제'(8.6%)와 '안락사 결정에 대한 죄책감'(8.6%) 등의 감정 역시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펫로스 우울감을 경험한 반려인들의 경우 모든 증상에 대한 응답률이 일반 반려인들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다 다.

표적집단심층면접(FGD)을 통해 확인된 펫로스 우울감의 사례는 다양했다. 조사에 참여한 한 남성은 "문을 열자마자 일단 우울해요... 반겨주는 애가 없으니까요"라고 말했고, 다른 참여자는 "솔직히 지금도 컨트롤은 조금 되고 있으나 펫로스는 항상 슬픔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아지를 뒷산에 뿌리고 나서, 보고 싶으니까 맨날 밤마다 그 산을 가서 혼잣말을 하곤 했어요"라며 우울감과 슬픔에 대한 감정을 드러냈다. 또한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커서 공황장애처럼 찾아왔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비가 와도 창문을 열고 있었고, 3개월 정도를 문을 아무 데도 못 닫았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막 가슴도 쳐보고...", "저도 받아들이지 못해서... 제가 유골까지 봤는데 집에 가면 있을 것 같아서... (중략) 아침에도 일어나면 항상 걔가 있던 자리를 저도 모르게 무의식중에 가는 거예요"와 같이 이별 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는 경험담도 접할 수 있었다.

그림VI-6 펫로스 후 경험했던 증상 (복수응답, 단위: %)

	펫로스경험자 (n=547)	펫로스우울감 경험자 (n=455)
돌봄 부족에 대한 자책/후회	71.5	72.3
무기력/우울감	48.6	55.2
지속적인 슬픔	45.2	51.4
수면문제(불면증, 과도한 수면 등)	12.2	13.8
불안감	11.9	14.3
섭식문제(식욕 감소, 폭식 등)	8.6	10.1
안락사 결정에 대한 죄책감	8.6	9.7
안도감(고통에서 벗어남)	6.8	7.7

그림VI-7 펫로스 우울감 경험 사례

50대/반려견 "문 열자마자 일단 우울해요... 반겨주는 애가 없으니까요."

40대/반려견 "지금도 컨트롤은 조금 되고 있으나, 펫로스는... 항상 슬픔이 남고...강아지를 뒷산에 뿌리고 나서, 보고 싶으니까 매일 밤마다 그 산을 가서 혼잣말을 하곤 했어요."

50대/반려견 "펫로스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극복될 거라고 하는데 극복이 아니라 묻어두게 되는 것 같아요. 한 3,4개월 동안 계속 울면서 보냈어요."

30대/반려견 "저도 받아들이지 못해... 분명히 제가 유골까지 봤는데 집에 가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계속...그런데 집에 가면 없고...아침에도 일어나면 항상 걔가 있던 자리를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가는 거예요."

주) 펫로스를 경험한 반려인대상 표적집단심층면접(FGD) 결과

03 펫로스증후군 극복 방법

펫로스 경험자가 꼽은 가장 주효한 극복 방법은 '충분한 애도 기간을 통한 자연스러운 감정 관리'였다

미국수의학협회(AVMA)는 펫로스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려동물이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하기', '슬픈 감정을 충분히 느끼기', '반려동물과의 추억 떠올리기', '반려동물이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 되새기기', '다른 사람과 감정 공유하기'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실제로 펫로스를 경험한 반려인들에게 펫로스 우울감 극복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충분한 애도 기간을 통한 자연스러운 감정 관리'(53.6%)가 도움이 됐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가족·지인으로부터의 공감과 위로'(42.4%), '새로운 반려동물의 입양'(33.3%), '동일한 경험이 있는 반려인과의 소통 및 교감'(21.6%), '커뮤니티를 통한 경험 사례 공유 및 습득'(16.3%) 등이 뒤를 이었다.

표적집단심층면접(FGD)을 통해 들어본 펫로스 우울감 극복 사례 역시 이와 유사했다. 대체로 "아이 이름으로 된 나무를 심고 농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는 등 다른 것에 관심을 쏟은 경험과 "49제", "이별 노트를 만들어 (중략) 거기에 치미는 슬픔을 쏟아내며" 충분한 애도 기간을 갖은 경험, 또한 "가족끼리 대화하고 스스로 위로하며" 함께 추억한 시간들이 이별 회복 방법으로 주효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림VI-8 펫로스 극복 방법(펫로스우울감 경험유무별) (단위:%)

	펫로스경험자 (n=547)	펫로스우울감 경험자 (n=455)
충분한 애도 기간(자연스러운 감정 관리)	53.6	54.7
가족·지인으로부터의 공감·위로	42.4	45.3
새로운 반려동물의 입양	33.3	33.6
같은 경험 반려인과의 소통·교감	21.6	24.4
커뮤니티를 통한 사례 공유·위로	16.3	18.0
반려동물을 추억할 수 있는 물건 보관	15.0	16.5
전문 상담·심리치료(전문 센터, 의료기관)	6.9	7.9
유기동물 임시보호	5.5	6.4

그림VI-9 펫로스 우울감 극복 사례

50대/반려견: 아이 이름(뽀뇨나무)으로 된 나무를 심고 농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어요... 올해 2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데, 많이 치유가 됐어요. ."

30대/반려견: "강아지가 있을 것 같아서 힘들었는데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49제가 도움이 됐어요. 그 기점으로 괜찮았어요"

30대/반려묘: "우리 뽀또가 이거 좋아했는데 이러면서 가족끼리 얘기도 하고...원래 그런 거는 속에 담아둘수록 썩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스스로 위안하고 가족끼리 대화를 통해서 극복했던 것 같아요."

40대/견&묘: "이별 노트를 만들어서 아이 사진을 붙이고 거기에 불쑥 치미는 슬픔을 쏟아냈어요. 한참 적다보면 마음이 정리되고요. 아이 사진을 보며 슬픔과 마주했던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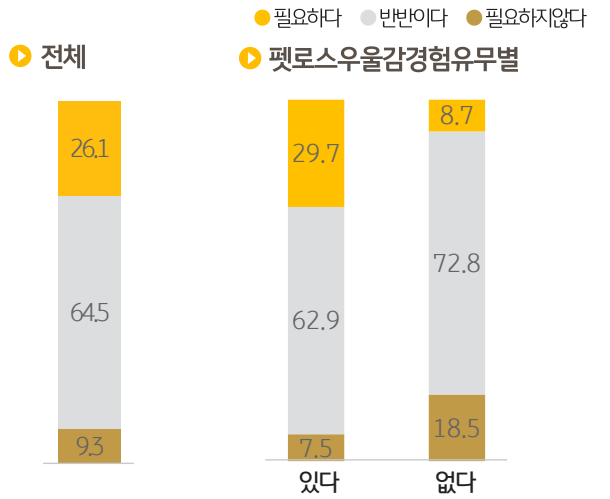
주) 펫로스를 경험한 반려인대상 표적집단심층면접(FGD) 결과

반려인의 4분의 1은 펫로스 전문심리치료를 필요로 했고, ‘펫로스 상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등의 제도적 지원을 요구했다

앞서 반려동물과 이별 이후 겪은 상실감·우울감을 극복하기까지 충분한 애도 기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감정을 관리하고 가족과 지인의 공감과 위로를 받는 등 심리적 치유 과정이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펫로스로 인한 심리적 고통과 관련해 오프라인 심리상담센터 및 온라인 심리상담 플랫폼, 의료기관 등 전문가를 통한 상담 및 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는 의견이 26.1%였고 대다수(64.5%)는 ‘반반이다’라고 답하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펫로스 우울감 경험 여부에 따라 전문심리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를 보였다(펫로스 우울감 경험 반려인 29.7% vs. 비경험 반려인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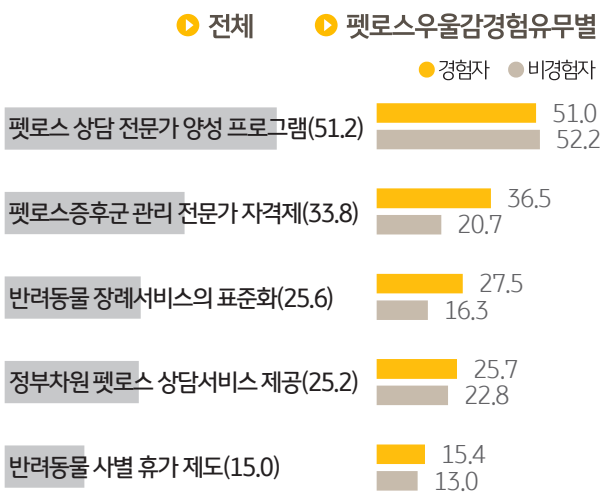
이들이 펫로스 우울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제도적 지원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펫로스 상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51.2%)과 ‘펫로스 증후군 관리 전문가 자격제’(33.8%)가 펫로스 우울감 경험 유무와 무관하게 가장 응답률이 높았다. 표적집단심층면접(FGD)을 통해서도 “저와 저의 아이를 잘 알던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존엄성 관련 내용과 약처방을 함께 받았는데 도움이 되었다”거나 “공감이 있는 분이고 전문가라면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는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반려동물 장례서비스의 표준화’(25.6%), ‘국가보험 등 정부차원 펫로스 상담서비스 제공’(25.2%), ‘반려동물 사별 휴가 제도’(15.0%) 역시 언급했으며, 대체로 펫로스 우울감을 경험한 반려인들이 이 같은 제도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한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VI-10 펫로스 전문치료 필요성 (단위:%)



주) 펫로스 경험자만 n=547, 펫로스우울감 경험자 n=455, 비경험자 n=92

그림VI-11 펫로스 우울감 관련 제도적 지원 (복수응답,단위:%)



주) 펫로스 경험자만 n=547, 펫로스우울감 경험자 n=455, 비경험자 n=92

해외 펫로스 관리 서비스 앱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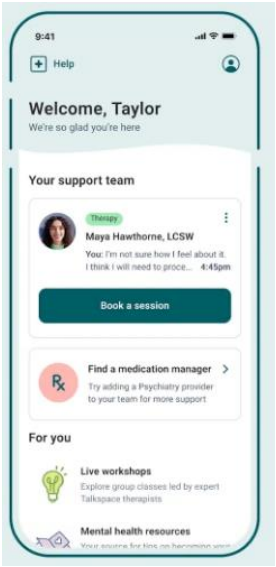
미국 베터헬프(BetterHelp)

- 2013년 설립되어 정신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 플랫폼으로 미국,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상담 관련 학위와 최소 3년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3만명 이상의 심리치료사와 연결
- **[서비스]** 펫로스를 겪은 사람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우울증, 불안, 강박, 트라우마, 부부상담, 자녀상담 등 다양한 분야의 정신상담 서비스를 다룸
- **[차별점]** 상담 전 설문지 작성을 통해 개인의 선호도 및 취향을 파악한 후 니즈에 따라 공인된 자격을 보유한 치료사와 연결되고 무제한 문자, 영상, 음성메세지 전송 등이 포함
- **[비용]** 주당 60달러에서 90달러(4주마다 청구) 치료사의 경력에 따라 다양
- **[평가]** 앱스토어 상담치료 플랫폼 1위 및 1백만건 이상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 평점도 4.8점(14만2천명)으로 높은 점수를 받음

자료: BetterHelp

미국 톡스페이스(Talkspace)

- 뉴욕에 본사를 둔 온라인 심리치료회사로 2012년 설립 이후 웹사이트나 모바일 웹을 통해 상담치료사 또는 정신과의사와 연결하여 심리상담 또는 약물 치료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 펫로스뿐 아니라 커플 치료, 정신 상담, 청소년 치료 등 다양한 분야 상담 서비스를 제공. 의사 및 간호사와의 정신과 상담의 경우 대면과 동일하게 약물을 처방(규제 약물 제외)하고 아마존 약국 서비스를 통해 배송
- **[차별점]** 미국내 다수의 보험사와 제휴하여 보험에서 보장가능한 온라인 심리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
- **[비용]** 심리상담서비스(메시지 상담: 주당 69달러, 비디오+메시지 상담: 주당 99달러, 비디오+메시지+워크숍: 주당 109달러)·정신과 상담의 경우(회당 초진 299달러, 후속 175달러)
- **[평가]** 미국 내 1백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 실제 상담 이용 후기도 긍정적



자료: Talkspace

해외 비영리단체의 펫로스 관리 서비스 사례

미국 펫로스 및 이별 협회(Association for Pet Loss and Bereavement)

- 펫로스 슬픔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지닌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비영리 자선단체. 1997년 월리스 시프(Wallace Sife) 박사가 반려견을 떠나보낸 후 설립했으며 1999년부터 비영리 자선단체로 운영 중
- **[펫로스 무료 상담]** 숙련된 자원봉사자인 반려동물 상실 슬픔 전문가가 온라인 그룹 채팅 플랫폼을 통해 무료예약 및 실시간 상담을 제공 (멤버십 등급에 따라 비디오 상담을 차등 지원)
- **[추모 기념관]** 멤버십 회원의 경우 반려동물 기일에 추모사진 옆 촛불이 30일 동안 켜져 유가족과의 추억을 기림
- 이밖에도 안락사 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 반려동물을 떠나기 전부터 느끼는 슬픔, 추천 도서 등 펫로스 관련 정보를 제공

자료: Association for Pet Loss and Bereavement

영국 블루크로스(Bluecross)

- 1897년 설립된 자선단체로 아프거나 다친 동물, 유기동물을 돕는 일부터 시작해 런던 최초의 동물병원을 개원한 역사를 보유
- **[펫로스 무료 상담]** 교육받은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반려동물 상실 지원팀과 전화, 이메일, 실시간 채팅으로 펫로스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 **[반려동물 양육 관련 정보]** 반려동물 건강, 입양 시 고려사항, 웰빙과 케어, 행동 및 훈련, 작별인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
- **[유기동물 입양]** 임시보호중인 반려동물 소개, 신청서 접수 후 합격한 사람에 한해 반려동물을 만나고 입양할 수 있음
- **[저렴한 동물병원 진료]** 저소득층 등 특정조건 부합하는 경우 블루크로스가 운영하는 동물병원 진료를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음
- **[반려동물 사료은행]** 저렴한 가격의 반려동물 건식/습식 사료를 제공

자료: Bluecross

Key Findings

**반려가구 83.2%가 반려동물과 이별 이후 우울감을 경험한 가운데,
'충분한 애도 기간'을 가지며 자연스럽게 이별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반려가구 54.7%는 반려동물과 이별을 경험했으며, '자연사'로 인한 펫로스가 가장 많았다.

◎ 반려가구 54.7%는 펫로스를 경험. 펫로스는 반려동물의 '펫(Pet)'과 상실·죽음의 '로스(Loss)' 합성어

◎ 가장 빈번한 펫로스 사유는 '노환, 질병 등으로 인한 자연사'(54.8%)이고, '노환, 질병 등으로 인한 안락사'(12.8%), '사고사'(11.3%), '실종'(10.4%), '돌연사'(7.3%)가 그 뒤를 이음

◎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가했으나, 펫로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여전히 미흡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공감 수준 차이가 크다는 것이 반려인들의 인식

펫로스 후 83.2%는 우울감을 경험했고, 구체적으로는 '자책감과 후회'를 가장 많이 느꼈다.

◎ 펫로스를 경험한 반려가구 83.2%는 그로 인한 상실감·우울감에 시달렸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우울감 경험률이 높은 편(20대 88.9%, 30대 85.3% vs. 50대 77.1%, 60대 이상 79.1%)

◎ 펫로스 상실감에 시달린 이들 중 16.3%는 이같은 심리적 고통을 1년 이상 느낀(펫로스증후군) 것으로 조사

◎ 펫로스를 경험한 반려인들이 가장 많이 겪은 증상은 '더 잘 돌봐주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후회'(71.5%)였고, '무기력하거나 우울한 기분'(48.6%), '지속적인 슬픔'(45.2%), '불면증 또는 과도한 수면 등의 수면문제'(12.2%), '불안감'(11.9%), '식욕 감소 또는 과도한 식욕 증가와 같은 섭식 문제'(8.6%)와 '안락사 결정에 대한 죄책감'(8.6%)의 순

펫로스 경험자의 이별 극복 방법 1위는 '충분한 애도 기간을 통한 자연스러운 감정 관리'였다.

◎ 펫로스 경험 반려인들이 꼽은 펫로스 우울감 극복 방법 1위는 '충분히 아파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애도 기간을 통한 자연스러운 감정 관리'(53.6%)였고, '가족·지인의 공감과 위로'(42.4%), '새로운 반려동물의 입양'(33.3%), '동일한 경험이 있는 반려인과의 소통 및 교감'(21.6%) 등도 언급

◎ 펫로스 경험 반려인 26.1%는 펫로스로 인한 심리적 고통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심리치료를 필요로 했고, '펫로스 상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51.2%)과 '펫로스 증후군 관리 전문가 자격제'(33.8%) 등의 제도적 지원을 희망

반려가구 54.7%는 '자연사'(54.8%), '안락사'(12.8%), '사고사'(11.3%) 등 반려동물과의 이별, 곧 펫로스를 경험했다. 이들 중 83.2%는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었고, 이 같은 심리적 고통을 1년 이상 느낀(펫로스증후군) 반려가구도 16.3%에 달했다. 펫로스 이후 가장 많이 겪은 증상은 '자책감과 후회'(71.5%)였고, '무기력·우울감'(48.6%), '지속적 슬픔'(45.2%) 등도 많았다. 이들은 '충분한 애도 기간을 통한 자연스러운 감정 관리'(53.6%), '가족·지인의 공감과 위로'(42.4%), '새로운 반려동물의 입양'(33.3%) 등을 통해 이별 과정을 견뎌냈고, '펫로스 상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51.2%)과 '펫로스 증후군 관리 전문가 자격제'(33.8%) 등의 제도적 지원 역시 희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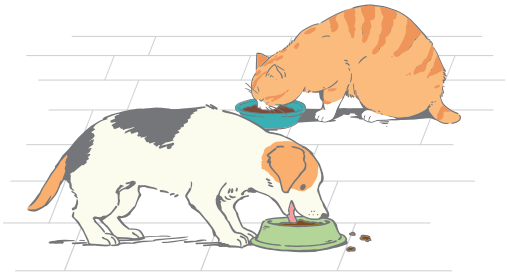
VII

[이슈2] 반려동물 비만 관리

01 | 반려동물 비만 진단

02 | 반려동물 비만 관리의 중요성

03 | 반려동물 비만 대응



주변에서 '뚱냥이', '뚱스키' 등의 애칭으로 불리는 반려묘나 반려견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은 비만한 반려동물을 통통하다며 관대하게 넘긴다. 전 세계적으로도 반려동물의 비만 수치는 꾸준히 상승해, 미국반려동물제품협회(APPA)는 <2024년 고양이와 강아지 보고서(2024 Cat & Dog Report)>에서 수의사가 진단한 고양이와 강아지의 비만율이 2018년 각각 11%, 8%에서 2024년 각각 17%, 12%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수의사 진단과는 무관하게, 미국반려동물비만예방협회(APOP)는 2022년 미국 내 반려견의 59%, 반려묘의 61%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앞서 2장, 3장을 통해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반려인의 적극적인 노력과 높은 건강관리에 관한 관심을 확인한 바 있다. 이처럼 최근 반려동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만 관리가 반려인들의 중요한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특수 사료와 웨어러블 목걸이, 앱 기반 급식 시스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비만 측정 앱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반려동물의 비만 진단부터 그 중요성과 관리 방법까지 반려동물의 비만 관리에 대한 반려인의 인식과 대응 노력 등을 엿보고자 한다.

01 반려동물 비만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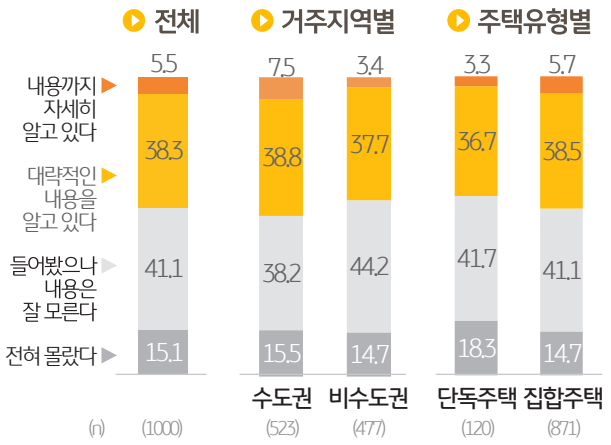
반려동물 비만 진단 기준이나 '눈바디' 추정 방법에 대해 반려가구의 절반 정도가 알고 있었다

최근 반려동물의 건강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 비만 관리'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비만 관리의 첫걸음은 '비만 진단'이라 할 수 있는데, 반려인들은 그 기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질문해 보았다.

먼저 체중으로 '비만'과 '고도비만'을 판단하는 비만 진단 기준에 대해서는 반려가구 중 43.8%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거나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런 진단 기준은 '수도권'(46.3%)에 거주하거나 '집합주택'(44.2%)에 거주하는 반려가구가 상대적으로 인지도 수준이 높았다. 육안으로 비만 정도를 가늠하는 '눈바디' 비만 간이 추정 방법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반려가구 중 48.2%는 이런 추정 방법을 '대략적으로 또는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수도권'(51.3%)이나 '집합주택'(49.2%)에 거주하는 반려인일수록 더 잘 알고 있었다. 이는 도시나 아파트와 같은 집합주택에 거주하는 반려동물의 경우 상대적으로 활동 공간이 좁은 경우가 많아 반려인의 비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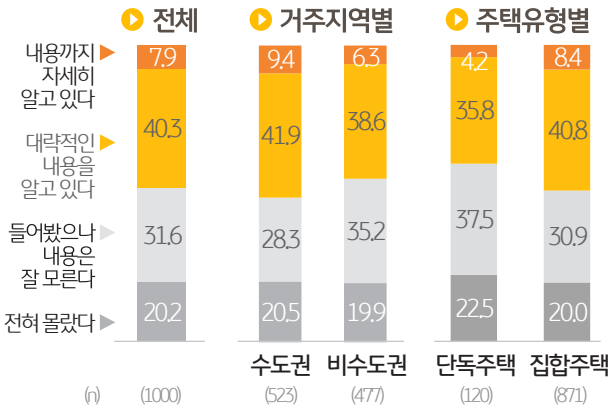
그림Ⅶ-1 반려동물 비만 진단 기준에 대한 인지도 (단위:%)

[비만 진단 기준]
- '비만' : 정상 체중보다 20% 이상 과체중인 경우
- '고도비만' : 정상 체중보다 40% 이상 과체중인 경우



그림Ⅶ-2 반려동물 비만 추정 방법에 대한 인지도 (단위:%)

[비만 간이 추정 방법]
- 배를 안았을 때 갈비뼈를 찾기 힘들거나 만져지지 않는 경우
- 옆에서 볼 때 가슴보다 배가 더 튀어나와 있는 경우
- 위에서 내려다 볼 때 허리둘레가 가슴둘레와 같거나 더 큰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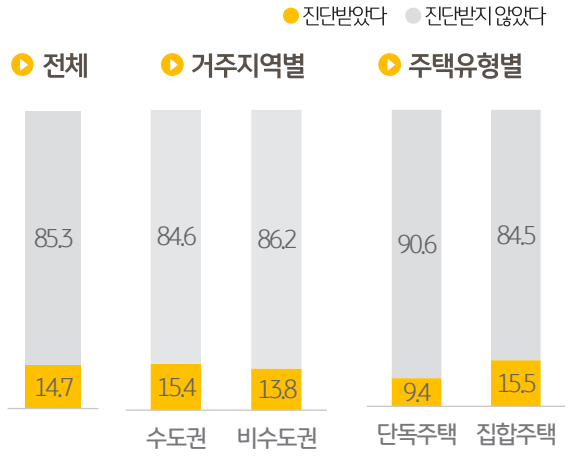
비만 관리가 필요한 반려동물은 전체의 14.7%, 요크셔테리어와 치와와, 포메라니안은 20% 이상이 비만이었다

반려동물의 '체중'을 활용한 비만 진단 기준과 '눈바디' 비만 간이 추정 방법을 대략적으로 알거나 잘 알고 있는 반려인은 절반 미만이었다. 상당수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통통하고 귀엽다고 여기며 비만에 관대한 나머지 수의사의 '비만 판정'과 비만이 건강의 적신호로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을 통해 그 심각성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려동물 중 '수의사의 비만 판정'을 받은 경우는 14.7%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비수도권'보다 '수도권',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보다 '집합주택'에 거주하는 반려동물이 비만 판정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특히 활동 공간이 좁은 집합주택에 사는 반려동물의 수의사 비만 판정률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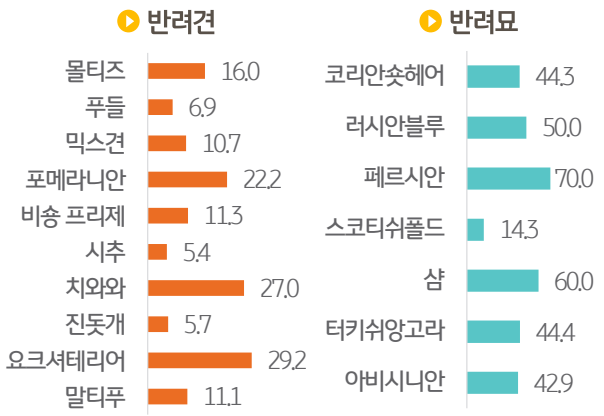
한국인이 선호하는 반려견과 반려묘의 각각 10개 품종에 대해서도 비만율을 산출해 보았다. 비만율은 품종별로 전체 개체수 중 수의사의 비만 판정을 받은 개체수 비중으로 계산했다. 먼저 반려견은 '요크셔테리어'(29.2%), '치와와'(27.0%), '포메라니안'(22.2%)이 20% 이상의 높은 비만율을 보였고, '몰티즈'(16.0%), '비숑 프리제'(11.3%), '말티푸'(11.1%), '믹스견'(10.7%)이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반려묘는 '페르시안'(70.0%), '샴'(60.0%), '러시안블루'(50.0%) 등의 순으로 '스코티시폴드'(14.3%)를 제외한 나머지 5종은 40% 이상의 높은 비만율을 보였다. 반려묘는 외출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동물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수의사의 비만 판정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66.7%) 비만 판정을 받은 반려묘의 비만율이 높은 것으로 생 해석된다.

그림VII-3 수의사의 비만 판정을 받은 반려동물 여부 (단위:%)



주) 개체수 기준 전체 n=1488, 수도권 n=779, 비수도권 n=709, 단독주택 n=212, 집합주택 n=1261

그림VII-4 반려동물 품종별 비만율(수의사 비만 판정) (단위:%)



주1) 비만율: 품종별로 (비만 진단받은 개체수/ 전체 개체수*100)
주2) 가장 많이 기르는 견종 Top10, 묘종 Top7 중심으로 산출
(반려묘의 경우 비만 판정률이 낮아 상위 7개 품종 산출)
주3) 반려묘는 단일품종으로 3순위 '모름'을 제외, 8순위 '아비시니안' 추가

02 반려동물 비만 관리의 중요성

> **반려가구는 비만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수의사의 비만 진단 이후 알게 됐다**

반려가구는 동물의 비만 여부를 진단하는 '체중'에 의한 비만 진단 기준과 '눈바디' 비만 간이 추정 방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의 비만을 귀여움으로 관대하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 앞서 한국 반려가구 중 반려동물의 비만 관리를 하고 있는 반려가구는 14.7%를 기록했는데, 실제 반려인들은 자가 진단보다 수의사로부터 비만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구체적 진단 과정에 대해 표적집단심층면접(FGD)을 통해 들어볼 수 있었다. 비만 반려견을 기르는 참여자들은 "나는 비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의사는 비만이라고 했어요", "한쪽 다리를 절어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엑스레이상 문제는 없고 비만일 수 있다고 말해줘서 알았어요", "검진에서 엑스레이 촬영한 것을 보여주면서 이게 다 살이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라는 얘기를 들려주었다. 이들은 반려동물이 비만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동물병원에서 비만 판정을 받게 됐고, 인지 시기가 늦어 비만에 대한 예방보다 사후 관리에 집중하게 됐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했다. 비만을 판정받은 이후 담당 수의사나 카페/커뮤니티, 유튜브, SNS, 펫페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적극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그림VII-5 반려동물 비만 인지 계기

"반려동물 비만의 심각성은 수의사 진단 이후"

- '비만' 판단은 체중 외 외형적 특징을 모두 고려함
- 단, 비만의 심각도는 수의사 '진단' 이후
  "나는 비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의사는 비만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놔두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 더 되기 시작했어요."
- 케어 방식의 변화가 인지를 하게 촉진
- 정기 검진, 접종 등이 늘면서 동물병원 이용 빈도가 높아짐
- 기본 검사 항목에 몸무게를 알 수 있음
  "접종 같이 인식이 크게 달라지면서 병원 갈 일도 많아져서 계속 체크하고 알게 되죠."
  "검진에서 엑스레이 촬영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다 살이라고 얘기해 주더라구요."

"반려동물 비만은 예방보다 사후 케어가..."

- 반려동물 비만의 예방 조치보다 사후 케어의 경향
- 반려동물 비만을 인지하지 못해 예방 조치가 어려움
  "고구마를 좋아해서 많이 먹였는데 그때는 잘 먹어서 많이 줬죠. 그래서 살이 찌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많이 안 먹였죠."

비만관련 정보 습득에 적극적

- 담당 수의사 의견에 따라 다이어트용 사료 등을 구입
- 카페/커뮤니티를 통해 사료, 운동법 중심으로 정보 탐색
- 유튜브, SNS의 유사 비만 사례 소개, 신제품 리뷰 등
- 펫페어가 주요 정보 및 신제품 구매 채널로 이용
  "신제품을 알기 쉽고 영양제 샘플 같은 것도 얻을 수 있어요."

주) 수의사의 비만 판정을 받은 반려동물이 있는 반려가구대상 표적집단심층면접(FGD) 결과

반려동물의 비만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적극적 관리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반려가구 대부분은 반려동물의 비만에 대해 수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그 위험성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표적집단심층면접(FGD)에 참여한 비만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인들은 수의사의 진단 이후 반려동물의 비만 위험성을 인지했고, 사람과 마찬가지로 고혈압이나 당뇨, 간, 심장, 뇌 기능 저하 등 새로운 질환이 생기거나 기존의 질병이 재발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알았다. 또한 비만으로 인해 슬개골 탈구 등 관절 질환 위험도 증가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체중이 늘면서 움직임이 둔해지거나 반려묘의 경우 스스로 그루밍을 못 하는 상황이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이후 그들은 반려동물의 비만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늘었고, 이러한 인식 변화의 동인으로는 반려동물의 가족 내 위상 변화나 비만 관련 미디어 노출이 증가하면서 적극적 비만 관리를 결심하게 됐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그림VII-6 반려동물 비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및 비만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반려인의 인식

반려동물의 비만으로 인한 건강질환 우려는 사람과 동일

고혈압, 당뇨, 간, 심장, 뇌 기능 저하

"사람도 비만이면 성인병이 있듯 아이들도 똑같이 안 좋을 거라 생각해요."

"혈액 검사 상당 수치가 높아서 병원에서 다이어트를 강하게 권유했어요. 당이 높으면 수술 시 마취할 수가 없거든요."

기존 질병 재발 위험성 증가

슬개골 탈구 등 관절 질환 위험 증가

"슬개골 탈구가 걱정되어 영양제나 사료도 신경을 쓰고, 매트도 다 설치했어요."

"제일 걱정되는 거는 관절이죠. 슬개골 탈구. 왜냐하면 강아지들이 다리가 워낙 얇으니까..."

움직임이 둔하고 잘 움직이지 않음

"몸무게가 많이 늘어나고 나서는 확실히 운동량이 줄어든 건 사실이거든요. 집 안에서는 거의 누워 있어요."

(반려묘) 스스로 그루밍을 못함

"살이 찌면 스스로 그루밍을 못하는 부분이 생겨요."

과거보다 반려동물의 비만을 '적극적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

반려동물 비만 관련 미디어 노출 증가

"예전에는 동물이 비만이어도 방치했다면 이제는 가족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비만 관리를 더 신경 쓴다고 생각해요."

"요새 TV에서도 그런 동물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오래 같이 살려면 다이어트 해야 된다는 인식이 다 생긴 것 같아요."

간식 종류도 다양해짐

"지금은 정말 간식의 종류도 많고 다양하게 나와요. 사료 종류도 많으니까 한 번씩은 다 시도를 해 보게 돼요."

주) 수의사의 비만 판정을 받은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기르는 반려인 대상 표적집단심층면접(FGD) 결과

반려가구는 '과식을 부르는 식습관이나 양육 환경'이 반려동물의 비만을 유발한 원인이라 생각했다

흔히 사람의 비만 원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생활 습관이나 유전적인 요인(성별), 특정 질환, 환경 등을 원인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 또한 간식 등 섭취하는 칼로리가 많거나 운동량이 부족할 때 비만해질 수 있다. 사람에게 특정 질환이나 호르몬 변화 등이 비만의 원인으로 작용하듯 중성화 수술 이후 체중이 증가하는 반려동물도 많다.

비만 진단을 받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비만의 원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표적집단심층면접(FGD) 참여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들어 보았다. 좌담회 참여자들은 비만의 가장 큰 원인으로 '과식을 부르는 식습관이나 양육 환경'을 꼽았다. 자율배식의 실패나 간식 섭취량의 증가, 사료 섭취량 조절 실패, 다이어트 요요 현상 등을 언급했다. 다음으로는 '운동 부족'이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는데, 특히 실내에서 생활하는 반려묘에게 많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해 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 외에 어미가 비만인 경우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거나, 식탐이나 체질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쪽 눈이 잘 안 보여서 나가면 자꾸 부딪치니까 ... 산책을 좋아하지 않게 되더라구요", "중성화 수술 이후 살이 많이 쪘어요 ..."라며 특정 질병이거나 질병 · 질환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만도 언급했다.

그림VII-7 반려동물 비만의 주요 원인

빈도

과식을 부르는 식습관	• **자율배식의 배식 실패 or 간식 섭취량의 증가** (훈련 시 부모님이 추가로 주는 등) • **약물 조절 기간 빠졌다가 다시 살이 찌는 요요현상 경험** "간식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어머니에게 위탁하면 닭고기 같은 것도 삶아주시고 츄르도 따로 주시고..." "자동급식기를 썼는데 처음 얼마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양 조절이 어려워요."
운동부족	• **미용 하러 갔다 트라우마가 생겨 외부활동 거부 or 나이가 많아지면서 활동량 감소** • **(반려묘) 실내에서 많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 제공이 어려움** "결국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그러는 것인데 많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어요."
유전	• **유전적 요인, 식탐** "어미가 비만이라 아이도 비만 조심하라고 들은 적이 있어요." "식탐이 많고 체질적인 것도 있어서 조절을 해줘야 해요."
질병	• **한쪽 눈 실명으로 인한 부딪힘, 중성화 수술 이후 체중 증가** "한쪽 눈이 잘 안보여서 나가면 자꾸 부딪치니까 어느 순간 산책을 좋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중성화 수술이후 살이 많이 쪘어요.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서 비만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들었어요."
양육환경변화	• **과거 대비 급식 방식, 거주 환경 개선** "과거 대비 급여 방식, 양육 환경이 달라지고 좋아지면서 비만 확률이 높아진 것 같아요."

주) 비만인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인 대상 표적집단심층면접(FGD) 결과

반려동물 비만 관리의 주체는 '반려인'이나 '반려가구'가 최선, 전문가나 동물병원 등 컨설팅 가능한 기관의 조력을 원했다

반려동물의 비만 관리를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람은 '반려인' 또는 '반려가구'라 하겠다.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반려동물의 비만 관리를 주도하는 주체가 누구이고 실제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의사로부터 반려동물의 비만 진단을 받은 반려인을 대상으로 표적집단심층면접(FGD)을 실시했다. 좌담회 참여자들은 지속성 있는 반려동물 비만 관리를 위해서는 '반려인'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가장 많이 언급했으며,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이 강한 반려묘의 경우 반려인 외에는 관리가 힘들다고 했다. 다음으로는 "아이 상태에 따라 처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전문가와 소통하고 싶어요"라며 '반려인'을 도와줄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론했다. 3순위로는 '병원 등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개인보다 신뢰성이 높은 기관의 전문적 관리를 희망하며 비만인 반려동물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컨설팅도 언급했다.

한편 좀더 스마트하고 효과성 있는 반려동물 비만 관리를 위해 그 주체가 되는 '반려인을 위한 비만 관리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참여자는 "먹이도 줄여 보고 운동도 해봤으나 효과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소 비싸더라도 효과가 있다면 해보고 싶어요"라고 언급했고, 다른 참여자는 "아이가 분리불안이 있어서 혼자 둘 때마다 미안해서 간식을 더 챙겨주고, 1인가구라 바쁘면 운동을 못 시켜 주게 돼요"라며 효과적인 비만 관리 방법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반려동물의 엄격한 비만 관리가 어려운 반려인에게 동기부여가 가능한 대응 방안을 필요로 했다.

그림VII-8 비만 반려동물 관리 주체 및 개선 희망 사항

주인 스스로 가능

- **지속성 있는 비만 관리는 반드시 '반려인'이 해야 함**
- **반려묘는 외부인 경계가 심해 '반려인'만 가능**

"계속 같이 있는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주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반려견과는 달리 반려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낯선 공간이나 사람에게 협조적이지 않아요"

전문가 필요

- **전문가와 주기적 소통** (비대면 케어 긍정적)

"음식량 조절, 운동을 시키는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이 상태에 따라 처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전문가와 소통하고 싶어요. 반려견도 비대면/영상 통화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병원 등 기관 필요

- **개인보다 신뢰성 높은 기관의 전문적 관리 희망**
- **비만 관리 외 생활공간 컨설팅 필요**

"마음이 약해질 때 솔루션이나 세미나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반려묘라도 생활공간에 대한 컨설팅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개선 희망 사항

- **효과적이고 가성비 높은 스마트한 비만 관리**
- **일관성이 떨어지고, 의지박약인 주인에게 동기부여**

"먹이도 줄여보고 운동도 해봤지만 효과 없어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다소 비싸더라도 효과가 있다면 해보고 싶어요."

"아이가 분리불안이 있어서 혼자 둘 때마다 미안해서 간식을 더 챙겨주고, 1인가구라 바쁘면 운동을 못 시켜주게 돼요."

주) 반려동물 비만관리 중인 반려인대상 표적집단심층면접(FGD) 결과

03 반려동물 비만 대응

반려인들은 간식 및 사료량 조절, 사료 종류 변경, 운동 등 반려동물 비만 관리법으로 주로 섭식 관리를 시도했다

반려가구는 반려동물 비만 관리를 위해 어떤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지 질문해 보았다. 반려가구가 반려동물 비만 관리를 위해 가장 많이 시도하는 방법은 '간식량 조절'(69.9%)과 '사료 급여량 조절'(63.5%), '운동/활동량 조절'(51.5%)의 순으로 절반이 넘었다. 그 외 '사료 종류 변경'(38.8%), '규칙적인 사료 배식'(29.6%), '병원 진료/검진'(15.5%), '건강보조제/영양제 급여'(12.0%) 등의 순으로 섭식에 대한 방법을 주로 시도했다. 산책이나 달리기, 놀이 등 활동량을 늘리거나 반려동물 피트니스센터를 보내거나 반려동물용 운동기구를 구입해 '홈트'를 시도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으나 '섭식 조절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반려동물유형별로도 비만 관리를 위해 시도한 방법의 우선순위에는 차이가 없었다. 다만, 반려견가구나 반려묘가구에 비해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에서 좀더 다양한 비만 관리 방법을 시도했다. 여러 마리를 기르는 반려가구의 경우 먹이 경쟁이 나타나 간식이나 사료 등 섭식 조절 방법으로 효과를 보기 힘들 수 있어 다양한 관리 방법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VII-9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비만 관리 방법 (복수응답, 단위:%)

주) 반려동물이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반려인 전체 n=425, 양육하는 반려동물유형별 반려견 n=223, 반려묘 n=142, 둘다 n=60

이는 수의사의 비만 진단을 받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적집단심층면접(FGD) 결과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의 섭식 관리를 위해 자동 급식기나 로봇 간식기, 여러 마리를 기르는 경우 한 개의 급식기로 개체마다 개별 급식이 가능한 스마트 급식기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으나 부정적 결과가 나타났다는 의견이 많았다. 급식기의 경우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가격차가 커서 경제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었고, 내구성이 낮거나 관리가 번거로우며, 앱 서비스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점 여러 개선점이 확인되었다. 그 외에 운동 기구나 장난감 등 활동량을 늘리기 위해 구입한 물품은 초기에는 잘 활용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력이 떨어지거나 쉽게 고장 나는 점 등에서 불만이 있었다.

그림 VII-10 반려인들이 시도하고 있는 반려동물 비만 관리 방법

	비만관리행동	애로사항
사료	• 다이어트용 사료로 100% 변경 • 혹은 일반+다이어트용 사료 혼합하여 급여 "일반 사료랑 칼로리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구요. 포만감을 주기 위해 습식과 섞어서 주기도 해요." • 사료의 양을 줄임 ☺ "하루에 6회로 나눠서 먹이고 있어요. 양을 적게 자주 줘서 공복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편이에요." "먹는 양,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 (자동급식기를) 구입해서 사용해요."	• 자동급식기 고장 등 일정량, 일정 시간 급식 어려움 • 업체가 망해서 관련 앱/AS 이용 못함 • (다수 양육) 개별 인식 기능이 없어 양조절이 어려움 "고양이가 답답했는지 기기를 쓰러뜨려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요." "핸드폰으로 조작 가능한 급식기를 샀는데 업체가 망해서 앱 사용을 못했어요."
간식 · 건기식	• 간식 양 & 빈도를 줄임 ☺ • 간식 종류를 바꿈 (방울토마토, 블루베리 등) ☺ "간식은 가끔 덴탈 주거나 저칼로리로 챙겨줘요." "고구마 좋아해서 많이 먹였는데 그게 살 찐다고 해서 현재는 조절 중이에요." • 유산균, 관절약, 루테인 ☺ "노화 및 소화관련해서 유산균, 루테인 등을 먹이고 있어요."	• 다이어트 사료/간식 이용 시 체중관리효과를 알기 어려움 • 건기식 섭취 가이드라인 부족
운동	• (견) 산책 빈도 및 시간을 늘리려고 함 ☺ • (묘) 캣휠 등 운동 기구 장만 • (묘) 함께하는 시간 늘리기(심리적 허기 달래주기) ☺ "산책을 늘리려고 시도하는데 산책 시간이 좀 더 길어지면 안 움직이려고 해서 문제입니다."	• (견) 노령이나 관절이 불편해서 운동이 어려움 • (묘) 운동용으로 구매한 장난감을 금방 싫증냄 "고양이섬 파도타기 장난감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잘 놀았다가 아이들이 질려서 잘 안 쓰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기구를 무서워해서 체육관이나 러닝머신을 잘 안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효과성 높음 ☺

주) 반려동물 비만관리 중인 반려인대상 표적집단심층면접(FGD)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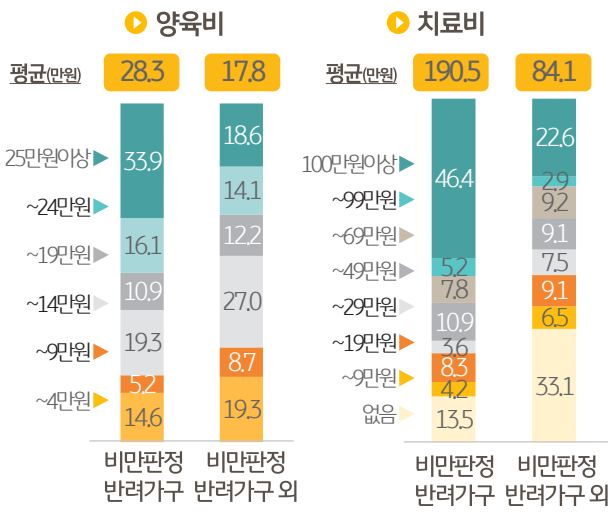
반려동물 비만 관리 중인 반려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양육비는 1.3배, 병원비는 2.6배 더 지출했다

앞서 수의사의 비만 판정을 받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의 경우 다이어트 사료 및 영양제, 활동량을 늘리는 운동 기구나 물품의 구입 등 비만 관리를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지출하고 있었다. 이들이 반려동물 비만 관리에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 월 양육비와 치료비를 중심으로 비만 관리를 하지 않는 반려가구의 지출 규모와 비교해 보았다.

먼저 수의사의 비만 판정을 받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이하 '비만판정 반려가구')는 월 양육비로 평균 28만 3천 원을 지출하여 평균 17만 8천 원을 지출하는 비만 판정을 받지 않은 반려동물 가구(이하 '비만판정 반려가구 외 가구')에 비해 1.6배 더 많은 비용을 부담했다. 한편 최근 2년 간 치료비 지출에서도 '비만판정 반려가구'가 190만 5천 원을 지출한 데 비해 그렇지 않은 가구의 84만 1천 원보다 2.3배나 컸다.

표적집단심층면접(FGD)에서도 반려동물 비만관리 중인 반려가구에서 지출 증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고, 특히 월 양육비보다는 규모가 큰 치료비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양육비에서는 다이어트용 사료나 고급 사료 구입, 가구·유모차 구입, 패션 잡화 및 장난감 구입 등 비만 관리를 위한 추가 지출이 발생했고, 치료비에서는 정기검진 외 비만으로 인한 질환 치료를 위한 추가 지출이 늘었다. 비만 관리를 위해 동물병원 내원이 잦고 고령으로 보험 가입도 어려워 더욱 경제적 어려움이 컸다.

그림VII-11 반려동물 비만 관리를 위한 양육비/치료비 (단위:%)



주) 수의사의 비만 판정을 받은 반려가구 n=192, 기타 반려가구 n=828

그림VII-12 반려동물 비만 관리를 위한 비용 부담

"월양육비 증가 but 의료비 대비 부담은 적은 편"

- **평상 시 '다이어트'용 사료를 메인으로 먹임**
- **'고급사료', '가구/유모차', '패션 잡화', '장난감' 등 추가 구매**

"다이어트 사료를 구매했어요. 1.3배 정도 비싸요."
"오메가 3 같은 건강기능식품도 먹여요."
"저는 장난감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장난감을 엄청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아이에게 계속 자극을 주려고요."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의료비"

- **정기검진 외 비만으로 인한 질환 치료 등으로 추가 비용 발생**

"5살부터 1년 주기로, 8살 이후에는 6개월 주기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어요. 비만도 그 덕분에 알게 되었어요."
"어디 아프다고 하면 검사를 종류별로 다 해야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보험가입도 어렵고."

주) 반려동물 비만관리 중인 반려인대상 표적집단심층면접(FGD) 결과

반려동물 비만 관리를 위해 향후 구매 의향이 있는 상품은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원격진료 상담에 대한 니즈가 컸다

반려동물의 비만 관리를 위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려가구가 향후 이용 의향이 가장 높은 상품은 '반려동물용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였다. 애플 워치처럼 활동량을 직접 확인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구매 의향을 자극했다. 그 외에 '온라인 영양상담 서비스'나 '원격 카메라나 자동 간식 배급기', '위치 추적 가능 트래커', '특화 기능성 사료' 등의 순으로 구매 의향을 보였다. 반려가구가 반려동물 비만 케어를 위해 호감을 보이는 부분은 활동량을 증대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적집단심층면접(FGD) 참여자 중에는 반려동물 비만 관리뿐 아니라 일반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진단받을 수 있는 '원격의료상담 및 진료'에 대한 호감을 나타낸 반려인도 있었다. 한편 원격진료 수준에 대한 의구심이나 원격 의료 상담이 동물병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중복 지출을 우려하는 부정적 인식을 가진 반려인도 일부 있었다.

특히 반려묘가구에서는 배변패드에 체중을 재거나 배설물을 통해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해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서도 비만 진단이나 관리, 간단한 건강 이상을 파악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니즈도 언급했다.

그림VII-13 향후 반려인들이 반려동물 비만 관리를 위해 이용 의향이 있는 상품 및 서비스

향후 이용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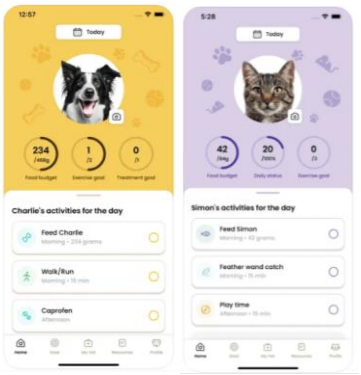
- **반려동물용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 **눈으로 활동량을 측정 가능, 체계적 관리 + 스트레스 지수 확인**
    "애플워치 쓰듯이 눈으로 보이는 활동량을 측정할 수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고, 스트레스 지수를 수치화해서 알려주면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온라인 영양상담서비스**
  - **신뢰도 높은 전문 상담 가능** (+체혈검사 등 수의사 연계 서비스 기대)
    "잘못된 정보가 아닌 견종이나 연령에 맞는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원격 카메라 & 자동간식배급기**
  - **원격 시스템에 대한 호감도 높음 + (묘) IoT 기반 원격조정 가능한 장난감, 신규 장난감 배송 구독제**
    "원격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좋네요. 비싸지 않으면 사고 싶어요."
- **이동거리, 속도, 칼로리 소모 추적 가능 트래커**
  -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반려동물의 상태별 운동량 조절 가능**
    "슬개골이 안 좋은데 칼로리 소모량을 알면 운동량과 식사량을 조절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보지 않을 때도 추적이 가능해서 좋을 것 같아요."
- **체중 감량과 유지에 특화된 기능성 사료**
  - **체중 감량에 높은 효과성 + 반려동물 좋아하는 맛**
    "효과성이 있다면 이 중에서 오래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주) 비만인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인 대상 표적집단심층면접(FGD) 결과

반려동물 비만관리 서비스 앱 사례

미국 처비 도그네이션(Chubby Dog Nation)/ 팻캣 소사이어티(Fat Cat Society)

- 30년 경력의 수의테크니션이 개발한 앱으로 반려견/반려묘의 체중감량 및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지원
- **[제공서비스]** 반려동물 체중감량 계산기, 체중에 맞는 다이어트 로드맵, 목표체중 추적, 유지체중 추적, 개인화된 사료급여 계획, 운동 알림, 식사 시간 알림, 월별 보고서 등을 제공. 연간 건강검진이나 백신 접종, 예방약, 수의사가 처방한 복용량을 체크할 수 있음
- **[차별점]** 수의사에게 월별 보고서가 자동 전송되어 반려견·반려묘의 체중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고 보험사와 연계하여 건강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음
- **[비용]** 월 구독료 4.99달러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 **[평가]** 실제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높은편으로 앱스토어 리뷰 평점 4.6점을 기록.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후기가 있음



자료: Chubby Dog Nation

영국 스페시픽 체중 관리 앱(SPECIFIC Weight Management app)

- 글로벌 동물제약기업 데크라(Dechra)가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브랜드로 체중 감량, 처방식 등 특수 사료를 동물병원을 통해 판매. 2023년 12월, 반려견과 반려묘가 이상적인 체중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앱 출시
- **[제공서비스]** 반려동물에 맞는 맞춤형 급식 프로그램을 마련해 각각의 목적에 맞는 이상적인 급식량과 예상 체중 감량을 계산한 후 반려동물 성장에 따른 맞춤형 먹이지침과 체중감량 여정에 따른 급여량 조절 프로그램, 진행상황 모니터링, 수의사 연결 서비스를 제공
- **[차별점]** 수의사의 초대를 받아 앱을 이용하는 경우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위해 설계한 체중감량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2주마다 또는 수의사의 권고에 따라 반려동물의 체중변화량을 반영하여 사료 섭취량을 재계산하여 안정적이고 안전한 체중감량을 보장
- **[비용]** 없음
- **[평가]** 이용자들의 후기는 찾아볼 수 없으나 기존에 동물병원에서 처방사료를 급여하는 반려가구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

자료: Dechra Veterinary Products Limited

반려동물 비만도 측정 방법

BCS 신체충실지수(Body Condition Score)

- 네슬레 퓨리나 펫케어(Nestlé Purina PetCare)에서 개발한 정량적 비만측정 방법으로 잠재적 비만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소속 과학자들이 개발한 후 독립적 연구를 통해 검증 과정을 거쳤으며, 전 세계적으로 과학연구 및 일상적인 소동물 진료에서 유용한 임상도구로 활용
- 수의사가 반려동물의 신체 상태, 지방 축적 및 영양 상태를 평가. 1점(쇠약하고 극도로 저체중)에서 9점(체지방이 극도로 많은 위험할 정도로 비만)까지 진단하며, 이상적인 단계는 4단계와 5단계로 알려짐

◆ 저체중 단계

1

- 갈비뼈·요추·골반 및 뚜렷한 뼈의 윤곽이 보임
- 지방이 없고 근육의 손실이 뚜렷함

2

- 갈비뼈·요추·골반 부분이 두드러져 보임
- 만질 수 있는 지방이 없음
- 멀리서도 일부 뼈의 돌출이 보임
- 지방이 없고 근육의 손실이 뚜렷함

3

- 갈비뼈가 쉽게 만져지고 만져지는 지방이 없을 수 있음
- 요추의 윗부분과 골반뼈가 두드러짐
- 배와 허리가 홀쭉함

◆ 이상적 단계~ 과체중

이상적

4

- 갈비뼈가 쉽게 만져지고 지방이 조금 있음
- 위에서 봤을 때 허리를 쉽게 구분
- 허리가 잘록하고 탄탄함

이상적

5

- 갈비뼈가 만져지고 지방이 조금 있음
- 위에서 봤을 때 갈비뼈 뒤로 허리가 보임
- 옆에서 봤을 때 배가 홀쭉함

6

- 갈비뼈가 만져지며 지방이 많이 덮여 있음
- 위에서 봤을 때 허리가 보이지만 뚜렷하지 않음
- 옆에서 봤을 때 배가 조금 들어가 있음

◆ 비만 단계

7

- 갈비뼈를 만지기 어렵고 허리가 보이지 않음
- 허리와 꼬리 밑부분에 눈에 띄게 지방이 축적
- 허리가 없거나 거의 보이지 않음

8

- 손에 힘을 줘야 갈비뼈가 만져짐
- 허리와 꼬리 밑부분에 두꺼운 지방층
- 허리를 구분할 수 없고 배가 나올 수 있음

9

- 흉부 척추 꼬리 아랫부분에 지방층이 아주 많음
- 목과 다리에도 지방이 축적됨
- 허리를 구분할 수 없고 배가 나옴

자료: 로열캐닌(Royal Canin)

Key Findings

**반려동물 비만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적극적 관리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반려인들은 반려동물 비만 관리 정보 부족을 절감했다.**

반려가구 중 절반 정도만 반려동물 비만 진단의 체중 기준, '눈바디' 추정 기준에 대해 알고 있었다.

◎ '비만'과 '고도비만'을 진단하는 체중 기준에 대해 반려가구의 43.8%가 인지

◎ '수도권'(46.3%)이나 '집합주택'(44.2%)에 거주하는 반려가구가 상대적으로 인지 수준이 높음

한국 반려동물의 비만율은 14.7%, 요크셔테리어, 치와와, 포메라니안의 비만율이 높았다.

◎ 한국에 사는 반려동물 중 '수의사의 비만 판정'을 받은 경우는 14.7%를 차지

◎ 반려묘는 '페르시안'(70.0%), '샴'(60.0%), '러시안블루'(50.0%) 등의 순으로 비만율이 높고,
'외출'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동물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반려동물의 비만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적극적 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다.

◎ 반려가구는 반려동물의 비만을 인지하는 시점이 '수의사 비만 판정' 이후로 사후 관리가 주를 이룸

◎ 반려가구는 '과식을 부르는 식습관이나 양육 환경'이 반려동물의 비만을 유발한 주된 원인이라 생각

◎ 반려동물 비만 관리의 주체는 '반려인'이나 '반려가구'가 최선이며, 전문가나 컨설팅 등의 조력도 희망

반려가구의 비만 관리 방법은 간식 및 사료 섭취량 조절, 사료 종류 변경 등 주로 섭식 관리였다.

◎ 반려동물 비만 관리 방법은 주로 '간식량'(69.9%), '사료 급여량'(63.5%), '운동/활동량'(51.5%) 조절

◎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가 좀 더 다양한 비만 관리 방법을 시도
(여러 마리를 기르는 경우 한정된 먹이를 경쟁적으로 차지하려는 먹이 경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

◎ 반려동물 비만 관리 중인 반려가구는 그외 가구보다 양육비는 1.6배, 병원비는 2.3배 더 많이 지출

◎ 향후 추가 구매 의향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반려동물용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가 가장 많음
(애플워치처럼 눈으로 활동량을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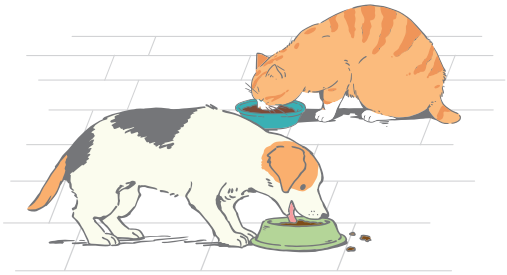
최근 반려동물 건강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 비만 관리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사람과 마찬가지로 적극적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된다. 반려가구는 스스로 비만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관리 과정에서 전문가나 동물병원 등 컨설팅 지원을 필요로 하며 다양한 비만 관리 방법을 시도하고 있었다. 주로 섭식 관리나 운동량을 늘릴 수 있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반려동물 비만 관리 중인 반려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양육비는 1.6배, 병원비는 2.3배 지출이 많았다. 그러나 계속적인 반려동물 비만 관리 의향을 보여,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며 건강하게 함께 살고 싶다는 바람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01 | 용어정의

02 | 연구 방법

03 | 참고자료



참고 1 | 용어 정의

【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정의 】

- 반려동물 :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의미로,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움에서 동물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콘라트 로렌초(Konrad Lorenz)가 제안했으며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사용
- 유기동물 : 주인의 실수 또는 의도적인 목적으로 버려진 반려동물

【 반려동물 양육여부별 가구 및 사람 유형 】

- 반려가구: 현재 거주지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며 함께 생활하는 가구
- 비반려가구:현재 거주지에서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가구
- 반려인:반려가구 구성원으로서 반려동물 양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
- 비반려인: 현재 거주지에서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

【 반려동물 양육종류별 가구 유형 】

- 반려견가구: 반려동물로 개(반려견)만을 기르는 반려가구
- 반려묘가구:반려동물로 고양이(반려묘)만을 기르는 반려가구
-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또는 동시 양육 가구): 반려동물로 개(반려견)와 고양이(반려묘)를 동시에 기르는 반려가구

【 가구 유형 분류 】

- 1인가구: 현재 1인이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가구
- 부부가구: 자녀를 낳지 않고 부부 2인이 생계를 영위하는 가구
- 부모자녀가구: 부모와 미혼 자녀가 같은 거주지에서 함께 생계를 영위하는 가구

【 견종 크기 및 혈통 기준 반려견 구분 】

- 견종 크기 기준: '소형견'은 10kg 미만, '중형견'은 10kg 이상 25kg 미만, '대형견'은 25kg 이상인 개
- 혈통 기준: '순종견'은 부모견과 동일한 혈통을 가진 개, '믹스견'은 두 종류 이상의 혈통이 섞인 개를 의미

【 입양 채널 】

- 전문 브리더: 특정 품종의 반려동물을 전문적으로 번식시키는 개인이나 단체
- 반려동물복합매장: 반려동물 용품 판매, 미용, 훈련, 분양, 호텔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군데서 제공하는 곳
- 애견센터: 주로 반려동물 분양, 훈련, 용품 판매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
- 동물병원: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 진료, 치료 등 건강 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곳

【 반려동물 관련 신조어 】

- 펫티켓: '반려동물(Pet)'과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며 지켜야 할 공공 예절을 의미
- 펫코노미: '반려동물(Pet)'과 '경제(Economy)'의 합성어로 반려동물과 연관된 시장 또는 산업을 의미
- 펫 웰니스: 웰빙(Wellbeing)·행복(Happiness)·건강(Fitness)의 합성어인 '웰니스(Wellness)'와 '반려동물(Pet)'을 결합한 단어로, 반려동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종합적으로 돌봄을 의미
- 펫 휴머나이제이션: '반려동물(Pet)'과 '인간화(Humanization)'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인간처럼 대하고 보살피는 트렌드를 의미
- 펫테크: '반려동물(Pet)'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의미

【 반려동물 사료 】

- 건사료(건식사료): 수분 함량이 10% 내외로 낮고 딱딱한 형태로 제공되는 사료로 보관이 용이
- 습식사료: 수분 함량이 60% 이상으로 높고 부드러운 형태로 제공되는 사료로 기호성이 좋고 건사료와 혼합 급여하기 용이
- 화식사료: 신선한 재료를 익혀서 만드는 사료로 영양 손실이 적고 소화가 잘 되는 것이 장점
- 자연식: 가공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을 의미하며, 재료를 익히지 않고 날것으로 먹는 생식과 불로 익혀서 조리하는 화식으로 구분

【 펫로스 】

- 펫로스(Pet Loss): 반려동물을 의미하는 '펫(Pet)'과 상실, 죽음을 의미하는 '로스(Loss)'의 합성어. 많은 경우 펫로스는 반려동물이 죽은 뒤 경험하는 상실감·우울감 등의 감정과 동의어로 사용되나, 본 보고서에서는 문자 그대로 '반려동물과의 이별' 경험을 의미
- 펫로스 증후군(Pet Loss Syndrome): 사랑하던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후 오랜 기간 동안 슬픔과 상실감 등의 심리적인 고통을 느끼는 상태. 펫로스 증후군은 아직 정신과 진단 체계에서는 공식적인 진단은 아니나, 본 보고서에서는 '사별 후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불편을 주는 슬픔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해당하는 '지속성 애도장애(Prolonged Grief Disorder, PGD)'의 진단기준을 적용(경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운선 교수 연구팀 논문 포함 국내외 연구 사례 참고)

【 반려동물 비만 】

- '비만' 진단: 정상 체중보다 20% 이상 과체중인 경우
- '고도비만' 진단: 정상 체중보다 40% 이상 과체중인 경우
- 눈바디: '눈으로 측정하는 인바디'의 줄임말로 체중계나 인바디 기계와 같은 측정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육안으로 비만 여부 등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
- 비만율: 전체 개체수 중 수의사의 비만 판정을 받은 개체수 비중(품종별)

참고 2 | 연구 방법

■ 정량조사 개요

조사대상	반려동물 전체 시장 현황 분석용 ▪ 전국에 거주하는 20세 ~ 69세 남녀 ▪ 가구 내 금융의사 결정자	반려동물 양육 세부 현황 분석용 ▪ 반려동물을 양육 중인 전국에 거주하는 20세 ~ 69세 남녀 ▪ 가구 내 금융의사 결정자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모바일 조사	
표본추출방법	▪ 지역/가구주연령/성별/가구구성을 고려한 할당표본추출법(Quota Sampling)	
표본구성	▪ 반려동물 전체 시장 분석 2천 명, 반려가구 양육 현황 분석 1천 명	
조사기간	▪ 2025년 2월 12일 ~2025년 2월 26일 (15일간)	

■ 정성조사 개요

조사대상

▪ 과거 개/고양이와 이별/사별 경험이 있는 자 혹은 현재 양육중인 개/고양이가 비만 상태이거나 동물병원에서 비만 진단을 받은 경우
- 가구 자산관리 의사결정 관여자, 반려동물 양육 의사결정자

조사방법

▪ 표적집단심층면접(Focused Group Discussion, FGD)

표본추출방법

▪ 판단표본추출(Judgement Sampling)
- 사전 전화면접/이메일 조사 등을 통해 적합성 확인 후 선정

표본구성

▪ 6그룹, 총 45명

No.	특성		샘플 (명)
그룹 1	이별(사별) 경험	만 45~59세 미/기혼 남녀 & 현 반려견 양육자	8
그룹 2		만 30~44세 미/기혼 남녀 & 현 반려견 양육자	7
그룹 3		만 30~44세 미/기혼 남녀 & 현 반려묘 양육자	8
그룹 4	비만 진단	만 45~59세 미/기혼 남녀 & 현 반려견 양육자	6
그룹 5		만 30~44세 미/기혼 남녀 & 현 반려견 양육자	8
그룹 6		만 30~44세 미/기혼 남녀 & 현 반려묘 양육자	8

조사기간

▪ 2025년 3월 5일 ~ 2025년 3월 13일

참고 3 | 참고 자료

- **도서**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23.6),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 농림축산식품부(2023, 2024), 『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결과 보고서』.
  - 농림축산검역본부(2023, 2024),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 조사 결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4), 『반려동물 산업 조사 체계 진단 및 실태 조사 반려동물로 고양이』.

- **아티클**
  - 경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운선 교수 연구팀(정운선, 안지성, 이상원, 김경민, 진보현)(2023.8), JKMS,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Experience and Complicated Grief: The Importance of Psychological Support for Individuals Coping With Pet Loss in Korea".
  - 삼정KPMG경제연구원(2024), <다가오는 펫코노미 2.0시대, 펫 비즈니스 트렌드와 새로운 기회>.
  - 서울디지털재단(2024), <서울 펫 스마트라이프: 데이터로 본 반려동물과의 동행 (데이터 이슈 브리프 24-01)>.
  - American Pet Products Association(2024.8), "2024 Dog and Cat Report: Strategic Insights from the National Pet Owners Survey".
  - Association for Pet Obesity Prevention((2022), "2022 U.S. Pet Obesity Prevalence Survey".
  - Holly G. Prigerson, M. Katherine Shear, Charles F. Reynolds(Feb. 2022), "Prolonged Grief Disorder Diagnostic Criteria – Helping Those With Maladaptive Grief Responses", JAMA Psychiatry.
  - Intent Market Research(Mar. 2025), "Pet Wellness Market".

- **언론자료**
  - 《데일리벳》(2018.3.26), "고양이에게 습식사료란? 높은 기호성 + 수분 섭취량 ↑↑".
  - 《매일경제》(2024.3.7), ""유난 떠는 거 아니냐고요?" 반려인 '펫로스 증후군' 주의보".
  - 《여성동아》(2024.9.20), "반려동물 사별을 애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필요할까?".
  - 《조선일보》(2025.2.25), "사별의 아픔, 오랫동안 이겨내기 어렵다면".
  - 《팜뉴스》(2023.8.28), "반려동물 케어도 '테크'가 대세! 기술 접목한 반려동물 셀프케어".
  - 《한경》(2024.1.13), "반려동물 잃은 슬픔 1년 넘게 간다... 우울·불안·불면 동반".
  - 《헬스조선》(2024.2.8), "반려동물에게 사료 대신 '자연식'... 수의사는 권장할까?".

- **디지털 자료**
  - 해람정신건강연구회, "펫로스증후군: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후 슬프고 우울한 마음이 지속된다면".
  - 한국관광공사, "반려동물 전성시대, 관광시장에 나타난 펫 트렌드 분석".
  -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Coping with the loss of a pet".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mericans' Pets Offer Mental Health Support to Their Owners, 1 out of 5 Pet Owners Has an Emotional Support Animal".
  - Dogtopia, "Top Pet Care Industry Trends In 2025".